신앙 고백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데이빗리 목사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 차 CONTENTS

서 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요 _ 5

제 1 장 성경에 대하여 _ 24

제 2 장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_ 62

제 3 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하여 _ 81

제 4 장 창조에 관하여 _ 119

제 5 장 섭리에 관하여 _ 130

제 6 장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_ 163

제 7 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_ 190

제 8 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_ 217

제 9 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_ 257

제 10 장 효과적인 소명에 관하여 _ 279

제 11 장 칭의에 관하여 _ 299

제 12 장 양자에 관하여 _ 325

제 13 장 성화에 관하여 _ 333

제 14 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_ 348

제 15 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_ 363
제 16 장 선행에 관하여 _ 389
제 17 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_ 419
제 18 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_ 434
제 19 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_ 454
제 20 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_ 484
제 21 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_ 505
제 22 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_ 542
제 23 장 공직자에 관하여 _ 569
제 24 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_ 586
제 25 장 교회에 관하여 _ 596
제 26 장 성도의 교재에 관하여 _ 619
제 27 장 성례에 관하여 _ 633
제 28 장 세례에 관하여 _ 652
제 29 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_ 678
제 30 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_ 709
제 31 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_ 725
제 32 장 사람의 사후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_ 744
제 33 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_ 759
제 34 장 성령에 관하여 _ 773
제 35 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_ 790

서론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요

서 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요

도입내용

성경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본 고백서는 성도의 신앙과 삶을 위한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제1장 성경을 기초로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의 은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사명, 그리고 최후 승리까지 구속사의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한 지도를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1. 신앙고백서 배경

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1647년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신조문과 여러 신앙고백서들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이 신앙고백서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고백서로 인정하고 사용할만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천국의 가르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다른 신앙고백서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나. 스코틀랜드교회는 1647년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가장 먼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신앙고백서가 되었습니다. 정작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했던 영국에서는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 결국 이 신앙고백서를 온 영국교회가 완전하게 채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장로교회는 1729년부터 가장 믿을만한 신앙고백서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침례교회의 신앙고백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오늘날에도 가장 신뢰할만한 신앙고백서이지만 사실 이 신앙고백서의 배경은 1640년대의 영국입니다. 그 당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꼈던 청교도 목회자들과 장로회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정착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해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2. 신앙고백서의 내용

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가장 근본된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마 16:15-16).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바로 그의 고백이 이 신앙고백서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 16:15]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 영지주의가 점점 기독교의 정통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신앙고백서도 정통 기독교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의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 이 신앙고백서는 모든 교회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며 신앙의 규범을 바로 정리해 줍니다. 모든 교회들이 공통된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어야 이단들을 막을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목회자에게는 올바른 목회를 제시하며 성도들에게는 참된 신앙자가 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함부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벧후1:20). 교단마다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기독교는

[벧후 1: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모든 기독교의 교단이 공통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 아무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내용이 특출하고 영적이다 할지라도 성경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최종 규범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보다 옳게 해석할 수 있게 인도하며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사적인 배경

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은 에드워드(Edward)왕에 의해 1065년 12월 28일에 봉헌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은 에드워드왕에게 회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릴 교회당을 건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킹제임스판 구약성경이 75% 정도 번역이 되었으며 신약성경의 뒷부분이 번역되었습니다.

나.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국교회의 신앙고백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

다. 1642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3년 후인 1646년 12월에 영국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영국 상원은 이듬해인 1647년 2월에 이 신앙고백서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앙고백서의 문장과 삽입된 성경구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당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크롬웰 장군은 국회 내에 있었던 장로교인들을 숙청하고 그들 자리에 회중교회 교도들로 대신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원의원 수가 100명이나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교회와 관련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국국교회는 감독주의교회 정치체제로 정착되고 말았습니다.

다. 그러나 스코틀랜드교회 대표자들이 그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1647년 8월 27일에 그들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기존의 신앙고백서가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03년에 이르러 미국장로교회(PCUSA)에서 34장 성령에 대한 내용과 35장 선교에 대한 내용을 첨가시켰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 제2장~제5장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제6장~제20장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제21장~제26장은 기독교 삶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며, 제27장~제33장은 교회,성례,심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한국장로교회

가. 한국장로교회는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당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때 인도장로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조문을 참조해서 만든 신앙고백문을 채택했는데 '조선예수교장로회 신조' 또는 '12신조'라고 불렸습니다.

나. 그 후 1925년 배위량 선교사가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국장로교회 교리 표준 신앙고백서로 삼았습니다. 완전하게 한국장로교회 신앙고백서로 채택된 것은 1971년 예장 통합교단 56회 총회 때였습니다. 1974년 제58회 총회(1971년)에서는 미국장로교회가 수정한 내용과 보충한 34장과 35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예장 고신교단에서는 1972년 제22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식 신조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예장 고신교단 역시 미국장로교회가 수정 보

충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역사적인 신앙고백서로 여기고 있지만 교단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1 장

/

성경에 대하여

제 1 장 성경에 대하여

도입내용

제1장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려 성경을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유일하고 무오한 법칙입니다. 모든 신앙적 논쟁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성경에 있으며, 성령의 조명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보다 앞서는 신앙의 절대 기준입니다.

제1항: 일반 계시의 한계와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

'본성의 빛과 창조사역 및 섭리에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권능이 잘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롬1:19, 20; 시19:1-3; 롬2:14, 15). 그렇지만,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전1:21; 고전2:13, 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자

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히1:1). 그리고 그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가 더욱 더 공고히 서고 더욱 더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진리를 온전하게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시었다(눅1:3, 4; 롬15:4; 마4:4, 7, 10; 사8:19, 20). 이로써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확립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계시하시던 그 방법들은 오늘날 중단되었다(히1:1, 2).'

1. 일반 계시의 명백함과 한계:

가.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책임: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과 창조 사역 및 섭리에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권능이 잘 나타나 있'도록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숨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이성, 도덕적인 양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탁월한 속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조물로서 그분께 복종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2) 이러한 명백한 계시 덕분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교리가 확립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20)라고 기록하며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어 그 양심이 증거가 되"(롬 2:15)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 일반 계시의 구속사적 불충분성:

(1)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신앙고백서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동시에 제

시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이성과 양심이 왜곡된 상태에서는, 만물의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즉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2) 구원 지식의 불충분성은 바울의 선언을 통해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며, 영적인 진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인식될 수 없습니다.

[고전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2. 특별 계시(성경)의 절대적 필요성:

가. 기록된 말씀 이전의 점진적 계시:

(1) 일반 계시의 불충분함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음성, 꿈, 환상, 언약 등을 통해 구속의 진리가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계시되었던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구속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2)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구약의 계시 방식을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히 1:1)라고 요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여 교회를 점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히 1: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 성경 기록의 목적과 계시의 종결: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가 더욱 더 공고히 서

고 더욱 더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진리를 온전하게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시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자 기록된 말씀의 목적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진리를 불변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전파하게 하며, '육신의 부패'와 끊임없는 '사탄과 세상의 악'의 유혹에 맞서 교회가 굳건히 서고, 성도들이 영적인 '위로를 받도록' 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무기이자 반석이 됩니다.

(2)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릇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힘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계시하시던 그 방법들은 오늘날 중단되었다'(히 1:1, 2)고 확증합니다. 이는 성경 외에 다른 새로운 계시를 기대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계시 종결의 교리를 분명히 세웁니다.

[롬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2항: 정경(正經)의 목록과 권위의 근거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오늘 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눅16:29, 31; 엡2:20; 계22:18, 19; 딤후3:16).'

1. 정경의 목록과 그 신적 기원:

가. 성경 목록과 하나님의 감동:

(1) 신앙고백서는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오늘 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목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책들이 사도적 기원과 신적인 권위를 가졌는지 분별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이 책들은 인간의 지혜나 판단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2)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기록되었으며, 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오류 없이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라고 선언하며, 성경의 신적 기원과 유익성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 성경의 유일한 권위:

(1) 이 정경에 속한 책들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고 선언됩니다. 이는 성경이 교리(믿음)와 윤리(행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뜻

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엡 2:20)여야 하며, 이 터는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 외에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철학도 이 권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마 22:29)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은 참된 지식과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눅 16:31)에 근거하며, 이 말씀은 "그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마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눅 16: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하시니라

2. 성경 권위의 절대성:

가. 권위의 근원과 수용:

(1)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나 역사적 전

통의 승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자증성(Self-attestation) 교리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증언할 뿐,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 2:13)고 증언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살전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나. 권위의 초월성과 영적 작용:

(1)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과 진리를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권위와 진리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이 불변성은 성경을 다른 모든 서적과 구별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

[마 24:3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이 됩니다.

(2)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 2:13)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믿는 자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전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제3항: 외경의 배제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正經)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도 없으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저서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거나 사용 될 것이 아니다(눅24:27, 44; 롬3:2; 벧후1:21).'

1. 외경의 비정경성(非正經性)과 권위 부재:

가. 하나님의 감동 부재:

(1) 신앙고백서는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正經)에 속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외경'(Apocrypha)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히브리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신약성경 기자들이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책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라는 성경의 기준에 미달합니다.

[벧후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 외경을 배제하는 것은, 성경이 오직 신적인 영감과 권위로만 이루어졌다는 성경의 유일성을 수호하기 위한 신학적 결단입니다. 이 책들은 교리적인 오류나 역사적인 불일치를 포함하고 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라는 정경의 절대적 권위와 동등하게 놓일 수 없습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 교회 내 권위와 활용 범위의 한계:

(1) 외경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도 없으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저서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거나 사용 될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외경이 구원과 신앙의 교리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종적인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단지 다른 경건한 '인간적인 저서들'과 동일한 정도의 가치만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성경 외의 다른 가르침에 교리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예수님께서도 구약성경 전체를 "모세의 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눅 24:44)고 언급하셨을 때, 유대 정경에 속하지 않았던 외경들은 포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외경이 구속사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지 못함을 입증합니다.

[눅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2. 외경 배제의 신학적 중요성:

가. 진리의 순수성 수호:

(1) 외경을 정경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경 충족성 교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외경에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한다면,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주어진 진리의 순수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외경에는 성경의 핵심 교리와 충돌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책들을 수용하는 것은 곧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라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오류를 말씀 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외경을 배제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수호하는 행위입니다.

[고전 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갈 1: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나. 성도들의 신앙적 경계:

(1) 성도들은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정경만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외경이나 교회 전통 등 성경 외의 다른 원천에서 교리적 확신을 구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우리는 "누가 너희를 꾀어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8)는 경고처럼, 성경 외의 다른 가르침을 따르려

[골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할 때 진리가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정경만이 그리스도를 좇는 참된 길을 제시합니다.

제4항: 성경 권위의 근원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벧후1:19, 21; 딤후3:16; 요일5:9; 살전2:13).'

1. 성경 권위의 유일한 근원:

가. 권위의 외적 의존성 부정:

(1) 신앙고백서는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고 단언합니다. 이 진술은 성경의 권위가 인간의 판단이나 전통적인 권위에 의해 세워지는 것

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하며 초월적임을 강조하는 성경의 자증성(Self-attestation) 교리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를 가집니다. 교회는 단지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15)로서 이 신적 권위를 세상에 증언할 뿐입니다.

[딤전 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2)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곧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살전 2:13)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 권위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진리 자체이시며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경외로운 자세여야 합니다. 이 초월적 근거야말로 성경을 다른 모든 종교적·인문학적 서적과 구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살전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나. 성경 권위 수용의 이유:

(1)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진술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인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의 근본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2)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라고 스스로의 권위를 선포합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요일 5:9)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인간의 어떤 증거보다 크고 확실한 것으로서, 성도의 믿음의 최종적인 근거가 됩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일 5: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찐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2.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의 불가분성(不可分性):

가. 권위의 초월성과 불변성:

(1) 성경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의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초월적인 속성이 성경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

나는 여호와라 변역지 아니하나니"(말 3:6)라고 선언하셨듯이, 그분의 말씀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판단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성경의 권위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확고합니다. 이 확고한 권위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말 3:6]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2) 이처럼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그 권위가 훼손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은 말씀으로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순종:

(1)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성도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니라,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2)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곧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5항: 외적 증거와 성령의 내적 확증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을 높이 평가하도록 감동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다(딤전3:15). 그리고 그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효험,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목표의 통일성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 외에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우월성 및 그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無誤)성과 그 신적 권위에 대

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달려 있다(요일2:20-27; 요16:13, 14; 고전2:10, 12; 사59:21).'

1. 성경의 외적 증거와 논증들:

가. 외적 요소와 교회의 인도:

(1) 신앙고백서는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을 높이 평가하도록 감동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다'고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이 초자연적인 권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처음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전통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접하고 존중하게 되는 인간적인 과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15)로서,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는 주체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도록 성도들을 '감동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 통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증거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딤전 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2) 성경 외적인 증거들은 성경의 신뢰도를 높이

는 데 기여합니다. 고백서는 '그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효험, 문체의 장엄성' 등 성경 자체의 탁월성을 논증으로 제시합니다. 성경을 접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책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깊이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교훈은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나 종교도 제시하지 못하는 고귀함을 담고 있습니다.

나. 성경 내적 요소의 완전성:

(1)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더욱 강력한 내적 논증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목표의 통일성'이 포함되는데, 수많은 저자와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일관된 구속사적 주제를 유지합니다. 또한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신적인 계시로서,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해 주는 논증들이다'라고 확증합니

다.

(2) 이러한 내적 증거는 성경이 "이 예언은 언제 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라는 자기 증언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증언이나 논증의 도움이 없어도, 그 자체가 진리요 빛으로서 스스로 참됨을 나타내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벧후 1:21] 예언은 언제 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 성령의 내적 확증과 그 절대성:

가. 내적 확신을 위한 성령의 사역의 절대성:

(1) 신앙고백서는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無誤)성과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 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며, 성령의 역할을 절대화합니다. 이는 외적인 증거가 아무리 강력해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구원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나 지적인 문서로만 남을 뿐입니다.

(2) 성령님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고전 2:10)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이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요 15:26)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내적 증거만이 성경이 그리스도께 대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온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 성령의 증거를 통한 구원의 확신:

(1) 성령의 '내적 사역'은 성도들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여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요일 2:27)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도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참된 신앙적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확신을 얻게 됩니다.

(2) 결국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논증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라는 신적 역사에 의존하며, 이 믿음을 통해 성도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요일 5:13)입니다. 성령의 내적 확증은 성경을 읽는 성도에게 "네 말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시 119:140)라고 고백하게 만들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하려 함이라

[시 119:140]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제6항: 성경의 충족성(온전함)과 해석의 원리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근거로 삼아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연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에 의하여 아무 것도 이 성경에 더할 수 없다(딤후3:15-17; 갈 1:8, 9; 살후2:2).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요6:45; 고전 2:9-12).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나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전14:26, 40; 11:13, 14).'

1. 성경의 완전한 충족성과 그 결과:

가. 성경 충족성의 범위와 필연적 연역: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근거로 삼아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연역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성경이 구원과 신앙, 생활을 위한 모든 지식을 완전히 담고 있다는 성경 충족성(Sufficiency of Scripture)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된 모든 교리적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경을 근거로 삼아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며, 건전한 신학적 논증의 기반이 됩니다.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딤후 3:17)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지혜를 얻습니다.

(2) 성경이 완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에 의하여 아무 것도 이 성경에 더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성경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완성된 계시인 성경에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적 전통, 또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덧붙이려는 모든 시도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라고 선언하며,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딤후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갈 1: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나. 성령의 새로운 계시와 전통의 배제:

(1)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곧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을 내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왜곡을 초래합니다.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기록된 말씀의 완전성과 축복을 선포합니다.

(2) '인간의 유전'을 말씀과 동등하게 두거나 우위에 놓는 모든 시도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6)라는 주님의 경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에 기초하며, 인간의 전통은 결코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만을 붙잡고,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 15: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2. 말씀 이해를 위한 성령의 역할과 적용의 원리:

가. 구원적 이해를 위한 성령의 조명:

(1)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만,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이 성경을 지적인 문서가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

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요 6:44)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2) 성령께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고전 2:10)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여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나. 예배와 질서에 관한 성경의 일반 원리:

(1)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은 예배와 교회의 행정(정치)에 관한 모든 세부 규칙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의 일반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일반법칙은 교회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는 명령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고전 14:4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하라

(2) 따라서 교회의 예배 형식이나 행정 조직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본성의 빛'이 제공하는 합리성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이라는 지혜로운 판단을 사용하여 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성경의 명시적인 금지나 명령이 없는 영역에서 교회가 유연성과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제7항: 성경 진리의 명료성(明瞭性)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 자체가 분명하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벧후3:16, 15).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나 믿어서 중생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합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시119:105, 130).'

1. 성경의 난해함과 구원 지식의 명료성:

가. 성경 진리의 난해한 측면 인정:

(1)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 자체가 분명하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배경, 예언적 상징, 구속사적 맥락 등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나니"(벧후 3:16)라고 언급함으로써, 성경의 일부 내용이 난해하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벧후 3: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나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2) 이러한 난해함은 때때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경건한 연구와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부 난해하다고 해서 그 전체의 명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벧후 3: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나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나. 구원에 필요한 진리의 명료성:

(1) 난해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명백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나 믿어서 중생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이 특정 지식인 계층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시편 기자는 이 명료성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라고 노래했습니다. 등불이 어두운 길을 밝히듯이,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환히 비추어 줍니다. 구원에 필수적인 진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진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2. 진리 이해의 보편성과 합당한 방법:

가. 진리 이해의 보편성:

(1) 성경의 구원 진리는 '교육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합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선언됩니다. 이는 성경이 특정 학문적 배경을 가진 소수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위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열림으로 우둔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시 119:130)라고 하신 것처럼, 단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 119:130]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2) 복음의 명료성은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선교의 기초가 됩니다. 만일 구원의 길이 너무 어려워 특정 계층만 접근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마 13:11)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인간의 배경이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마 13:11]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나. 진리 이해를 위한 합당한 방법:

(1) 그러나 '합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이라는 조

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진리가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노력과 겸손한 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합당한 방법에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성경에 대한 부지런한 연구,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한 상호 해석(성경은 성경으로 해석),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경청 등이 포함됩니다.

(2)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고 가르치듯이, 구원 지식의 명료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요 5:39)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제8항: 성경 원어의 권위와 번역의 필요성

'옛날 하나님 백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신약이 기록될 때까지 많은 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헬라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배려

와 섭리에 의해 만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마5:18).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의 모든 논쟁에서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된다(사8:20; 행15:15; 요5:39, 46). 그렇지만 이들 원어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5:39),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전수되는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고전14:6, 9, 11, 12, 24, 27, 28)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만백성 중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저들도 합당한 방법으로(골3:16)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으며 인내와 성령의 위안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롬15:4).'

1. 성경 원어의 권위와 순수성:

가. 원어 성경의 신적 영감과 보존:

(1) 신앙고백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에 의해 만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본래의 언어(원어)로 기록되었을 때 '직접 영감을 받았

으므로' 오류가 없으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그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음을 확증합니다. 이 원어 성경의 순수하고 무오한 상태는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확신을 줍니다.

(2)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고 말씀하심으로써, 성경 말씀의 불변성과 완벽한 보존을 보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어 성경은 모든 번역본의 권위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며, 교회가 진리를 확신하는 데 있어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 신앙 논쟁의 최종 호소처:

(1)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의 모든 논쟁에서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된다'고 선언됩니다. 이 원어 성경,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된 본문만이 교회의 모든 신학적, 교리적 논쟁의 최종적인 심판자(Supreme Judge)가 됩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칙령, 인간의 이성, 혹은 새로운 계시 주장 등은 성경 위에 설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신구약 성

경에 호소'하여 그 권위 아래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2) 사도행전의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행 17:11)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율법이나 증거의 말씀"(사 8:20) 외의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 진리를 찾고 확증해야 합니다.

[행 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 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찌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2. 성경 번역의 필요성과 그 유익:

가. 모든 백성의 성경 읽을 권리:

(1) 신앙고백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들 원어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읽고 탐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요 5:39)라고 말씀하셨듯이, 성경 연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2) 따라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전수되는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성경을 특정 계층(성직자나 학자)에게만 제한하려는 시도를 배격하고,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인 만인 제사장직과 성경의 명료성 교리를 실천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 번역을 통한 신앙적 유익:

(1) 성경의 번역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만백성 중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저들도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으며' 라고 고백됩니다.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골 3:16)는 공동체적 신앙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2) 최종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성도들은 '인내와 성령의 위안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읽음으로써, 성도들은 "무릇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는 말씀처럼, 위로와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롬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제9항: 성경 해석의 기준

'성경 해석의 정확무오(正確無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벧후1:20, 21; 행 15:15).'

1. 성경 해석의 유일한 법칙:

가. 해석의 법칙으로서의 성경:

(1) 신앙고백서는 '성경 해석의 정확무오(正確無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라고 선언하며,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해석자가 외부의 기준(예: 철학, 과학, 인간의 이성, 교회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해

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통일된 진리이므로, 그 어떤 부분도 모순되지 않으며 스스로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성경의 자명성(Self-interpreting)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벧후 1:20)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성경 해석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라는 근거를 가집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고 '정확무오한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벧후 1: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벧후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나. 어려운 구절에 대한 해석 방법:

(1) 이 원칙에 따라, '성경의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유비적 해석(Analogy of

Scripture) 또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려운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의 내용이 주제적으로 명료하게 설명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 연결함으로써, 모호함을 제거하고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일관된 맥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2) 사도들 역시 교리적 문제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개종자 문제를 논의할 때,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함이로다 기록된 바"(행 15:15)라며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행 15: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바

2. 해석 원칙의 신학적 중요성:

가. 교리의 통일성 유지:

(1)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한다는 원칙은 기독교 교리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외부 기준을 해석의

법칙으로 삼거나, 각 성구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허용한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사적 진리는 혼란에 빠지고 모순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하나 밖에 없으므로' 오직 성경 전체의 조화와 일관성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2) 이 원칙을 고수할 때 성도는 "오직 너희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벧전 1:15)는 명령을 따라, 이단이나 오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된 증언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벧전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자가 되라

나. 최종 심판자로서의 성경:

(1)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법칙이 '성경 그 자체'라는 것은, 교회 안팎의 모든 논쟁과 신앙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가 바로 성경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적 견해나 교회적 결정도 이 법칙 위에 놓일 수 없습니다.

(2)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찌

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너희 유전을 삼아 폐하느뇨"(마 15:3)라고 책망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통이나 해석보다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하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골 3:16)도록 함으로써,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 15:3]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10항: 신앙 논쟁의 최종 심판자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누구도 아니다. 따라서 신앙에 관한 모든 논란은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고 제반 회의의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주장들, 사람들의 교리나 사람 개인의 생각들을 검토할 때에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마 22:29, 31; 엡2:20; 행28:25).'

1. 신앙 논쟁의 최종 심판자:

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1) 신앙고백서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누구도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이 진술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오직 성경 말씀에 내재하며,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확정합니다. 이는 인간의 교황이나 공의회, 혹은 교회의 전통이 성경 위에 설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입니다.

(2)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마 22:29, 31)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그 말씀만이 모든 오해와 논란을 잠재우는 최고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마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마 22:31]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찐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 모든 판단의 유일한 기준:

(1) '따라서 신앙에 관한 모든 논란은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리적이든 윤리적이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만이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며, 그 성경의 권위에 호소함으로써만이 진정한 일치와 화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엡 2:20)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교회의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바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여 들으라"(행 28:25)고 설교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결정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판단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행 28: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 인간의 권위 검토와 복종의 의무:

가. 인간적 권위의 검토 기준:

(1) 이 최고의 심판자에게는 인간적인 권위들까지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제반 회의의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주장들, 사람들의 교리나 사람 개인의 생각들을 검토할 때에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회 공의회의 결정이나 존경받는 교부(敎父, Fathers)들의 신학적 견해도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성경의 빛 아래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2) 인간의 '교리나 사람 개인의 생각들'은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만 권위를 가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거부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부들의 지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주장이 성경 자체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최종 판결에 대한 전적 복종:

(1) 성도는 '그의 판결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닙니다. 이 '전적 복종'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에 어떠하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이는 참된 믿음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2) 이 복종은 우리를 죄와 오류로부터 보호합니

다. "너희가 주의 말씀으로 심령에 순종함으로"(벧전 1:22)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참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판결은 오류가 없으므로, 여기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벧전 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 장

/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제 2 장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이 충만하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한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실체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께만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1항: 하나님의 속성과 유일성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신6:4; 고전8:4, 6; 살전1:9).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욥11:7-9; 26:14) 완전하시고(마5:48)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요4:24),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딤전1:17), 육신이나 지체나 성정(性情)이 없으시다(신4:15, 16; 눅24:39). 하나님은 불변하시고(약1:17; 말3:6), 무한하시고(왕상8:27;

렘23:23, 24), 영원하시고(시90:2; 딤전1:17), 인간이 측량할 수 없으며(시145:3), 전능하시고(창17:1; 계4:8), 지극히 지혜로우시고(롬16:27), 지극히 거룩하시고(사6:3; 계4:8), 지극히 자유로우시고(시115:3; 사45:7; 단4:25, 35) 지극히 절대적이시다(출3:14).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며(잠16:4; 롬11:36),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요일4:8, 16),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출34:6, 7),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출34:7; 엡1:7),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히11:6). 그러나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시며(느9:32, 33), 모든 죄를 미워하시므로(시5:5, 6), 죄 있는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나1:2, 3; 출34:7).'

1.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과 영적 속성:

가.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

(1) 신앙고백서는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고 고백하며,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핵심 신앙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인 여호와시니"(신 6:4)라는 쉐마의 정신을 따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우상 및 다른 신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유일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2)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육신이나 지체나 성정(性情)이 없으시다'고 선언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물질적인 속성, 즉 육체나 제한된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외적인 행위나 의식이 아닌 영적인 진실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나. 하나님의 불변성과 주권적 속성:

(1)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며 변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으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등

의 속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불변하시고'(약 1:17) '영원하시고'(시 90:2) 등의 속성은 그분의 구속 계획과 약속이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것이 곧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2)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다'라고 고백됩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뜻이 외부의 어떤 제약이나 필요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주권을 확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나니 천하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그러하시도다"(시 135:6)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모든 행위는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약 1:17]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 90: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 135:6]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2.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과 구속 사역의 목적:

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며' 동시에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

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등의 도덕적 속성을 가지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바로 이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본질에서 나옵니다.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행위는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라는 말씀처럼, 이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2)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구속사적으로 죄인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나. 하나님의 공의와 엄격한 심판:

(1)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은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목전에 거만한 자가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시 5:5)라는 말씀처럼,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시 5: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2) 이 공의로 인해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합니다. 이 엄격한 심판의 선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속 사역은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축을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5, 26)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조화시킨 것입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제2항: 하나님의 자존성(自存性)과 주권적 통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요5:26), 영광과(행7:2) 선하심과(시119:68) 복되심을(딤전6:15; 롬9:5) 스스로 가지고 계시므로,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자족하신다. 그 지으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행17:24, 25) 피조물에게서 영광도 찾지도 아니하시고(욥22:2, 3) 오직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로 인해서,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롬11:36).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되,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계4:11; 딤전6:15; 단4:25, 35). 하나님의 목전에는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히4:13),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함이 없으시다(시147:5). 그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행15:18; 겔11:5) 아무 것도 없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 지극히 거룩하시다(시145:17; 롬7:12).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그가 기뻐 요구하시는 모

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계5:12-14).'

1. 하나님의 자존성(Aseity)과 피조물을 향한 관계:

가. 자족성(自足性)과 생명의 근원: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므로,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자족하신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자존성과 자족성 교리를 확립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지 않으시며, 그분의 모든 속성은 그분 안에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자족'하시는 하나님만이 "내게는 영생이 있으므로 내 안에 영생을 주노라"(요 5:26)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 하나님의 자족성은 곧 '그 지으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피조물에게서 영광도 찾지도 아니하시고'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행 17:24, 25)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로 인해서,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입니다.

[행 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행 17: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나. 만물의 근원과 귀결:

(1)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존재론적 우위를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의 기원(그에게서 나오고), 유지(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최종 목적(그에게로 돌아간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2) 로마서의 위대한 송영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 이는 창조와 섭리, 구속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통일된 계획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찌어다 아멘

2.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무한한 지식:

가. 절대적 주권과 완전한 통치:

(1)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되,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은 제한이 없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하늘에 계신 자든지 땅에 계신 자든지 내가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나니"(단 4:35)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주권적인 통치는 만물이 무질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단 4:35]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2) 이는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마땅히 그 기뻐하는 대로 하리라"(마 20:15)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피조물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왕 같은' 통치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만물은 "오직 주께서 만드신 대로 만물은 존재하고 창조되었나이다"(계 4:11)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존재합니다.

[마 20: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계 4: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 무한하고 무오한 지식:

(1) '하나님의 목전에는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을 설명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는 말씀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오류가 없으며(무오), 인간의 지식처럼 외부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히 4: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2) '그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 있음을 확증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곧 영원부터 자기의 모든 행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함과 같으니라"(행 15:18)고 고백했듯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공의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시 145:17).

[행 15: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 145: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3. 피조물의 합당한 반응:

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예배와 순종:

(1) 신앙고백서는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를 선언합니다.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그가 기뻐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자존자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는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합니다.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2)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존재들이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라고 외치며 예배하는 모습은,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마땅히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장면입니다.

[계 5: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제3항: 성 삼위일체

'단일한 신격(神格) 안에 본체(本體)와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세 격위(格位)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요일5:7; 마3:16, 17, 28:19; 고후13:13).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출생하시거나 유출된 분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바 되셨으며(요1:14, 18).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요15:26; 갈4:6).'

1. 삼위일체의 구별된 위격과 동일한 본체:

가. 단일한 신격 안의 세 위격:

(1) 신앙고백서는 '단일한 신격(神格) 안에 본체(本體)와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세 격위(格位)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하며,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하고 독특한 교리인 삼위일체(Trinity)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라는 사도적 축복처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세 위격이 동시에 계시되지만, 그 본질(본체)은 하나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세 분이 계시지만 '본체와 능력과 영원

[고후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찌어다

성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는 명령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 위격은 구별되지만, 그 신성(神性)은 분리되지 않으며, 한 분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 위격 간의 영원한 관계:

(1) 이 세 위격은 영원 전부터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출생하시거나 유출된 분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바 되셨으며',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고 정의합니다. 성부의 비출생성(unbegottenness), 성자의 영원한 출생(eternal generation), 그리고 성령의 영원한 발출(eternal procession)은 삼위일체 내에서의 질서와 관계를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성자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라고 선언된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2)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는 진리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되시며, 이 위격 간의 독특하고 영원한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함을 이룹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 삼위일체의 구속 사역 적용:

가. 구속 사역의 분담과 협력:

(1) 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완벽하게 협력하십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며, 성령은 구속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엡 1:4)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갈 4:4)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2) 성령께서는 이 구속 사역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적용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의 사역에 참여하십니다.

[갈 4:6]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고백과 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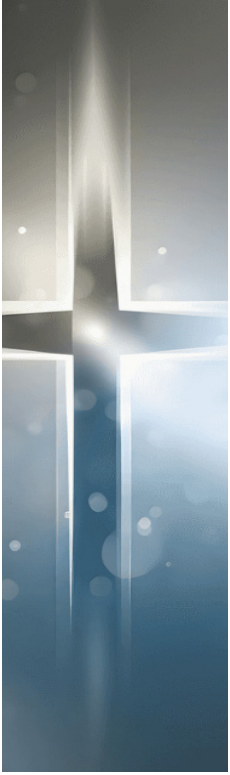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1)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 28:19) 세례를 받음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구속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성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성자의 완전한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됩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지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

1:15)는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며, 이 신비로운 교리 안에서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벧전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3 장

/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하여

제 3 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하여

도입내용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불변하게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나타내는 질서입니다.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멸망으로 예정되었으나, 이 신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제1항: 하나님의 작정의 본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엡1:11; 롬11:33; 히6:17; 롬9:15, 18).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사람들의 의지를 억제하심도 없으며, 자연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파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립시키신다(약1:13, 17; 요19:11; 행2:23). 이같이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제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지 하시는 장래일이나 예지하시는 지식을 따라 미래의 것을 작정(作定)하신 것은 아니다(롬9:11, 13, 16, 18).'

1. 작정의 시기, 주체, 그리고 속성:

가. 영원 전 작정과 그 주체: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작정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즉 창세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과 역사 전체가 우연이나 임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 아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지혜를 찬양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라고 고백합니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것이로다

(2) 작정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며, 이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엡 1:4)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사는 영원히 '변함이 없게 제정'된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히 6:17)라고 선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히 6: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나. 작정의 자유성과 피조물의 관계:

(1)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사람들의 의지를 억제하심도 없으며, 자연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파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립시키신다'고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며, 피조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오히려 유지하고 보존시킨다는 섭리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죄의 책임은 언제나 죄를 행한 피조물에게만 있으며,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

니라"(약 1:13)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악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신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행 2:23)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극악한 죄악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 있었으면서도, 그 행위를 실행한 인간들의 의지와 죄책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증합니다.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행 2: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豫知):

가. 예지에 의존하지 않는 작정:

(1) '이같이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제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지 하시는 장래일이나 예지 하시는 지식을 따라 미래의 것을 작정(作定)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신앙고백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예지(豫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작정의 근거가 예지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라는 외부적 요인

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작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나옵니다.

(2)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롬 9:11).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롬 9:16)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 작정과 예지의 관계 설정:

(1) 하나님의 작정은 예지의 원인이며, 예지는 작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은 '예지하시는 장래일'을 포함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작정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신 것을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다 함과 같으니라"(행 15:14-18)고 하며, 이방인의 구원도 "예로부터 그의 모든 행하심을 아는"(행 15:18)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그분의 작정은 완벽하고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행 15: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행 15: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바
[행 15: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행 15: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행 15: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2항: 작정의 절대적 지혜와 자유로운 주권

'이 작정은 불변적이고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으며(엡1:1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적용되는 은혜의 조건들을 들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상태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롬9:11, 13, 15, 16, 18).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므로 이 작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혹하지도 않으며,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딤전1:17;

롬11:33; 히4:13), 인간은 죄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마22:14; 마25:41).'

1. 작정의 근원과 절대적 주권:

가. 작정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뜻: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작정(Decree)이 '불변적이고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으며'라고 선언합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일에 대해 결정하신 영원한 계획으로서,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조건에 의해 변경되거나 좌우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엡 1:11)라고 말씀하며, 모든 일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엡 1: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2) 이 작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적용되는 은혜의 조건들을 들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을 시행하실 때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초

청하는 등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이 작정은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힘의 행사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사랑의 계획입니다.

나.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작정: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상태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미래 행위를 미리 보시고(예지, Foreknowledge)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만일 인간의 미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돌아가게 됩니다.

(2) 사도 바울은 이를 야곱과 에서의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롬 9:11)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선택의 근거는 전적으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롬 9:16)에 있습니다.

[롬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말미암음이니라

2. 작정의 도덕성과 인간의 책임:

가. 작정의 공의와 거룩함:

(1)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므로 이 작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혹하지도 않으며,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정론에 대한 흔한 오해, 즉 하나님이 인간을 무자비하게 운명지으신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로우시고'(롬 11:33)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딤전 1:17) 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작정 자체는 선하며 완전합니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것이로다

[딤전 1:17]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찌어다아멘

(2)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

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약 1:13)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시며, 오직 선하고 완전한 것을 작정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 인간의 책임과 죄의 문제:

(1) 작정 교리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인간은 죄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의 발생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죄를 범할 때, 그 행위는 자발적인 자유 의지의 선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오직 죄를 지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2)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은 그들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

[마 22: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 불"(마 25:41) 속에서 스스로의 책임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제3항: 예정(豫定)의 이중성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딤전5:21; 마25:41), 다른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선정(選定)하셨다(롬9:22, 23; 엡1:5, 6; 잠16:4).'

1. 예정 교리의 목적과 범위:

가. 예정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

(1) 신앙고백서는 예정(Predestination)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유익이나 공로에 앞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이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와 심판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2)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진노의 그릇들을 만드신 목적을 "영광 받을 만한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롬 9:23)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는 구원의 능력을,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는 공의의 엄중함을 드러내시며, 모든 상황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롬 9: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찌라도 무슨말을하리요

나. 예정의 이중적 범위: 사람과 천사:

(1) 예정의 범위는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었고'라고 고백되어,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에게도 미칩니다.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택함 받은 천사(딤전 5:21)가 있는가 하면,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진' 타락한 천사(악마들)도 있습니다(마 25:41).

[딤전 5: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2) 인간의 예정과 마찬가지로, 천사에 대한 예정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에 미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2. 예정의 이중적 측면: 선택과 유기:

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선택(Election):

(1)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었고'라는 고백은 선택(Election) 교리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오직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미래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엡 1:5) 이루어졌습니다.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 선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종적인 복에 이르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의 진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실성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를 제공하며,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칭찬과 경외'를 돌리게 합니다.

나. 영원한 사망을 향한 유기(Reprobation):

(1)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

르도록 미리 정해졌다(유기)'는 고백은 유기(Reprobation) 교리를 나타냅니다. 유기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시기로 결정하셨으며, 그 결과 그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유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2) 그러나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버려두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유기된 자들을 "진노 받기로 준비된 그릇"(롬 9:22)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롬 9:22]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3. 교리의 적용과 신학적 균형:

가. 예정의 신비와 겸손:

(1) 예정의 이중성 교리는 인간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교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

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라는 말씀처럼,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것이로다

(2) 우리는 성경이 계시한 범위를 넘어서 예정의 세부 사항을 파고들거나, 자신의 구원 여부를 작정 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제4항: 선택된 자들의 불변성과 확정된 숫자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들의 숫자도 확실하고 분명하기에 증감이 될 수없다(딤후 2:19; 요13:18, 6:37-39, 10:14-16, 27-29).'

1. 예정의 속성: 개별성과 불변성:

가. 개별적이고 불변적인 계획:

(1) 신앙고백서는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

되어 있으며'라고 선언하며, 예정이 가지는 두 가지 핵심 속성을 명확히 합니다. '개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집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으로 아시고 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개별성은 예정 교리의 개인적인 확실성을 부여합니다.

(2) '불변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완벽하기 때문에, 한번 택하신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9)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의 안전성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작정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 하나님의 확실한 기초:

(1)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딤후 2:19)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견고한 터'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딤후 2: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예정입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진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연약한 의지나 상황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식과 능력에 의해 보존됩니다.

(2) 이 불변성은 또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요 6:70)고 하셨고, "내가 내 제자들을 말함이 아니니 곧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로 더불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말씀이니라"(요 13:18)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심지어 유다의 배반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확정적인지를 드러냅니다.

[요 6: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 13: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알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것이니라

2. 선택된 자들의 확정된 숫자:

가. 증감이 불가능한 숫자:

(1) 신앙고백서는 '이들의 숫자도 확실하고 분명하기에 증감이 될 수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숫자는 영원 전부터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한 명도 더해지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확실한 구원'이라는 교리적 확신을 성도들에게 줍니다.

(2) 예수님께서 친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7-28)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며, 그들의 숫자가 결코 줄어들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요 10:27-2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나. 성도의 위로와 적용:

(1) 이 교리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에 '증감이 될 수없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구원에 추가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2) 또한 이 교리는 복음 전도와 선교 활동의 확실한 동기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은 반드시 돌

아올 것이며(요 6:37), 그 확정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교 활동의 성공을 보장하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제5항: 선택(Election)의 주권적인 근거와 목적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창세(創世) 전에, 자신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목적과, 오묘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 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었다(엡1:4, 9, 11; 롬8:30; 딤후1:9; 살전5:9). 이렇게 선택하실 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나 조건으로 저들에게 있을 장래의 믿음이나 선행, 오래 참는 일, 혹은 그 외의 다른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롬9:11, 13, 16; 엡1:4, 9), 자신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엡1:6, 12).'

1. 선택의 영원성, 주권성, 목적:

가. 창세 전의 영원한 선택:

(1) 신앙고백서는 선택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창세(創世) 전에' 이루어진 영원한 작정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속 계획이 피조 세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목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엡 1:4)라고 선언하며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이 영원성은 선택의 불변성을 보증합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2) 이 선택은 '자신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목적과, 오묘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선택이 어떤 외부의 강요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라는 말씀처럼,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 선택의 통로: 그리스도 안에서:

(1)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었'다고 고백함으로써, 선택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명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선택의 근거(공로)는 아니시지만, 선택이 시행되고 성취되는 통로이자 머리가 되십니다. 선택은 항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선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하심이라

2. 선택의 근거 배제와 은혜의 확증:

가. 인간의 행위 및 예지 배제:

(1) 신앙고백서는 선택이 무엇을 근거로 하지 않는지를 매우 강력하게 배제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나 조건으로 저들에게 있을 장래의 믿음이나

선행, 오래 참는 일, 혹은 그 외의 다른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선택이 인간의 어떤 미덕, 능력, 또는 조건을 미리 내다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입니다.

(2) '장래의 믿음이나 선행'이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롬 9:11)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구원의 모든 영광이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닌, 오직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나. 선택의 유일한 근거와 최종 목적:

(1)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자신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셨으니'에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인간의 노력과는 완전히 무관한 무조건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임을 확증합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야말로 선택 교

리의 가장 감격스러운 본질입니다.

(2) 이 선택의 최종 목적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명시됩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6)는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엡 1: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하려는것이라

제6항: 선택의 수단(방편)과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처럼,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방편들도 예정하시었다(벧전1:2; 엡1:4, 5, 2:10; 살후2:13).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살전5:9, 10; 딛2:14), 때가 되어 역사(役事)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 됨을 얻고, 성화(聖化)가

되고(롬8:30, 엡1:5; 살후2:13)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벧전 1:5).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요17:9; 롬8:47; 요6:64, 65, 8:47, 10:26; 요일2:19).'

1. 구원의 방편(수단)에 대한 예정:

가. 목표와 수단 모두 예정됨: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처럼,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방편들도 예정하시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방편)까지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편에는 복음 전파, 성령의 부르심, 믿음, 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2) 이는 구원이 운명론적인 수동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엡 1:4)라는 말씀처럼, 목적을 예정하시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0)라는 말씀처럼, 그 선한 일(구원의 방편)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한 작정:

(1) 구원의 방편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실제로 적용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원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살후 2:13]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2)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로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음이니라"(살전 5:9, 10)라는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의 핵심입니다.

[살전 5: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살전 5: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2. 구원 서정(Ordo Salutis)의 필연적 성취:

가. 효과적인 부르심과 구원 서정:

(1)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의 방편이 적용되는 순서는 '때가 되어 역사(役事)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 됨을 얻고, 성화(聖化)가 되고'로 이어집니다. 이는 구원의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구원 서정(Order of Salvation)을 보여줍니다.

(2) 여기서 핵심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은 선택된 자들의 마음을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로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는 말씀처럼, 선택된 자들이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도록 보증합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 종말론적 보존과 구원:

(1) 구원 서정의 최종 단계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

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벧전 1:5)라는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최종 구원까지 안전하게 보존됨을 의미합니다(성도의 견인).

[벧전 1:5]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2) 구원 서정의 모든 단계(예정, 소명,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최종적인 영광(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3. 택함 받지 못한 자와의 차이:

가. 은혜의 적용에서 제외:

(1) 신앙고백서는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役事)하시는'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요 6:64)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스스로의 완고함과 죄

[요 6: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로 인해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2)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차별적인 적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위함이요 비옵는 것은 세상"(요 17:9)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중보 기도 역시 선택된 자들에게만 집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곧 스스로의 불순종과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요 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7항: 유기(遺棄)의 성격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으니,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마11:25, 26; 롬9:17, 18, 21, 22; 딤후2:19, 20; 유1:4; 벧전2:8).'

1. 유기(遺棄)의 본질과 결과:

가.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작정: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라고 선언하며, 유기(Reprobation) 작정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유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죄를 주입하거나 멸망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짓는 죄와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은혜(효과적인 부르심)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영원 전에 결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2) 유기된 자들은 그 결과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으니', 그들의 최종적인 정죄의 근거는 항상 스스로 지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그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정하신 것"(벧전 2:8)이라고 말했습니다.

[벧전 2:8]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나. 공의의 영광에 대한 칭송:

(1) 유기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에 있습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Justice)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유기된 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2) 하나님은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롬 9:22)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다가,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더욱 찬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롬 9:22]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 유기의 근거와 하나님의 주권:

가.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

(1) 유기의 근거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

로 하신 것인데'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은혜를 보류할 것인지는 오직 그분의 자유로운 뜻(Sovereign Will)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마 11:25, 26)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 유기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나 공로와는 무관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마 11: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 11: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나. 주권적 능력의 영광:

(1) 유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아서,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롬 9:21)라는 말씀처럼,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십니다.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출 9:16)를 들어 심판하시고, 그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듯이(롬 9:17),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도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택함 받은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합니다.

[출 9:16] 네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제8항: 예정 교리를 다루는 태도와 그 유익

'지극히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롬9:20, 11:33; 신29:29).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실과 자신이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케 할 것이다(벧후1:10; 엡1:6; 롬11:33). 그렇게 되면 이 교리로 인하여 신실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공경하게 되고 또 겸손, 근면 및 풍성한 위안을 받게 된다(롬11:5, 6, 20; 벧후1:10; 롬8:33; 눅10:20).'

1. 예정 교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가. 신중함과 조심성:

(1) 신앙고백서는 '지극히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깊은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함부로 추측하거나 논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신 29:29)라고 말함으로써, 성경에 계시된 것 이상의 신비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신 29:29]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2) 이 신중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정의 참된 유익이 주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정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하고 순종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긍정적인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나. 확신의 근거: 효과적인 부르심:

(1) 예정 교리는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실과 자신이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케 할 것이다'라는 실질적인 유익을 제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자체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성화되는 구원의 열매를 통해 자신이 택함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벧후 1:10)고 권면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행위, 즉 믿음의 순종과 근면한 삶이 곧 영원한 선택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2. 예정 교리의 영적 유익:

가. 찬양, 경외, 공경:

(1) 예정 교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공경하게 되고' 하는 영광 돌림의 재료가 됩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깨달을 때, 인간의 교만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

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심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게 됩니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것이로다

(2) 이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성도들이 세상의 어떠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의지하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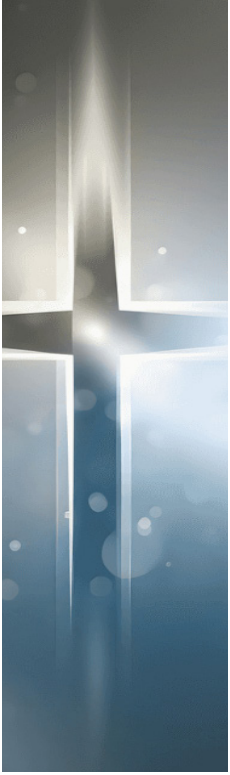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나. 겸손, 근면, 풍성한 위안:

(1) 예정 교리는 또한 실천적인 유익을 가져옵니다. '겸손, 근면 및 풍성한 위안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이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구원이 확실함을 알기에, 방종하지 않고 오히려 '근면'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2) 가장 큰 유익은 '풍성한 위안'입니다. 구원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성도는 "이 일 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는 확신을 붙

[행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잡고 위안을 얻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장

/

창조에 관하여

제 4 장 창조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4장 창조에 관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아 피조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렸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온 우주에 드러난 장엄한 사건입니다.

제1항: 창조의 주체와 방법, 그리고 시간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히1:2; 요1:2, 3; 창1:2; 욥26:13, 33:4)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롬1:20; 렘10:12; 시104:24, 33:5, 6)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에 무(無)로부터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었다(창 1; 히11:3; 골

1:16; 행17:24).'

1. 창조의 주체, 목적, 그리고 시간:

가. 창조의 주체와 목적:

(1) 신앙고백서는 창조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명확히 밝히며, 그 목적은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였다고 선언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창조를 통해 피조물과 구별되는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롬 1:20)라고 증언하며,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2)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그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렘 10:12)라고 기록하여,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렘 10:12]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나. 창조의 방법과 범위:

(1)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물을, 엿새 동안에 무(無)로부터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방법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무(無)로부터 창조(Creatio ex nihilo)'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존 물질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명령과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세상과 만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창조주이심을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고 증언합니다.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것이 아니니라

(2) 창조의 범위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구와 우주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영적인 실재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며 "만

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골 1:16)라고 명시합니다. 이 모든 만물은 '엿새 동안에'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2. 창조의 완성도와 인간의 책임:

가. 창조 세계의 완전성: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창조 직후의 세계는 물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완전무결한 상태였습니다. 악이나 죄는 창조 세계의 본래적 속성이 아니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일의 사역 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최종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창조 세계의 완전성을 확증합니다.

[창 1: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 이 완전한 창조는 "천지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신"(행 17:24)이신 하나님이

[행 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선함은 곧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창조 세계를 선하게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나. 창조 교리의 중요성:

(1) 창조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합니다.

(2) 이 교리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Providence) 교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듯이, 그분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보존하고 통치하시며, 그 모든 역사를 자신의 영원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2항: 인간의 창조와 본래적 상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창1:27)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고(창2:7; 전12:7; 눅23:43; 마10:28) 자신의 형상을 따라(창1:26; 골3:10; 엡4:24)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갖도록 하시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롬2:14, 15), 그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하시었다(전7:29).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시도록 하시었으며 이러한 의지의 자유성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창3:6; 전7:29). 그들은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저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관계를 누렸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창2:17, 3:8-11, 23, 1:26, 28).'

1. 인간 창조의 독특성과 하나님의 형상

가.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 창조:

(1)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창 1:27)하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는 말씀처럼, 인간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영속하는 영적인 실재를 소유한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2)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창 1:26)' 창조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외형적인 닮음이 아니라 영적인 속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골 3:10, 엡 4:24)'을 갖추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합당한 도덕적 성품을 가진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나. 마음에 기록된 율법과 능력: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롬 2:14, 15)'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알 수 있는 도덕적 직관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율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전 7:29)'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도덕적 역량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골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롬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2.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시련

가. 자유의지와 가변적 상태:

(1) 인간은 로봇처럼 강제된 순종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나, 이 의지의 자유성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나, 동시에 '범죄의 가능성(창 3:6)' 아래 있는 가변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2)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전 7:29)"고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스스로 선택한 결과임을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합니다.

나. 특별한 명령과 통치권:

(1) 마음속에 기록된 일반적인 율법 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전 7: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 7: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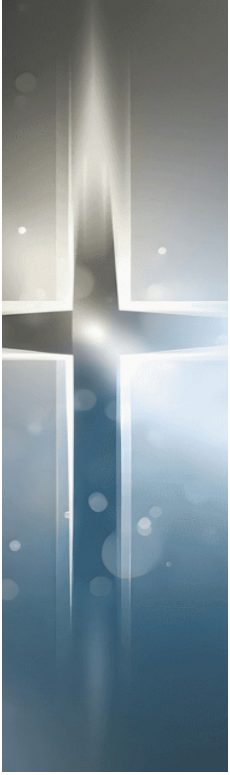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라(창 2:17)'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행위언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인간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창 1:26, 28)'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유지될 때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도 정당성을 가졌으며, 만물은 인간의 다스림 아래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복된 관계와 다스림의 질서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창 3:8-11, 23).

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3: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 3:11]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창 3: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5 장

/

섭리에 관하여

제 5 장 섭리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5장 섭리에 관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게 보존하며 다스리십니다. 가장 작은 사건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악이 존재하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한 목적을 위해 제한하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 방식입니다.

제1항: 섭리의 정의, 범위 및 목적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무오하신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엡1:11; 시33:10-11), 또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공의,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사63:14; 엡3:10; 롬9:17; 창45:7; 시145:7) 자신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섭리(잠15:3; 시104:24, 145:17)로 가장 큰 것에서부

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마10:29-31)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 생각, 기타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히1:3)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단4:34, 35; 시135:6; 행17:25, 26, 28; 욥39, 41).'

1. 섭리(Providence)의 근원과 목적:

가. 섭리의 근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무오하신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정의합니다. 섭리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에 수립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작정(Decree)을 시간 속에서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오하신 예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음을 보장하며, '불변하시는 뜻'은 섭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음을 확증합니다.

(2) "그의 뜻의 계획대로 일하는 자의 예정"(엡1:11)이라는 말씀처럼,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단순히 피조물을 창조한 후 자연법칙에 맡겨두는 것

[엡 1: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적극적인 통치 행위입니다.

나. 섭리의 목적: 하나님의 속성 찬송:

(1)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공의,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자신의 완전한 속성들을 피조물들에게 계시하고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죄인에 대한 구원은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인에 대한 심판은 '공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2)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창 45:7)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시 145:7)는, 인간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작용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지혜'를 찬송케 합니다.

[창 45: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시 145:7]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2. 섭리의 범위와 방식:

가. 섭리의 포괄적 범위:

(1) 하나님의 섭리는 그 범위에 있어서 무한합니

다.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 생각, 기타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적인 사건(역사의 흐름, 왕국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 10:29)는 말씀처럼, 가장 작은 새의 생명까지도 포함합니다.

[마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2) 이처럼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 생각'에까지 미치며, 인간의 내면적인 생각과 의지적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로써 섭리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全知)와 편재(遍在) 속성을 실제로 구현합니다.

나. 섭리의 적극적 방식:

(1)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만물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고 설명됩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섭리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보호'는 피조물을 유지하시는 것이고, '지도'는 정해진 목적

을 향해 이끌어가시는 것이며, '처리'는 사건들을 준비하고 배열하시는 것이고, '다스리신다'는 최종적인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2)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 1:3)라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섭리적인 유지(Sustentation) 사역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뜻대로 행하시나니"(단 4:35)라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단 4:35]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제2항: 제일원인과 제이원인의 관계

'제일원인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사가 변동없이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제이원인의 특성에 따라서 만사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행2:23; 창8:22; 렘31:35; 출21:13; 신19:5; 왕상22:28, 34; 사10:6, 7).'

1.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그 결과:

가. 하나님의 작정의 절대적 정확무오성:

(1) 신앙고백서는 '제일원인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사가 변동없이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진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근원, 즉 '제일원인(First Cause)'이시며, 그분의 영원한 예지와 작정은 모든 피조물과 사건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우주와 역사의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벗어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행 2:23)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가장 큰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변동없이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행 2: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의 법칙과 질서가 유지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는 약속처럼, 자연의 순환 법칙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이 확실성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창 8: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나. 제이원인(둘째 원인)의 특성과 방식:

(1) 하나님의 작정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는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제이원인의 특성에 따라서 만사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제이원인(Second Causes)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피조물적인 수단, 즉 자연법칙, 인간의 의지, 혹은 사건의 우발성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이원인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2)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해와 달과 별들의 규례와 그 본성을 내가 정하였거늘 너희 자손이 내 앞에서 끊어져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렘 31:35-36, 한글개역판에는 35절만 있음. 신앙고백서의 논지는 하나님의 불변의 작정에 따라 자손이 유지된다는 것)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해와 달의 규례)를 통해 그분의 언약도 '변동없이' 이루어짐을 비유하셨

[렘 31:35]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렘 31:36]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습니다.

2. 섭리 안에서의 인간의 책임과 우발성:

가. 제이원인으로서의 자유와 우연:

(1)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지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합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아람 군인의 '우연히' 쏜 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왕상 22:34),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가 동시에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결과를 자신의 작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2)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측 불가능하고 우발적인 사건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은 사람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에 대해 도피성을 정해 주었는데(출 21:13; 신 19:5), 이 살인 사건은 인간에게는 우연한 사고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왕상 22:34]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머리 부린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출 21:13] 사람이 계획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인 것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신 19: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처럼 인간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 섭리 안에서의 모든 일:

(1)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최종 결론은 신앙고백서의 핵심입니다. 필연적 법칙,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우연한 사건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람 군인의 활을 '우연한'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2) 이 원리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큰 확신을 줍니다. 아시리아 왕이 자신의 힘과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성경은 "내가 그에게 명하여 훼파할 자에게 보내고 그 모든 권력을 주어 노략하며 노획하게 하"(사 10:6-7)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사 10:6]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사 10:7]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멸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제3항: 섭리의 방식과 다양성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반 섭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편들을 사용하나(행27:31, 34; 사55:10, 11; 호2:21, 22), 오히려 그와 같은 방편없이(호1:7; 마4:4; 욥34:10), 방편을 초월해서(롬4:19-21), 또는 역행하여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하기도 하신다(왕하 6:6; 단3:27).'

1. 일반적인 섭리 방식: 방편의 사용:

가. 제2원인(둘째 원인)을 통한 역사: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반 섭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편들을 사용하나'라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제2원인(Second Causes)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방편'이란 자연법칙, 인간의 노력, 계획, 그리고 인과관계 등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설정하신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2)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에게 "저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행 27:31)고 말하며 노력을 촉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순종과 노력(방편)을 통해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방편의 사용은 인간의 책임과 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행 27: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나. 방편의 확실한 결과:

(1) 이 방편의 사용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1)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방편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리는 자연 현상(호 2:21, 22)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일반적인 방편입니다.

[사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호 2: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락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락하고 하늘은 땅에 응락하고
[호 2: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락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락하리라

2. 특별한 섭리 방식: 방편의 초월:

가. 방편 없이 역사하심 (무방편):

(1) '오히려 그와 같은 방편없이' 행사하신다는 것

은, 하나님이 제2원인의 도움 없이도 그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주권적 능력을 가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특정한 경우에는 자연적인 수단이나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2)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구원이 활과 칼에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호 1:7)이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방편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시거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 1: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나. 방편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심 (초자연적 섭리):

(1) '방편을 초월해서' 또는 '역행하여서' 행사하신다는 것은 곧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이라는 일반적인 방편에 매이지 않으시며, 필요할 경우 그 법칙을 중지하거나 거스르실 수 있습니다.

(2) '방편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예로는 아브라함이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았으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삭을 낳은 사건(롬 4:19-21)이 있습니다. '역행하여서' 역사하신 예로는 엘리사가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한 것(왕하 6:6)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보호받은 것(단 3:27)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의 법칙 위에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드러냅니다.

[롬 4: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왕하 6:6]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단 3:27] 방백과 수령과 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3. 섭리 방식의 자유로움:

가.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

(1) 이 모든 섭리의 방식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하기도 하신다'는 원칙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규칙(방편 사용)을 정해 놓으셨지만, 그분 스스로 그 규칙에 묶이지 않으시며, 오직 자신의 지극히 선하신 뜻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십니다.

(2)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방편이 막혔을 때라도, "주께서 그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나니"(시 135:6)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넘

[시 135:6]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어 구원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믿게 합니다.

제4항: 하나님의 섭리와 죄악의 관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니(롬11:32-34; 삼하24:1; 대상21:1; 왕상22:22, 23; 대상10:4, 13, 14; 삼하16:10; 행2:23, 4:27, 28) 단순히 허락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큰 지혜와 권능으로 허락의 한계를 정하시고(왕하19:28, 사10:5-7, 12, 15)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돈하시고 관할하며 다스리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약1:13, 14, 17; 요일2:16; 시50:21).'

1. 섭리의 속성과 죄악에 미치는 범위:

가. 섭리의 속성 증거와 전 포괄성: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고 선언하며, 섭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증명하는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는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끌며, '무한히 선하심'은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의롭고 거룩함을 보증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지혜와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롬 11:32-33)라고 경외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롬 11: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것이로다

(2) 이 전능한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죄악의 영역까지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의 기록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삼하 24:1) 인구조사를 명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탄과 악인의 악행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섭리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삼하 24: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하신지라

나. 허락을 넘어선 통제와 한계 설정:

(1) 하나님의 섭리는 죄악에 대해 '단순히 허락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큰 지혜와 권능으로 허락의 한계를 정하시고'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발생을 막을 능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죄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허용은 방임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큰 지혜와 권능으로 허락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죄악이 미치는 범위와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앗수르 왕이 교만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네 길과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아노라"(왕하 19:27-28, 28절에 한계가 언급됨)고 하시며, 그 악인의 행동에 철저한 '한계'를 정해 두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왕하 19:27]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향하여 분노함을 내가 다 아노니
[왕하 19:28] 네가 나를 향하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2) 또한 하나님은 죄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돈하시고 관할하며 다스리신다'. 아시리아 왕이 자신의 탐욕으로 열국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앗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사 10:5-7)고 말씀하시며, 그 악인의 행위를 당신의 '거룩한

[사 10:5] 화 있을진저 앗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사 10:6]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사 10:7]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멸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처럼 죄악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섭리의 핵심입니다.

2. 죄악의 근원과 하나님의 거룩성:

가. 죄악의 근원은 오직 피조물:

(1)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신학적 진리는 '그러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는 선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악을 허용하고 통제하시지만, 죄의 '죄악성'과 '책임'은 전적으로 죄를 범한 '피조물'에게만 속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만드시거나 찬성하실 수 없습니다.

(2) 야고보 사도는 이 진리를 확증하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

이니"(약 1:13-14)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죄의 근원이 하나님의 작정이나 뜻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욕심'과 '피조물적인 타락한 의지'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행 2: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공의: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두 진리(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죄책)가 만나는 가장 첨예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행 2:23)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를 못 박은 자들의 행위는 여전히 '죄악성'을 가진 악행이며,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성도들은 섭리의 신비를 탐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과 공의는 언제나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이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됩니다.

제5항: 성도를 시험과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는 섭리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동안 자신의 자녀들로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두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전날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큰 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며(대하32:25, 26, 31; 삼하24:1),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려는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고후12:7-9; 시73:, 77:1, 10, 12; 막14:66; 요21:15-17).'

1. 성도에 대한 특별한 섭리: 내버려 두심의 성격:

가. 하나님의 속성과 일시적 방치:

(1) 신앙고백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동안 자신의 자녀들로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두기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항상 긍휼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난이나 유혹, 심지어 내면의 죄악된 경향에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성도를 훈육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2) 여기서 '내버려두기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완전히 포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막는 억제적인 은혜를 거두시고,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힘을 경험하게 하시는 교훈적인 섭리입니다.

나. 내버려 두시는 구체적인 목적들:

(1) '전날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라도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을 때 잠시 하나님이 떠나계신 것(대하 32:25, 26, 31)이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신 것(삼하 24:1)은 죄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의 예입니다.

(2)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

[대하 32:25]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대하 32:26]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대하 32:31]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삼하 24: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의 힘이 얼마나 큰 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 성도라도 내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세력, 즉 '부패성의 힘'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붙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3)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을 통해 스스로의 연약함과 마음의 '거짓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된 것(막 14:66)과 같습니다.

[막 14:66]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2. 섭리를 통한 신앙의 발전:

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의지:

(1) 이 시련을 통한 섭리는 성도의 신앙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2)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당했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는 응답을 받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 섭리는 성도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고후 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나. 미래의 범죄 방지와 거룩한 목적:

(1)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려는 것이며': 과거의 죄로 인한 징계나 시험의 경험은 성도가 미래의 유혹에 대해 더욱 '경성'하고 조심하도록 만듭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교훈을 얻은 것처럼(시 119:67), 이 쓰라린 경험은 성화의 삶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시 119: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2)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섭리는 '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에 수렴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과 영화를 이루는 데 합력합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후 양을 치도록 위임받은 것(요 21:15-17)처럼, 시험은 결국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요 21: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 21:17] 세번째 가라

제6항: 유기(遺棄, Reprobation)된 자들에 대한 섭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전에 지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다(롬 1:24, 26, 28, 11:7, 8). 그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신29:4), 때로는 이미 저들이 소유했던 은사까지도 거두시고(마13:12, 25:29), 저들로 그들 자신의 부패성이 죄를 범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두신다(신2:30; 왕하8:12, 13).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저들을 자신들의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 주시기도 하신다(시81:11, 12; 살후2:10-12). 이로써 저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온화케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퍅케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출7:3, 8:15, 32; 고후2:15, 16; 사8:14; 벧전2:7, 8; 사6:9, 10; 행28:26, 27).'

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

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완악하게 하심:

(1) 신앙고백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전에 지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 가르침은 유기(버려둠)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단순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지은 죄악에 대한 '벌하시는 의미'를 가진 심판적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죄의 길에 그들을 넘겨주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심화시키고 스스로 심판 아래 두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저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롬 1:24, 26, 28)라고 세 번에 걸쳐 반복하며, 이 심판적 유기(넘겨주심)를 설명합니다.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롬 1: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 이 심판은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외에 나머지에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롬 11:7, 8)는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

[롬 11:7]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혼미하여졌느니라
[롬 11:8] 기록된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시지 않으며'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죄악을 통해 심판을 받도록 하십니다.

나. 은사의 거두심과 부패성의 방치:

(1)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는 '때로는 이미 저들이 소유했던 은사까지도 거두시고' 나타납니다. 여기서의 은사는 영적인 구원의 은사가 아닌, 지식, 재능, 권위와 같은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13:12; 25:29)고 말씀하심으로써, 주어진 은혜를 거절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일반 은혜의 수단마저 박탈되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마 13: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 25: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 나아가 하나님은 '저들로 그들 자신의 부패성이 죄를 범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두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의 타락한 본성(부패성)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죄는 더욱 심화됩니다. 모세가 바산 왕 시혼에게 행한 일에 대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강퍅케 하사"(신

2:30)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이 스스로 죄를 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신 2:3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퍅케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2. 죄악 심화의 수단과 자기 강퍅함:

가. 유혹의 수단에 넘겨주심:

(1)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저들을 자신들의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 주시기도 하신다'.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욕'(내적 타락), '세상의 시험'(외부적 유혹), '사단의 권세'(초자연적 유혹) 아래 놓이도록 허용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시 81:11, 12)라고 탄식하며,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죄의 세력에 넘겨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시 81:11]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시 81:12]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대로 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2)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살후 2:10-11)이라는 말씀처럼,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거짓 것'을 믿도록 하는 영적인 속임의 세력에 넘겨주는 심판이 뒤따름을 의미합니다.

[살후 2: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살후 2:11]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나. 자기 강퍅함의 최종 책임:

(1) 최종적으로 '이로써 저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온화케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퍅케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결론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통로(말씀, 성례, 권면 등)가 유기된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을 강화하는 심판의 방편이 됩니다.

[고후 2: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2) 예를 들어, 복음의 향기는 택함 받은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나, 유기된 자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후 2:15-16)가 됩니다. 바로가 모세의 기적을 보고도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출 7:3), 그들은 선지자의 권고나 기적을 보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퍅케 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출 7:3]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그 결과인 심판을 공의로 집행하십니다.

제7항: 교회를 향한 특별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그 중에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만사가 합력하여 교회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암9:8, 9; 롬8:28).'

1. 섭리의 이중적 성격: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가. 일반 섭리와 그 적용: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라고 전제하며, 섭리의 보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 제1항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포함하여(마 10:29-31) 모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통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섭리(General Providence)입니다.

[마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10: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마 10: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2) 그러나 이 일반 섭리가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의 목적과 초점은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사랑과 목적에 따라 섭리적 개입의 강도와 방식을 다르게 하십니다.

나. 교회를 향한 가장 특별한 섭리:

(1) 신앙고백서의 핵심은 '그 중에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에 있습니다. 특별 섭리(Special Providence)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향한 독특하고 집중적인 통치 행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엡 1:23),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주의 깊게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엡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징계를 선언하면서도, "보라 주 여호와 내가 지면에서 멸할지라도 야곱의 집에는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암 9:8)고 약속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멸하지 않는 보호와 언약적 신실함을 확증했습니다.

[암 9:8]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교회를 위한 만물의 협력:

가. 만사가 교회의 선을 위해 작동:

(1)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가장 큰 위로는 '만사가 합력하여 교회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만사)'이란 세상의 사건, 고난, 고통, 유혹, 심지어 악인의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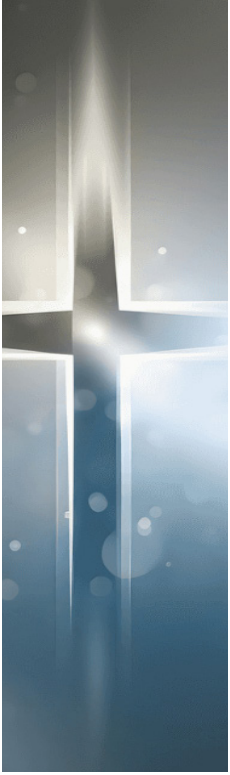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2) 이 말씀은 택함 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영적인 유익, 즉 '교회의 선'을 위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조율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개인의 고난이 결국 성화와 영광을 위한 발판이 되듯이, 교회가 겪는 박해나 시련조차도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순결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나. 영광과 위로의 근거:

(1) 이 교리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위안'을 제공합

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나 무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는 교회에게 '근면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알고, 복음 전파와 성화의 삶에 더욱 힘쓰도록 격려합니다.



6 장

/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제 6 장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벌에 관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육 간의 비참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제1항: 인류 최초의 타락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 하였다(창3:13; 고후11:3).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롬11:32).'

1. 인류 최초의 범죄와 그 동기:

가. 최초의 죄와 그 원인:

(1) 신앙고백서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 하였다'고 명시하며, 인간의 죄가 외부적 원인과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합으로 발생했음을 밝힙니다. 최초의 죄인 '금지된 실과를 먹음'은 단순한 식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불순종과 교만의 행위였습니다. 사탄은 '간계와 유혹'을 사용하여 하와의 마음을 흐트러뜨렸고, 하와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3)라고 고백했듯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창 3: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 11:3)고 경고합니다. 이는 '사단의 간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파괴하려는

[고후 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영원한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나. 죄의 심각성:

(1)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상태인 무죄 상태(Status Integritatis)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Possibility of Sinning)도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Possibility of Not Sinning)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도전했습니다.

(2) 이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시조의 행위였기에, 그 결과는 모든 후손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셨던 완전한 창조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창 1: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 하나님의 주권과 죄악의 관계:

가. 하나님의 허용과 목적: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고 선언하며, 죄악의 발생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 '허용'은 죄를 조장하거나 기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발생을 막지 않으시고 그 결과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통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악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더 큰 선을 드러내셨습니다.

(2) 이처럼 하나님이 죄악을 다루시는 방식은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확신으로 귀결됩니다. 바울은 이 경륜의 깊은 신비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롬 11:32)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가 죄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하며,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

[롬 11: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습니다.

나. 허용의 신학과 인간의 책임:

(1) 하나님의 '허용' 교리는 죄의 책임은 오직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심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유의지 행사를 막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죄를 짓도록 강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약 1:14)라는 말씀처럼, 죄의 근원은 피조물에게만 있습니다.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2)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적 계획을 착오 없이 진행시키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모두 드러나는 경륜의 중심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2항: 타락의 결과: 의의 상실과 전적 부패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

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창3:6-8; 전 7:29; 롬3:23).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창2:17; 엡2:1; 롬5:12)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여러 분야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창6:5; 렘 17:9; 롬3:10-18, 8:6-8; 시58:1-5).'

1. 타락으로 인한 상실:

가. 의의 상실과 교제의 단절:

(1) 신앙고백서는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를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의(Righteousness)'를 가졌으나(제4장 2항),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통해 그 의를 상실했습니다. 이 상실된 의는 원시적 의(Original Righteousness)로 불리며, 인간이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던 완전한 도덕적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는 말씀은 의의 상실이 곧 영광의 상실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 의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창 3:8)은 깨어진 관계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인간 존재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창 3: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 영적 사망과 그 확산:

(1) 타락의 또 다른 치명적인 결과는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고 경고하셨는데, 이 사망은 즉각적인 영적 사망과 궁극적인 육체적 사망 및 영원한 사망을 모두 포함합니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2) '영적 사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이며,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라는 말씀처럼, 구속이 필요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규정합니다. 이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는 말씀처럼, 모든 후손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엡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2. 타락의 확산: 전적 부패(Total Depravity):

가. 전적 부패의 개념:

(1) 타락으로 인해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여러 분야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은 전적 부패(Total Depravity) 교리를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 전체, 즉 이성, 감정, 의지 등 '영과 육의 모든 기능'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더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2) '전적 부패'는 인간이 완전히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죄를 짓는 경향만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렘 17:9)라고 고백하며, 인간 마음의 깊은 부패성을 지적했습니다.

나. 부패성의 범위와 성경적 증거:

(1) 이 부패성은 인간의 모든 영역, 즉 '모든 기능과 여러 분야들'에 미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며(창 6:5),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입에는 독이 가득합니다(롬 3:10-18). 이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롬 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롬 3: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3]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롬 3: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롬 3:15]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롬 3: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롬 3: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롬 3:18]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상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는 말씀처럼,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선한 능력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할수도없음이라

(2) '전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은 인간이 극단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제3항: 원죄(原罪)의 전가와 유전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창1:27-28, 2:16-17; 행17:26; 창3:16-17; 롬5:12, 15-19; 고전15:21, 22, 45, 49),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기 때문이다(시51:5; 창5:3; 요3:6; 롬3:10-18).'

1. 원죄의 두 가지 측면: 죄책의 전가:

가. 인류의 뿌리로서의 아담:

(1) 신앙고백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뿌리인 고로'라고 규정하며, 그들의 죄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약적 기초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단순히 한 개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Covenant Head)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사"(행 17:26)라는 말씀처럼,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행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하셨으니

(2) 아담의 대표자로서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라고 선언됩니다. 여기서 '죄책(Guilt)'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죄를 의미하며, 이는 '전가(Imputation)'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후손의 법적 계좌에 기록되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 전가 교리의 성경적 근거:

(1) 이 전가 교리는 로마서 5장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는 말씀처럼, 아담의 죄가 사망을 초래했으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2)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전가 교리를 확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고 선언함으로써, 아담의 행위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역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왔음을 설명합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 원죄의 두 가지 측면: 부패한 성품의 유전:

가. 사망과 부패성의 유전:

(1) 전가된 죄책 외에도, 타락의 결과인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원죄

의 또 다른 측면인 오염(Pollution), 즉 원죄(Original Sin)의 오염을 말합니다. 이 오염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Total Depravity)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2) 시편 기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고백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영적 무능력과 악을 행하려는 경향을 포함합니다.

[시 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 유전의 방식: 보통 생육법:

(1) 이 죄와 부패한 성품이 유전되는 방식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 생육법'이란 아담과 하와의 정상적인 남녀 결합을 통한 출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부모의 부패한 성품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2)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말씀하시며, 육적인 출생(보통 생육법)이 죄의 오염을 벗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4항: 인간 본성의 완전한 부패와 자범죄의 근원

'이러한 근본적인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선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선을 행함에 무능해지며, 모든 선에 역행하고(롬5:6, 8:7; 요3:6; 롬7:18; 창8:21), 모든 악을 전적으로 좇게 된다(창6:5, 8:21; 롬3:10-12). 여기서 모든 자범죄가 나오게 된다(약1:14, 15; 엡2:2, 3; 마15:19).'

1. 근본적인 부패의 본질과 결과:

가. 완전한 무능력과 선의 배격:

(1)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선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선을 행함에 무능해지며, 모든 선에 역행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근본적인 부패성'(원죄의 결과)은 인간의 모든 영역-지성, 의지, 감정-을 오염시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선(영적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죄의 속박 아래 놓여 '선을 행함에 무능해지'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상태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롬 5:6)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영적 무능력을 강조합니다.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2) 나아가 이 부패성은 인간의 마음을 '모든 선에 역행하'도록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요"(롬 8:7)라는 말씀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나. 악에 대한 경향성과 전적인 추구:

(1) 부패성은 인간을 '모든 악을 전적으로 좇게 된다'는 결과로 이끌어 갑니다. '전적(全的) 부패'란 인간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다는 의미이

지, 모든 인간이 악의 극단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을 좇는' 경향성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라고 기록하며,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2)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필요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모든 영역이 죄의 오염 아래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롬 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롬 3:12]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 자범죄의 근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 자범죄의 근원으로서의 부패성:

(1) 이 '근본적인 부패성'으로부터 '모든 자범죄

가 나오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자범죄(Actual Sins)는 인간이 생각, 말, 행위로 실제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하며, 이는 원죄라는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죄의 과정을 설명하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라고 가르칩니다. '욕심'은 바로 이 '근본적인 부패성'에서 비롯됩니다.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2)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죄악된 행동들이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부패에서 나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마 15:19). 이처럼 모든 자범죄는 타락한 본성의 산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마 15: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나. 은혜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

(1) 이 교리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

끌어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으므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라는 말씀처럼, 전적인 은혜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중생(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엡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이처럼 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직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5항: 성도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殘存罪)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 속에 남아 있다(요일1:8, 10; 롬7:14, 17, 18, 23; 약3:2; 잠20:9; 전7:20).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 이다(롬7:5, 7, 8, 25; 갈5:17).'

1. 중생 후에도 잔존하는 부패성:

가. 성도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세력:

(1)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 속에 남아 있다'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중생(Regeneration)은 죄의 지배력을 깨뜨리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변화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성화의 과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죄의 영향력인 잔존죄(殘存罪, Reliquiae Peccati)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2)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 1:8)라고 선언하며, 성도라도 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롬 7:14)라고 탄식하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 7:22-23)라고 고백함으로써, 거듭난 사람 안에서도 죄와 싸

[요일 1:8]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있지 아니할것이요

[롬 7: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팔렸도다

[롬 7: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롬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보는도다

우는 내적 갈등이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나. 성도의 현실적인 연약함:

(1)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 3:2)고 증언했으며, 이는 성도가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잔존하는 부패성은 겸손의 필요성과 끊임없는 경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약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2. 잔존죄의 성격: 죄악으로서의 정체성:

가. 부패성 자체와 행위의 죄악성:

(1) 비록 잔존죄가 성도의 의지(새 생명)에 의해 통치권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패성이 일으키는 악한 생각, 충동, 그리고 불완전한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죄악'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소원 사이에 발생하는

치열한 전쟁은 이 죄악의 실제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는 말씀처럼, 잔존하는 죄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실질적인 적입니다.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용서와 소멸의 과정: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잔존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소멸되어 가지만'이라는 구절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稱義)를 통해 이미 모든 죄, 곧 원죄, 자범죄, 그리고 잔존죄에 대한 죄책(Guilt)을 용서받았습니다.

(2) 또한 '소멸되어 가지만'은 성화 과정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죄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소멸되며, 성도는 영광의 날에 완전히 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바울이 탄식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라고 외친 것은, 잔존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

[롬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리와 용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6항: 죄의 본질과 필연적인 형벌

'모든 죄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며(요일3:4) 그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롬2:15, 3:9, 19). 그리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엡2:3; 롬5:12) 율법의 저주(갈3:10; 살후1:9 롬1:21-28; 레26:14) 아래 죽을 수 밖에 없고 영적으로(엡4:18; 신28:15), 현세적으로 비참한 중에 또 영원히 비참한 중에 죽음(롬6:23)을 피할 수 없게 된다(마25:41).'

1. 죄의 본질적 정의와 그 결과:

가. 죄의 정의: 율법의 위반:

(1) 신앙고백서는 '모든 죄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원죄(Original Sin)'는 아담의 타락으로 전가된 죄의 상태와 유전된 부패한 본성을, '자범죄(Actual Sins)'는 그 본성에서 비롯

된 실제적인 행위와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죄는 모두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요일 3:4)고 명확히 선언하며, 죄의 본질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법규를 깨뜨리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곧불법이라

(2) 죄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고 고백합니다. 이 죄책(Guilt)은 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며, 이는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죄책 아래 있음을 선언하며 "이는 저희가 그 양심에 쓴 것을 나타내어"(롬 2:15) 자신의 죄를 스스로 증언하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롬 3:19)고 결론짓습니다.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 필연적인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1) 죄책의 필연적인 결과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노(Wrath)는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반응입니

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 2:3)라고 표현하며, 모든 타락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선언합니다.

[엡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선고를 의미합니다. "무릇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갈 3:10)는 말씀은, 죄인이 스스로의 행위로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저주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살후 1:9)로 이어지게 됩니다.

[갈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살후 1: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2. 사망의 세 가지 형태와 영원한 비참함:

가. 삼중적인 죽음:

(1) 죄의 최종적인 형벌은 '죽음'이며, 이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영적으로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엡 4:18)는 상태로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신명기에

[엡 4: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서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로 주어지는 저주 속에 포함됩니다(신 28:15).

(2) 둘째, '현세적으로 비참한 중에 죽음'은 죄가 세상에 가져온 질병, 고통, 재난,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현세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셋째, '영원히 비참한 중에 죽음'은 궁극적인 형벌이며, "이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선언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최종적인 보상을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이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포함합니다.

[신 28: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칠 것이니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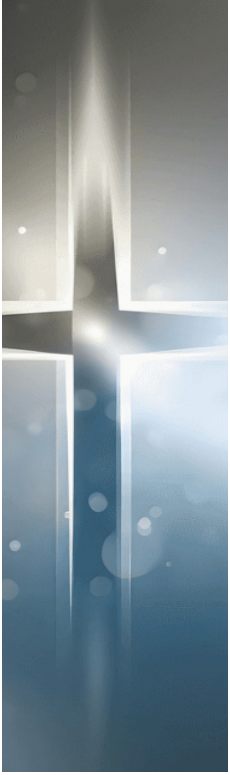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나. 영원한 비참함의 종말론적 확증:

(1) '영원히 비참한 중에 죽음'은 종말론적인 심판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유기된 자들에게 선고하시는 최종적인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비참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영속성과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2) 이처럼 죄의 본질과 그 필연적인 형벌에 대한

가르침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함께, 인간을 이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위대함과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이 형벌을 피할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義)와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7 장

/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제 7 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7장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에 관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는 순종을 조건으로 한 행위 언약을 맺으셨으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방식은 달랐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제1항: 언약의 기원: 하나님의 자발적인 낮추심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거리가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일지라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오직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한 결과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

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사40:13-27; 욥9:32, 33; 삼상2:35; 시113:5, 6, 100:2, 3; 욥22:1, 3, 35:7, 8; 눅17:10; 행17:24, 25).'

1.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와 거리:

가. 절대적인 거리와 의무적인 순종: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거리가 너무나 커서'라고 명시하며, 언약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로서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인간의 모든 이성적, 도덕적 노력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광대합니다.

(2) 이러한 관계 속에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일지라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오직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됩니다. 인간은 어떤 공로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마땅한 의무(Debt of Obedience)만을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

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눅 17:10)고 가르치셨습니다.

[눅 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

나. 상급 획득의 불가능성:

(1) 인간이 아무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한 결과로 얻을 수 없으며'라고 단언됩니다. 이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순종은 이미 창조주에게 빚진 '의무'를 갚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급'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욥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욥 22:2)고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족성(自足性)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물일 뿐,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욥 22: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2. 언약의 기원과 특성:

가. 언약의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자발적인 낮추심:

(1) 인간이 축복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심(Condescension)'은 언약 신학의 핵심 용어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피조물의 수준에 맞추어 관계를 맺어주시는 자발적인 은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시편 기자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같을 이가 누구냐 높이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시 113:5, 6)라고 노래했듯이, 언약은 인간의 요청이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 113: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시 113: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 언약:

(1) 하나님은 이 자발적인 낮추심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언약(Covenant)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며 인간을 당신의 은혜로운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시

는, 질서 있고 확정된 방식입니다.

(2)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 있는 순종을 결합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언약의 방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2항: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언약(갈3:12)이었으니 이 언약에 따라서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창2:16, 17; 갈3:10; 호6:7; 롬5:12, 19; 고전15:22, 47)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롬10:5, 5:12-20).'

1. 행위 언약의 본질과 조건:

가. 최초 언약의 정체성과 성격:

(1) 신앙고백서는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언약(갈 3:12)이었으니'라고 정의합니다. '

[갈 3: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과 맺으신 계약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명칭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갈 3:12)다는 구절을 통해 신학적으로 뒷받침되며, 율법의 특징이 행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이 언약은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6-17)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금지 명령을 포함한 모든 율법적 요구에 '완전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롬 10:5)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이는 행위 언약의 기본 구조를 드러냅니다.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롬 10: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나. 생명의 약속과 불순종의 저주:

(1) 행위 언약에 따라 순종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고백

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영광스러운 영생을 의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언약의 파괴를 언급하며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였느니라"(호 6:7)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언약적 성격을 띠었음을 시사합니다.

[호 6:7]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2) 이 언약은 또한 저주의 조건을 포함했는데, 즉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경고입니다. 이 저주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갈 3:10)는 말씀과 같이, 불완전한 순종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아담은 이 경고를 알면서도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갈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2. 행위 언약의 대표성과 구속사적 의미:

가. 아담의 대표성 원리:

(1) 행위 언약은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대표성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단

순한 한 개인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의 언약적 머리(Covenant Head)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행위는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사도 바울은 이 대표성을 구속사의 핵심 교리로 제시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롬 5:19)는 말씀처럼,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후손에게 죄와 사망을 전가시킨 원리가 됩니다. 또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는 고백은, 아담을 옛 인류의 대표로,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대표로 확증합니다.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

(1) 행위 언약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실패했지만, 구속사 안에서 폐지되지 않고 그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신 것"(갈 4:4)은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요구인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인류 대표로서 성취하시기 위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은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2) 따라서 행위 언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필요성과 그 효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고전 15:45, 47)으로서 옛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택함 받은 모든 후손에게 생명과 의(義)를 가져다주셨습니다.

[고전 15: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제3항: 행위 언약의 실패와 은혜 언약의 수립

'사람이 타락함으로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언약이라고 부르는 제2의 언약을 맺으셨다(갈3:21; 롬8:3, 3:20, 21; 창3:15; 사42:6).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시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막16:15, 16; 요3:16; 롬10:6, 9; 갈3:11),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

여 믿도록 해 주시었다(겔36:26, 27; 요6:37, 44, 45; 눅11:13; 갈3:14).'

1. 행위 언약의 실패와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

가. 행위 언약의 불가능성:

(1) 신앙고백서는 '사람이 타락함으로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제1장 1항에서 언급된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은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생명의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타락(제6장)으로 인해 인간은 원의(Original Righteousness)를 잃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갈 3:21)는 진리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의 행위는 정죄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갈 3: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라고 말하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롬 8:3)고 선언합니다. 이는 행위 언약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했으며, 인간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혔음을 보여줍니다.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나. 은혜 언약의 수립:

(1) 이 막힌 길을 여시기 위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언약이라고 부르는 제2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은혜 언약(Covenant of Grace)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근거하며,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새로운 방편입니다.

(2) 이 은혜 언약의 씨앗은 타락 직후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창 3:15)라는 원복음(Protoevangelium)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구약의 여러 언약(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사 42:6).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 42: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2. 은혜 언약의 내용과 조건:

가. 구원의 거저 제공과 믿음의 요구:

(1) 은혜 언약의 핵심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시어'에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분의 희생과 의로움이 은혜 언약의 중보적 기초가 됩니다.

(2) 은혜 언약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입니다. 믿음(Faith)은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Instrument)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3:16)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성령의 사역: 자원하는 믿음:

(1) 은혜 언약의 세 번째 요소는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 주시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Holy Spirit)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2) 이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요 6:44)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겔 36:26, 27) 그리스도께 '자원하여 믿도록'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선택된 자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은혜 언약의 적용을 완성합니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 36: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제4항: 은혜 언약의 유언적 성격

'이 은혜언약은 유언의 내용으로 성경에 해설되어 있다.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으로 증여된 영원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할 내용이다(히9:15-17, 7:22; 눅22:20; 고전11:25).'

1. 은혜 언약의 유언적 성격과 그 근거:

가. 유언으로서의 은혜 언약:

(1) 신앙고백서는 '이 은혜언약은 유언의 내용

으로 성경에 해설되어 있다'고 선언하며, 은혜 언약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유언(Testament)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 쌍방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유언은 수혜자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증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은혜 언약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언약'(διαθήκη, diathēkē)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그 근거입니다.

(2)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유언의 성취로 설명하며 "이로 인하여 저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히 9:15-17)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 언약의 효력이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음을 명확히 확증합니다.

[히 9:15]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 9: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히 9: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역할:

(1) 은혜 언약이 유언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핵심적인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 무효화되었던 언약을 확증하시고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이 되셨음을 강조하며,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통해 이 유언이 완전히 보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새 언약(유언)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성립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죄의 속죄를 이루고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효력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 유언의 내용과 성도의 기업:

가. 영원한 기업의 증여:

(1) 이 유언의 내용은 '유언으로 증여된 영원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할 내용이

다'라고 설명됩니다.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복, 즉 영생, 의, 성화, 영화를 포함하는 모든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증여된' 선물입니다.

(2) 사도 바울은 성찬을 통해 이 새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고 권면합니다. 이 기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값없이 물려받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 은혜 언약의 불변성과 확실성:

(1) 은혜 언약이 유언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그 언약이 수혜자(성도)의 변덕스러운 상태나 행위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불변성과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죽음 이후에는 변경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립된 이 은혜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며,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2) 이 유언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유언의 조건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신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제5항: 은혜 언약의 집행: 구약 시대 (율법 시대)

'은혜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고후3:6-9). 율법시대에 유대 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기타 다른 모형들과 규례들이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히8, 9, 10; 롬4:11; 골2:11, 12; 고전5:7)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택한 백성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하여 유대 백성들은 온전한 사죄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가리켜 구약이라고 부른다(갈3:7-9, 14).'

1. 은혜 언약의 이중적 집행 방식:

가. 시대적 차이와 영적 일치:

(1) 신앙고백서는 '은혜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언약의 본질은 하나이며 구원의 방식(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도 동일하지만, 그 집행 방식(Administration)에 있어서 시대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으로 쓴 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후 3:6)고 말하며, 구약의 엄격한 문자와 신약의 풍성한 영의 역사를 대조하여 그 집행 방식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고후 3: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2) 즉, 구약(율법 시대)과 신약(복음 시대)은 동일한 하나의 은혜 언약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행했을 뿐, 구원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구약 시대의 방편들: 예표와 모형:

(1) '율법시대에 유대 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기타 다른 모형들과 규례들이다'라고 나열된 항목들은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 집행에 사용된 예표(Types)와 모형(Shadows)입니다.

(2) 이 모든 요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그리스

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할례'는 마음의 할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골 2:11, 12)을, '유월절 어린양'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히 8, 9, 10장)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막 제도가 하늘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음을 명시합니다.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2. 구약 시대 방편의 유효성과 최종 목적:

가. 신앙 육성을 위한 충분성과 유효성:

(1) 이 구약의 예표들은 단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택한 백성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곧 저희를 따

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났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1-4)는 말씀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모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보고 즐거워한 것(요 8:56)은 구약 백성의 '메시아 신앙'이 실제로 구원에 유효했음을 증명합니다.

[고전 10:1]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고전 10: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전 10:3]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고전 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요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갈 3: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찌어다
[갈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나. 온전한 구원과 구약의 명칭:

(1) 구약의 성도들은 '이 메시아에 의하여 유대 백성들은 온전한 사죄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됩니다. 그들의 죄 사함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이 예표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신약 성도와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2)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집행된 은혜 언약의 방식을 '이것을 가리켜 구약이라고 부른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 언약의 집행 방식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그 구원의 본질이 무효화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갈 3:7-9, 14).

제6항: 신약(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과 구약과의 통일성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골2:17) 나타나신 복음시대에는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로 설교와 성례(세례와 성찬) 뿐이다(마28:19, 20; 고전11:2 3-25). 이 규례의 수가 적고, 그 사역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으나 이 언약은 더욱 충만하게, 또 명확하게 영적 효력을 모든 나라(유대인과 이방인) (마28:19; 엡2:15-19.)에 나타낸다(히12:22-27; 렘31:33-34).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눅22:20).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R)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요 동일하다(갈3:14, 16; 행15:11; 롬3:21-23, 30; 시32:1; 롬4:3, 6, 16, 17, 23, 24; 히13:8).'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 신약 시대 언약 시행의 특징:

가.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규례의 단순화:

(1) 신앙고백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에는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로 설교와 성례(세례와 성찬) 뿐이다'라고 명확

히 규정합니다. 구약 시대의 복잡하고 그림자적인 제사 의식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골 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심으로써 완성되고 폐지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초점을 맞춘 '설교'와 단 두 가지의 '성례(세례와 성찬)'만이 언약을 시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명하심으로써 이 규례를 확립하셨습니다.

[골 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 이 '규례의 수가 적고, 그 사역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으나' 그 영적 효력은 오히려 더욱 충만하고 명확합니다. 구약의 복잡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이라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사건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구속 진리의 명료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나. 언약 효력의 보편적 확장:

(1) 신약은 '더욱 충만하게, 또 명확하게 영적 효

력을 모든 나라(유대인과 이방인)에 나타낸다'고 선언합니다. 구약의 언약 시행은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틀 안에 갇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인종과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고 명하신 것처럼, 은혜 언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곧 언약의 성취임을 밝히며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5-19)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34)는 새 언약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축복이 모든 나라에 명확하게 시행됩니다.

2.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가. 본질적인 단일 언약:

(1) 신앙고백서는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施行)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엡 2:15]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7]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엡 2: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렘 31: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

로 하나요 동일하다'는 중요한 교리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비록 시행하는 방식(규례)이나 계시의 명료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요 동일한' 은혜 언약입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2) 사도 바울은 이 통일성을 설명하며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도 이 언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갈 3:14, 16)임을 밝힙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행 15:11)고 공언하며, 구약의 성도들도 이 동일한 은혜 언약 아래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나. 구원의 통일성:

(1) 신구약 성도들의 구원 방식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라고 고백한 의(義)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렘 31: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행 15:11]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되었느니라"(롬 3:23-24)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기초합니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롬 4:3)는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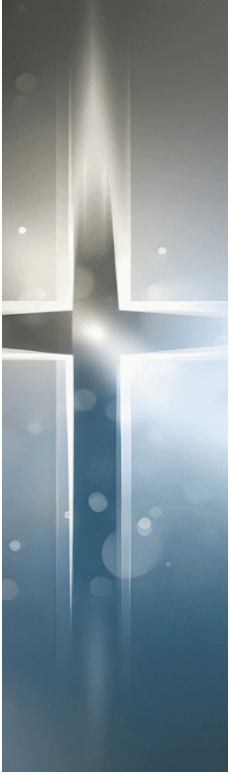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2) 이 통일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는 진리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구속사가 발전함에 따라 언약의 계시 형태는 바뀌었지만, 언약의 구속주와 구원의 길은 영원히 하나요 동일합니다. 이 깨달음은 성경 전체를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로 이해하게 합니다.

[시 32:1]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히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8 장

/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 8 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벽히 수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제1항: 그리스도의 중보직 임명과 구속의 적용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사42:1; 벧전1:19, 20; 요3:16; 딤전2:5).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행3:22)와 제사장(히5:5, 6)과 왕(시2:6; 눅1:33)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엡5:23)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히1:2)와 세상의 심판자(행17:31)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에게 씨(요17:6; 시22:30; 사53:10)가 되는 백성을 주셨다. 때가 이르매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었다(딤전2:6; 사55:4, 5; 고전1:30).'

1. 영원한 작정 아래 세워진 중보자:

가. 중보직의 근거와 독특성:

(1) 그리스도의 중보직은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이는 구속 계획이 피조 세계의 시작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속에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딤전 2:5) 한 분뿐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 이 중보직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자 핵심적인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니"(요 3:16)라는 말씀은, 영원 전에 예정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합니다.

나. 중보자의 삼중직분과 권세:

(1)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분(三重職分)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시며(행 3:22),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히 5:5, 6), 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눅 1:33).

(2) 이 직분은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 구주'(엡 5:23)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후사'(히 1:2)와 '세상의 심판자'(행 17:31)가 되시어, 전 우주적인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2. 중보 사역의 적용과 구원 서정:

가. 중보의 대상: 씨가 되는 백성: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 3: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히 5: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 5:6]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눅 1: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1)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에게 씨가 되는 백성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선택된 백성'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씨'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교회를 의미하며, 이 백성을 구속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보 사역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요 17:6).

(2) 이 백성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효력을 확실하게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노니"(사 55:4)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나. 구원 서정(Ordo Salutis)의 필연적 성취:

(1) '때가 이르매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었다'라는 문장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구원 서정(Order of Salvation)의 모든 단계를 통해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필연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은 구속 역사 속에서 정해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요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사 55:4]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진 시점에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2)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오직 '그로 말미암아', 즉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백성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딤전 2:6),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 1:30)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모든 요소를 적용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적용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완벽하게 성취됨을 확증하는 진리입니다.

[딤전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나타낼 증거니라

[고전 1: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제2항: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인(神人) 양성(兩性) 결합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의 제 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때가 차매 인성을 취하여(요1:1, 14; 요일5:20; 빌2:6; 갈4:4)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모

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히2:14, 16, 17, 4:15) 동정녀 마리아 몸에 그 분(마리아)의 체질로 잉태되셨다(눅1:27, 31, 35; 갈4:4). 그러므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눅1:35; 골2:9; 롬9:5; 벧전3:16; 딤전3:16). 그 결합은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며,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롬1:3, 4; 딤전2:5).'

1.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신성:

가. 제2위와 동일 본체: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의 제 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의 본체'를 가지십니다. 이는 기독론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인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심을 명시한 것입니다. 요한 사

도는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요일 1:1, 요 1:1)이라고 선포하며 그분의 영원성을 증언합니다.

(2)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라고 말씀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 5:20)라고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일 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나. 때가 찬 충만함과 인성의 취하심:

(1)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때가 차매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차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구속사적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 4:4)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구속사의 중심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라고 기록하여, 성자 하나님의 인성 취하심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2)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감정, 의지 등 인간의 모든 요소를 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곤함, 목마름, 슬픔과 같은 '공통적인 연약성'을 경험하셨으며, 이로써 참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히 2:17)라고 기록하여,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확증합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 2: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2.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

가. 죄성 없는 인성 취함:

(1)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속성을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그 분(마리아)의 체질로 잉태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죄 없는 인성(Impeccability)은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 사역

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가 우리와 한결같이 혈육에 속하셨"(히 2:14)으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는 말씀처럼,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셨습니다.

(2) 이는 가브리엘 천사의 선언에서 확증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눅 1:35)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체질로' 잉태되셨음에도 원죄로부터 보호되셨습니다.

[히 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눅 1: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 한 인격 안의 구별된 양성:

(1) 이로써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는 위격적 연합(Hypostatic Union) 교리가 확립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라는 두 본성(양성)이 존재하지만, 이 두 본성은 '나뉠 수없이 한 인격'을 이룹니다. 이 신비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 2:9)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골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2) 이 결합은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며, 혼동도 아니다'. 이는 두 본성이 서로 섞여서 제3의 새로운 본성이 되거나(유티키안주의 이단),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두 본성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나뉠 수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3. 중보자 그리스도의 유일성:

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1) 이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요'라는 결론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으며, '참 사람'이시기에 인간을 대표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바울은 이 신인(神人) 양성을 고백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3-4)라고 말합니다.

[롬 1: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 유일하신 중보자:

(1) 이 '한 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의 양성 결합은 그분이 인간의 편과 하나님의 편을 모두 충족시키며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이 '유일하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2) 이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는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확증됩니다. 이 유일성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나 다른 중보자가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복음의 배타성을 명확히 합니다.

[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3항: 중보자 그리스도의 자격과 충족성

'이와 같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소유하신 주 예수께서는 성별되셨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어(시45:7; 요3:34) 그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를 가지셨고(골2:3),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은혜가 충만하셨다(골1:19).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히7:26; 요1:14), 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무(행10:38; 히12:24, 7:22) 실행에 철저한 자격을 갖추시려는 것이었다. 그 직무로 말하면,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를 세우셔서(히5:4, 5), 모든 능력과 심판을 그의 수중에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것이다(요5:22, 27; 마28:18, 행2:36).'

1. 중보자의 자격 요건: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결합:

가. 인성의 성별과 성령의 충만:

(1) 신앙고백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자격의 근거를 '이와 같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소유하신 주 예수께서는 성별되셨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어'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신성)이시면서 동시에 죄 없는 참 인간(인성)이시기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의 인성은 출생 때부터 '성별'되어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았으며,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어'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요 3:34)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인성 안에서 제한 없이 받으셨습니다.

[요 3: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나. 지혜와 은혜의 충만:

(1)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를 가지셨고' 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은혜가 충만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적 능력과 도덕적 완전성을 완전히 갖추셨음을 의미합니다.

(2)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골 2:3)는 말씀과 "아버지께서는

[골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 1:19)라는 말씀은, 신적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거하게하시고

2. 직무 수행의 철저한 자격:

가. 완전한 거룩함과 보증인의 역할:

(1)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소유하신 목적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중보자와 '보증인'<에규오스>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철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보증인은 언약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와 형벌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히 7:22).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 그리스도의 도덕적 완벽함은 대제사장으로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증언하며 그 자격을 확증합니다(히 7:26).

[히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높이되신자라

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1) 성령의 무한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골 2:3). 이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백성에게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지자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골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2)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은혜를 받으셨기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효력을 가집니다(요 1:14; 행 10:38).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2. 직무의 신적 임명과 권한 위임:

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심:

(1) 이 중보자의 직무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를 세우셔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과 같이(히 5:4),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신적 임명을 받으셨습니다(히 5:5).

[히 5:4]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히 5: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

(2) 이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구속 경륜에 따른 공식적인 위임임을 나타냅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구속 사역의 사명을 맡기셨고, 성자는 이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직 말씀하신 이가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나. 위임된 권능과 심판의 권세:

(1)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심판을 그의 수중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라고 선언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요 5:22, 27).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원을 베푸는 자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만유를 통치하고 최후에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행 2:36).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완전한 권세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

[행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니다.

제4항: 중보자 직분의 수행과 그리스도의 승귀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시40:7,8; 히10:5-10; 요10:18; 빌2:8),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갈4:4),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마3:15; 5:17),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마26:37,38; 눅22:44; 마27:46),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마26:27),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빌2:8),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행2:23,24,27; 행13:37; 롬6:9).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되(고전15:3-5),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요20:25,27)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막16:19) 간구하시고(롬8:34; 히9:24; 7:25) 세상 끝 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롬14:9,10; 행1:11; 10:42; 마13:40-42; 유6; 벧후2:4).'

1.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겸비)과 대속 사역:

가. 자원적 순종과 율법의 성취:

(1) 신앙고백서는 중보자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라고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성부의 명령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자발적인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7-8; 히 10:5-10에 인용)라고 예언되었듯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자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는 말씀은 이 자발적인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줍니다.

[시 40: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 40: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하였나이다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죽으심이라

(2)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이는 능동적 순종(Active Obedience)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義)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 3:15)고 하신 것은, 대속의 첫 번째 요건인 완전한 의의 확보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나. 극심한 고난과 대속적 죽음:

(1)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이는 수동적 순종(Passive Obedience), 즉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 26:37-38)라는 영혼의 고뇌는 죄의 형벌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을 포함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외치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의 죄가 가져와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유기(버려짐)를 대신 경험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마 26:37] 베드로와 세 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 26: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 27:46]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이는 그분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에 영구히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4, 27)고 증언합니다. '결코 썩지 않으셨다'는 사실

[행 2: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행 2: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은 그분의 희생이 완전하고 영원히 유효함을 보증합니다.

2.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승귀)과 영원한 통치:

가. 부활과 승천 및 대언 사역:

(1)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되,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승귀의 첫 단계를 시작하셨습니다(고전 15:3-5).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속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정받았음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며, 성도들의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유령이 아니라,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신 것(요 20:25, 27)은 부활하신 몸의 실재성을 확증합니다.

(2)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셨습니다(막 16:19). 이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심'은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며, 중보자 직분의 영원한 완수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요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를 의미합니다. 현재 그분은 왕으로서 '간구하시고'(롬 8:34; 히 9:24; 7:25),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대언(代言)하시며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나. 재림과 최후의 심판:

(1) 그리스도의 승귀의 마지막 단계는 '세상 끝 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과 심판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의 약속대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는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는 가시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정하신 자"(행 10:42)인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권을 위임하셨습니다.

(2) 이 심판은 '사람들과 천사들을' 포함하며, 세상 역사의 궁극적인 종결을 가져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마 13:40-42)라는 말씀처럼,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최종적으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막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행 1: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로 선포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행 10:42]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 13: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마 13: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제5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롬5:19; 히9:14,16; 10:14 엡5:2; 롬3:25,26),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 주고 사시었다(단9:24,26; 골1:19,20; 엡1:11,14; 요17:2; 히9:12,15).'

1. 그리스도 속죄 사역의 두 가지 요소:

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1)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게 순종하시고'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순종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 능동적 순종(Active Obedience)은 그리스도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행위를 말합니다(롬 5:19). 둘째, 수동적 순종(Passive Obedience)은 '자신을 제물로 드림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으로써'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행위를 말합니다.

(2) 그리스도의 순종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며,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임을 의미합니다(히 9:14, 16; 10:14).

나.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킴:

(1) 이 완전한 순종과 대속적 희생의 결과는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요구(Justice)를 남김없이 충족시켰다는 교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가 대속적으로 갚으셨습니다.

(2) 이로써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으로 남게 되셨습니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 9: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히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이니라"(롬 3:25, 26)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완벽한 해법임을 보여줍니다.

2. 구속 사역의 범위와 효과:

가. 중보 사역의 대상: 성부께서 주신 모든 자:

(1)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명시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된 속죄(Definite Atonement), 즉 효과적 적용에 있어서는 택함 받은 백성(성부께서 주신 자들)만을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요 6:37)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열매가 이들에게만 확실하게 적용됨을 보증합니다.

(2) 이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는 '화목뿐만 아니라'를 이루셨습니다. 화목(Reconciliation)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진노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골 1:19, 20),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엡 5:2).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골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엡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나. 영원한 기업의 획득:

(1)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 주고 사시었다'고 선언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단순히 죄 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Inheritance)'인 하늘나라를 완전히 획득하도록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최고의 값을 치른 공로적 구매였음을 뜻합니다.

(2)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엡 1:3)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한 보증'(엡 1:14)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단번에 완전하게 확보되었으며(히 9:12),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단 9:24, 26; 히 9:15).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엡 1: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단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

제6항: 구속의 성취 시점과 효력의 영원성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

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 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갈4:4,5; 창3:15; 계13:8; 히13:8).'

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히 9:15]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 구속 사역의 역사적 성취와 실제성

가. 때가 차매 이루어진 성육신 사역:

(1) 구속 사역의 '실제적 성취' 시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구원을 작정하셨으나, 그 작정이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매"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셔야만 했습니다(갈4:4-5).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 4: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은 중보 사역

의 핵심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구속 완료:

(1)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서 확실하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비로소 실체화<미무쉬>되었습니다.

(2) 이로써 성경이 예언한 모든 구속의 조건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시공을 초월하는 구속 효력의 영속성

가. 창세로부터 적용된 그리스도의 공로:

(1) 구속 사역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의 구원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2)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용서와 은혜는, 비록 시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와 공로가 시대를 초월하여 소급적으로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나.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한 지속적 혜택:

(1) 구속의 혜택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베히라>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난받으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공로를 미리 끌어다 쓰는 신령한 유익을 누렸습니다.

(2) 이는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일관되게 집행되고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3. 구약 시대의 계시 방편과 그리스도의 동일성

가. 약속과 예표를 통한 그리스도 계시:

(1) 성육신 이전의 성도들은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을 방편으로 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모형과 제사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2) 이 방편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창 3:15)으로 계시되어 승리자로서의 소망을 주었고, 동시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으로 계시되어 대속자로서의 희생을 예표했습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계 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히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일성:

(1) 이 모든 구속의 역사적 성취와 영원한 효력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본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공로와 능력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이 '동일성'<슈무트>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본질적으로 하나인 은혜 언약임을 최

종적으로 확증하며,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제7항: 중보 사역에서의 양성(兩性) 행동과 속성 교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히9:14; 벧전3:18).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행20:28; 요3:13; 요일3:16).'

1. 중보 사역에서의 양성 행동 원리:

가. 각 본성의 고유한 행동:

(1)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

는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인격(Person)을 이루지만, 각 본성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침해하지 않고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한다는 기독론의 원리입니다. 신성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와 같은 신적 속성으로 사역하고, 인성은 유한함, 고난, 죽음과 같은 인간적 속성으로 사역합니다.

(2) 예를 들어, 제사장 직분 수행 시 '그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히 9:14) 것은 신성(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이 인성(흠 없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 효력을 발생시킨 것이며, 베드로 사도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 3:18)라고 기록한 것처럼, 죽임 당함은 인성에 속하고 살리심은 신성에 속한 행위입니다. 중보 사역의 효력은 이 두 본성의 온전한 협력에서 나옵니다.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벧전 3:18]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나. 본성의 통일성과 직무의 유일성:

(1) 두 본성이 구별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보 사역의 행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인격(Person)에 속하며, 두 본성이 각각 별개의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일성 덕분에 인성으로 이루어진 행위(죽음)가 신성(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2) 이 통일성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단순화시키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만으로도, 인성만으로도 아닌, 신인(神人) 한 인격이 이루신 모든 사역의 공로 덕분입니다.

2. 속성 교환(Communicatio Idiomatum) 원리:

가. 속성 교환의 정의와 성경적 사례:

(1)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고백하며, 속성 교환(Communicatio Idiomatum)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는 속성 자체가 본성 간에 실제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기에, 한 본성의 속성이

나 행위가 그 인격 전체에게 돌려져 다른 본성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2) 이 원리는 성경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고 말했습니다. 피 흘림은 인성(人性)에 속한 행위이지만, 성경은 이 행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느니라"(요 3:13)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신성(神性)에 속한 일이지만, 그것이 '인자'(인성)에게 돌려져 있습니다.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하셨느니라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 교훈과 이단 배격:

(1) 이 속성 교환의 이해는 구속 사역의 효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인성의 행위)이 무한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신성)의 인격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요일 3:16)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리스도 인격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것이 마땅하니라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이 교리는 신성을 부정하는 에비온주의나 인성을 부정하는 가현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는 네스토리우스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성과 양성 고유의 행위 원칙은 그리스도의 신비롭고 완전한 중보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제8항: 그리스도의 적용적 중보와 구원의 확실성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요 6:37,39; 10:15,16),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요일2:1,2; 롬8:34), 말씀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요15:13,15; 엡1:7-9; 요17:6),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관하시고(요14:6; 히12:2; 고후4:13; 롬8:9,14; 15:18,19; 요17:17),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

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시110:1; 고전15:25,26; 말4:2,3; 골2:15).'

1. 구속의 확실한 적용과 중보 사역:

가. 확실하고 효과적인 적용:

(1)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가 택함 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효력을 발휘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구속의 취득)이 구원의 적용(구속의 전달)과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7, 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모든 혜택을 확실하게 받으며, 그들의 구원이 효과 있게 성취됨을 보증합니다.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 대언(代言)과 계시의 직무:

(1)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구속의 적용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가 승천 후에도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Intercession)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代言者)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요일 2:1)이며, 이는 성도의 구원의 안전과 견인을 보장합니다.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 또한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라는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5)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조명하십니다.

[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2. 구원의 적용 방식과 승리:

가. 성령을 통한 효과적인 설복:

(1) 구원의 적용은 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이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원하여 믿고 순종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나아가 그리스도는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관하시고' 곧 성화(Sanctification)를 이루십니다. '관하시고'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내면을 다스리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 안에서 성장시키십니다.

[요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

(1)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중보 사역은 성도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라고 선언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들은 사탄, 사망, 그리고 죄의 권세를 포함합니다.

(2) 이 승리는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강조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시 110:1) "저희를 발아래 둘 때까지"(고전 15:25) 통치하시며, 그분의 섭리는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한 방식으로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합니다(말 4:2, 3; 골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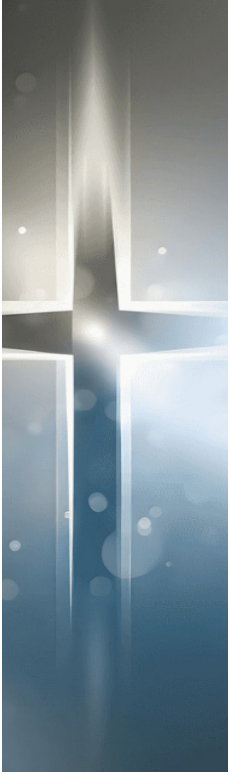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시 11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고전 15:25]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골 2:15]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9 장

/

자유의지에 관하여

제 9 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타락 전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가 있었으나, 타락 이후에는 영적인 선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해져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소원이 회복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완전한 의지의 회복은 천국에서 영광의 상태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제1항: 의지의 선천적 자유와 강요의 부재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마17:12; 약1:14; 신30:19).'

1. 인간 의지의 선천적 자유와 그 본질:

가. 의지의 자유와 하나님의 부여: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인간의 자유 의지(Free Will)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선언합니다. '선천적 자유'란 인간의 의지가 외적 강제나 내적 필연성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만,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주체임을 확립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전치 못하니 저가 너희 마음의 강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마 17:12, (개역한글 성경에 해당하는 구절은 마 19:8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와 같은 문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앙고백서 원문은 마 17:12의 '엘리야도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임

[마 17: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마 19:8]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의로 대우하였도다'는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권을 시사합니다.

나. 강요와 필연의 부재:

(1) 이 자유의지의 핵심은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외부의 강압적인 힘(강요)이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결정(절대적인 필연)에 의해 미리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택이며,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선택한 주체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야고보 사도는 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약 1:14)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인간 내부의 자발적인 '욕심'과 '미혹'에 의해 시작되며, 인간 의지의 자발적인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죄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2.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언약적 관계의 기초:

(1)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조건인 '순종'은 아담의 자유 의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고 경고하셨을 때, 아담에게는 먹지 않을 자유와 먹을 자유가 모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라고 명령하셨듯이,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언약 관계를 수립하셨습니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신 30:19]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 이처럼 자유 의지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 그리고 약속의 모든 의미를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만약 인간이 강요나 필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면, 책임이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나. 영적인 책임과 교훈:

(1) 이 교훈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를 선택하는 데는 자

유롭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참된 선(영적 선)을 선택하는 데는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다음 항에서 다루어짐). 그러나 이 무능력함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인간을 면제시키지는 못합니다.

(2)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선천적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속받은 새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사용해야 할 영적 의무를 배웁니다.

제2항: 무죄한 상태에서의 인간의 의지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전7:29; 창1:26),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창2:16,17;3:6).'

1. 무죄 상태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능력

가. 선을 행할 자유와 능력:

(1) 신앙고백서는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라고 명시합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죄의 오염이 없는 '무죄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善)을 원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전 7:29)라는 말씀처럼, 아담은 창조 시 하나님의 형상(창 1:26)을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했으며,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전 7: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 의지의 도덕적 완전성:

(1) 무죄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을 향해 온전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지의 도덕적 완전성을 의미하며, 악을 행하려는 내적 충동이나 왜곡된 경향이 전혀 없었음을 뜻합니다.

(2) 아담의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심으로써, 그의 순종이 진정한 의미의 윤리적 가치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2. 무죄 상태의 한계와 타락 가능성

가. 가변성(Mutability)과 타락 가능성:

(1) 그러나 아담의 자유 의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가변적(Mutability)'이란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며,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posse non peccare)은 가졌으나, 동시에 죄를 지을 가능성(posse peccare) 또한 내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 이 가변성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창 2:16, 17)을 받았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실제로 타락 사건(창 3:6)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나. 가변성의 의미와 언약적 시험: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 이 가변성은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변적(Immutable)이시며,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능력(non posse peccare)을 소유하십니다. 아담의 상태는 완전한 영광의 상태(영화)가 아닌, 시험을 통한 완성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였습니다.

(2) 하나님은 이 가변적인 자유 의지를 통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불가변적인 의의 상태(영생)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제3항: 타락한 인간 의지의 무능력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롬5:6; 8:7; 요15:5).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롬3:10,12),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엡2:1,5; 골2:13),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요6:44,65; 엡2:2-5; 고전2:14; 딛3:3-5).'

1.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의 완전한 상실:

가. 의지력의 완전한 상실:

(1) 신앙고백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선언하며, 타락한 인간의 자유 의지의 상태를 규정합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파괴되어 선택 능력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행할 능력과 경향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의 전적 무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일반적인 도덕적, 사회적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선이 아닙니다.

(2)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롬 5:6)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영적 무능력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즉 의지력의 상실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요"(롬 8:7)라는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며, 선을 행할 의지뿐 아니라 능력까지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할수도없음이라

나. 영적 선에 대한 전적인 싫어함과 죽은 상태:

(1) 이 의지의 상실은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타락으로 인해 그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을 거부하고 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편과 로마서를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 12)라고 하신 것은, 자연인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싫어하는' 부패한 상태임을 확증합니다.

[롬 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2]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 인간의 상태는 단순히 병들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를 살리셨도다"(엡 2:1, 5)라고 상기시키고, 골로새서에서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골 2:13)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듯이, 죄로 죽은 자연인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엡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골 2:13]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2. 구원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 회개에 대한 스스로의 무능력:

(1) 이처럼 죽어 있는 상태이기에, 자연인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회개(Repentance)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지만, 이마저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를 중립적으로 보는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을 배격하고,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2)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

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요 6:44, 65)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이 예수님께 나아가 믿고 회개하는 행위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 즉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고전 2:14)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 6:65]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나.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교훈:

(1) 이 교리는 구원의 전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Sola Gratia)는 진리를 확립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 2:3) 죄를 행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엡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한 자요"(딛 3:3-5)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에 대해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딛 3: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중생 사역이라는 외적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딛 3: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제4항: 은혜로 거듭난 상태에서의 의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골1:13; 요8:3 4,36).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빌2:13; 롬6:18,22). 그렇지만 그의 남아 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갈5:17; 롬7:15,18,19,21,23).'

1. 은혜를 통한 의지의 회복과 자유:

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설명하며, 중생(Regeneration)을 통한

의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언합니다. 이전 타락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제9장 3항). 그러나 회개와 '은혜의 상태'로의 옮겨짐을 통해, 성도는 죄의 지배적인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2) 이 해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취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 1:13)라는 말씀처럼, 성도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36)고 말씀하심으로써, 거듭난 의지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골 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 선을 향한 자유로운 결심:

(1) 이 해방의 결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중생을 통해 새 마음과 새 본성(New Nature)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선을 원하고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2) 이 선을 향한 '자유로운 결심'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라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소원과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 거듭난 의지의 불완전성과 잔존죄:

가. 부분적인 악함의 결심:

(1) 그러나 이 거듭난 의지의 자유는 '그렇지만 그의 남아 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고 고백됩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에게 여전히 죄의 찌꺼기, 즉 잔존죄(殘存罪)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 불완전함 때문에 성도는 내적으로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 7:19)라는 바울의 탄식처럼, 성도는 선을 원하면서도 '악한 것을 또한 결심' 하려는 경향과 싸워야 합니다.

[롬 7:19]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나. 의지적 갈등의 근원:

(1) 이 내적 갈등의 근원은 '남아 있는 부패'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는 말씀처럼,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충돌하면서 의지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합니다.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 이 사실은 성도에게 겸손과 끊임없는 경성을 요구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선한 것만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는 영화(Glorification)의 단계에서야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제5항: 영화(榮化) 상태에서의 의지의 완전한 자유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 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엡4:13; 히12:23; 요일

3:2; 유24).'

1. 의지의 완전한 자유와 영화의 상태:

가. 의지의 최종적 완성:

(1)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의지가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 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영광의 상태(State of Glory)'는 성도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하여 얻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단계, 즉 영화(Glorification)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의지는 타락 이전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Posse Non Peccare)를 넘어,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Non Posse Peccare), 즉 완전하고 영속적인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2)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상태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성도의 의지와 본성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완전히 일치하게 되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선만을 추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나. 한결같은 선의 행함:

(1) 영화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가 '한결 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경향성, 즉 잔존하는 부패(Remains of Corruption)마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지만, 영광의 상태에 이르면 "오직 의인의 영들"(히 12:23)로서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 죄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히 12: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 요한 사도는 성도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의 완전한 변화를 약속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와 같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덕적 거룩함에 참여함을 뜻하며, 이는 의지의 완전한 해방을 포함합니다.

[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2.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구원의 보존과 최종적 승리:

(1) 이 교리는 성도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보존될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유 24) 능력이 있으십니다. 영화의 상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도의 의지까지 완전히 회복되어 구원의 목적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 1: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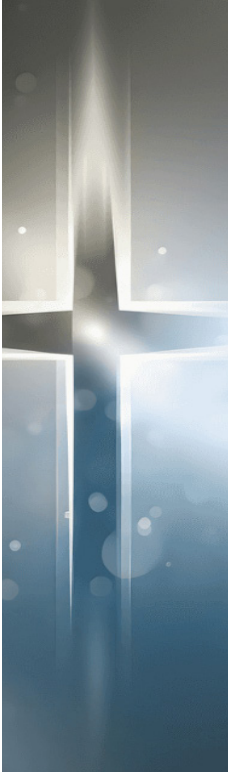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2) 구원받은 의지는 아담이 타락 이전에 가졌던 선택의 자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누립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영화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원한 자유를 누립니다.

나. 영적인 위로와 소망:

(1) 이 교훈은 현재의 성도들의 싸움에 대한 위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고통과 불완전함 속에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장차 도래할 '영광의 상태'에서는 완전한 자유와 완벽한 거룩함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불완전한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완전한 영화(Glorification)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10 장

/

효과적인
소명에 관하여

제 10 장 효과적인 소명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0장 효과적인 소명에 관하여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들을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복음에 기쁘게 응답하게 만드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는 인간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인도됩니다.

제1항: 효과적인 소명의 정의와 방편 및 사역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롬8:30; 11:7; 엡1:10,11),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살2:13; 고후3:3,6),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로 인도하

신다(롬8:2; 엡2:1-5; 딤후1:9,10).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행26:18; 고전2:10,12; 엡1:17,18),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겔36:26),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겔11:19; 빌2:13; 신30:6; 겔36:27),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엡1:9; 요6:44,45).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신이다(즉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다)(아1:4; 시110:3; 요6:37; 롬 6:16-18).'

1. 효과적인 소명의 주권적 기원과 외적 방편:

가. 예정에 근거한 주권적 부르심:

(1) 신앙고백서는 효과적인 소명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소명이 우연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Election)에 근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시

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이 일을 행하시며, 이는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확증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롬 8:30)라고 선언하며, 예정과 소명과 칭의가 연결된 구원의 황금 사슬을 보여줍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이 소명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선포라는 외적 방편과 성령의 내적 역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소명은 '효과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소명의 핵심 수단임을 증명합니다.

[살후 2:13]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나. 죄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의 이동:

(1) 소명의 일차적 목적은 죄인을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로 인도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으나(엡 2:1-5), 하나님의 효

[엡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롬 8:2)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2)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에 따른 것이며,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고 가르치며, 소명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밝힙니다.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2. 전인격적인 내적 변화의 사역:

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갱신:

(1) 성령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지적인 조명을 베푸십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눈을 뜨게 하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행 26:18) 하십니다.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 통달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고전 2:10, 12).

[행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기업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2)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감성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 36:26)라는 말씀이 소명의 과정에서 실재화 됩니다. 나아가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라고 고백하며, 선한 의지의 발동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증합니다.

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것이며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 그리스도께로의 효과적인 이끄심과 자발성:

(1) 하나님은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요 6:44)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끄심은 인간의 거부를 이겨내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2) 그러나 이 이끄심은 기계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신다'.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에 반응하게 하시므로, 성도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시 110:3)하게 됩니다. 즉,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은혜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소명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해방하여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은혜의 신비임을 보여줍니다.

[시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2항: 유효한 부르심의 전적인 은혜성과 인간의 수동성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딤후1:9; 딛3:4,5; 엡2:4,5,8,9; 롬9:11).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

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고전2:14; 롬8:7; 엡2:5),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요6:37; 겔36:27; 요5:25).'

1. 부르심의 주권적 은혜와 무조건성

가. 값없는 특별한 은혜:

(1) 신앙고백서는 유효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부르심의 근거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자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딤후 1:9)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하심이라

(2) 이 은혜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딛 3:5)고 증언함으로써, 부르심의 은혜성을 확증합니다.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하셨나니

나. 무조건적 선택과 부르심:

(1) 유효한 부르심은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됩니다. 이는 이른바 '예견된 믿음'이나 인간의 선한 반응을 조건으로 부르신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 무조건적(Unconditional)인 것입니다.

(2)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롬 9:11)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은 인간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2. 인간의 수동성과 성령을 통한 능동적 응답

가. 중생 이전의 전적 수동성:

(1) 부르심의 과정에서 인간의 상태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엡 2:1, 5)은 스스로를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며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고전 2:14).

(2) 따라서 부르심의 첫 순간, 즉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 단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부여받는 중생의 신비로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특징입니다.

[엡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나. 중생 이후의 자발적 응답:

(1)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려 새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2) 소생한 영혼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요 6:37)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받은 자(겔 36:27)는 이제 능동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초청에 응답합니다. 이처럼 유효한 부르심은 인간의 죽은 의지를 살려,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아오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겔 36: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제3항: 특별한 대상들에 대한 효과적인 소명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 하신다(요3:8; 눅18:15,16; 행2:38,39; 요3:3,5; 요일5:12; 롬8:9).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요일 5:12; 행4:12).'

1. 택함 받은 영아의 구원과 성령의 주권적 역사:

가. 영아 구원의 근거와 성령의 역사:

(1) 신앙고백서는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영아들이 복음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거나 고백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택하심에 근거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께서는 이들에게도 직접 역사하시어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적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눅 18:15-16)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린 아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눅 18:15]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눅 18:16]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2)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통상적인 말씀의 선포라는 수단 외에도,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를 통해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 3: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나. 중생의 필수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

(1) 영아일지라도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의 오염 아래 있기에, 반드시 '중생(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5)고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아 구원 역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기초합니다.

(2) 구원의 원리는 영아나 성인이나 동일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는 말씀처럼, 영아들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없느니라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니라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2.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섭리:

가. 말씀 전도의 예외적 상황과 구원의 보편적 원리:

(1) 신앙고백서는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덧

붙입니다. 이는 지적 장애인이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특수한 상황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말씀 선포에 반응할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은 성령의 신비로운 직접 사역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가르침은 결코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그 방법은 인간이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그들이 처한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통로:

(1) 비록 구원의 '수단'이 비상할지라도,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는 선언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태의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2) 이 교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택하심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신체적, 지적 한계에 갇히지 않는 광대하신 능력임을 찬양하게 합니다.

제4항: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와 구원의 유일성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마22:14),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마7:22; 13:20,21; 히6:4,5),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요6:64-66; 8:24).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행4:12; 요14:6; 엡2:12; 요4:22; 17:3).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증(可憎)된 일이다(요이9-11; 고전6:22; 갈1:6-8).'

1. 외적 부르심과 일반적 은총의 한계

가. 외적 부르심과 택함의 차이:

(1) 신앙고백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라고 명시하며, 복음의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외적 부르심(External Call)과 택자에게만 일어나는 내적·유효적 부르심을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고 하신 말씀은, 복음의 외적 선포가 반드시 구원적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 22: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나. 성령의 일반적 역사와 구원적 효력의 부재:

(1)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도덕적 변화, 혹은 초자연적인 은사 체험(마 7:22)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히 6:4-6)은 중생에 이르지 못한 채 외적

[히 6:4]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히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게 함이라

인 혜택만을 맛본 자들을 가리킵니다.

(2)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며'라고 선언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뿌리 없는 신앙(마 13:20, 21)과 같아서, 영혼의 근본적인 회심이 수반되지 않기에 결국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앙에 기초합니다(요 6:64-66).

2. 구원의 유일성과 종교 다원주의 배격

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1)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밖의 구원 가능성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구원이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마 13:20]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 13: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요 6: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요 6:65] 또 가라사대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 6: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나. 본성의 빛과 도덕적 노력의 무용성:

(1) 비기독교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강조됩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일반 계시(본성의 빛), 혹은 지극한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요 17:3; 엡 2:12).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3. 가증한 주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

가. 보편 구원론의 위험성과 정죄:

(1)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주 유해하며 가증(可憎)된 일'이라고 강력

히 규탄합니다. 이는 복음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2)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성도는 이러한 미혹에서 떠나 진리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다(요이 9-11).

[갈 1: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요이 1:9]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이 1: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이 1: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나. 복음의 절대적 가치 수호:

(1) 이 교리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성도는 세속적인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데레크 하예슈아>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11 장

/

칭의에 관하여

제 11 장 칭의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벽한 순종과 대속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입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얻습니다.

제1항: 칭의의 본질과 근거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리낌 없이 의롭게 하셨다(롬 8:30, 3:24).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보아서 의롭게 하셨다. 또는 신앙 자체나 믿는 행동이

나 그밖에 무슨 신앙적인 복종을 의로운 것으로 그들에게(롬 4:5-8, 고후 5:19, 21, 롬 3:22, 24-25, 27-28, 딛 3:5, 7, 엡1:7, 렘 23:6, 고전 1:30-31, 롬 5:17-19) 주입함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서 쉼을 얻고 그의 의를 얻게 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행 10:44, 갈 2:16, 빌 3:9, 행 13:38-39, 엡 2:7-8).'

1. 칭의의 법정적 성격과 부정적 전제:

가. 주입된 의가 아닌 선언된 의: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거리낌 없이 의롭게 하셨다'고 선언하며 칭의의 확고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칭의를 인간 내부의 도덕적 변화나 성질의 주입으로 보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배격하고, 칭의가 죄인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Forensic Declaration)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로운 성자로 변화시켜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

니라, 여전히 죄인인 자를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십니다.

(2) 칭의의 첫 번째 요소는 '죄를 용서하시고'입니다. 바울 사도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롬 4:7)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칭의가 죄의 전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고후 5:1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롬 4: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고후 5: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나. 인간적 공로의 전면적 배제:

(1) 칭의의 근거는 인간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보아서 의롭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신앙 자체나 믿는 행동'조차도 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행위가 칭의의 조건이나 공로가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5)라고 말하며, 칭의가 행위와

[롬 4:5]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완전히 대조됨을 강조합니다.

(2)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칭의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뿐입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 칭의의 유일한 근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가.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의 전가:

(1)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실제적인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Imputation)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복종(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수동적 복종(십자가에서의 형벌적 만족)이 죄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여호와 우리의 의"<예호바 치드케누>(렘 23:6)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렘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 바울은 이 원리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고후 5:21)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고전 1:30)이 되셨습니다.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전 1: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나. 도구로서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

(1) 인간은 이 의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은 칭의를 얻게 하는 도구적 원인(Instrumental Cause)일 뿐, 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쉼을 얻고 그의 의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9)고 고백합니다.

(2) 마지막으로, 이 믿음조차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소명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행 10:44) 칭의의 효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칭의의 전 과정에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 10:44]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제2항: 칭의의 유일한 도구인 믿음과 그 본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요 1:12, 롬 3:28, 5:1). 이 믿음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와 함께 있다. 이 믿음은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약 2:17, 22, 26, 갈 5:6).'

1. 칭의의 유일한 도구로서의 믿음

가. 오직 믿음(Sola Fide)의 원리:

(1)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라고 선언하며,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밝힙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공로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적 수단'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성경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8)고 명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요 1:12),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롬 5:1). 이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는 철저히 배제되며 오직 믿음만이 그 통로가 됩니다.

[롬 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 수동적 수용과 그리스도께 의지함:

(1) 이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는 철저히 배제되며 오직 '믿음'<에무나>만이 그 통로가 됩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과 같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자

신을 내던져 '의지하는 것'<베티하>을 의미합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창 15:6), 신약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의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2. 살아있는 믿음과 은혜의 연합

가. 구속적 은사들과의 동행:

(1) 참된 믿음의 성격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와 함께 있다'고 고백됩니다. 이는 칭의를 얻는 순간, 믿음과 더불어 회개, 소망, 사랑, 거룩함에 대한 열망 등 성령의 다른 모든 열매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 있으나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다른 구속적 은혜들을 함께 소유하게 되며, 이는 그가 참으로

거듭난 자임을 증거하는 내적인 표지가 됩니다.

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

(1) 신앙고백서는 믿음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약 2:17)은 칭의를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며, 특히 '사랑으로 역사'(갈 5:6)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갈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2) 야고보서의 가르침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약 2:26).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됩니다(약 2:22). 이것은 행위가 칭의의 근거라는 뜻이 아니라, 참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믿음은 반드시 그 생명력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 증명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제3항: 그리스도의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전부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의를 실제로, 충분히, 그리고 적합하게 만족시키셨다(롬 5:8-10, 19, 딤전 2:5-6, 히 10:10, 14, 단 9:24, 26, 사 53:4-6, 10-12).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고(롬 8:32),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이 그들의 복종과 만족을 대신해서 용납되었다(고후 5:21, 마 3:17, 엡 5:2). 이것은 그들 안에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용납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칭의는 온전히 자유로우신 은총에서 온 것이다(롬 3:24, 엡 1:7). 그리고 죄인들의 칭의 속에서 하나님의 엄밀한 의와 풍성한 은총은 더욱 빛난다(롬 3:26, 엡 2:7).'

1. 그리스도의 대속적 만족의 완전성:

가. 법적 채무의 청산과 의의 만족:

(1)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전부 갚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지고 있던 죄의 형벌이라는 '법적 부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전히 탕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빚의 일부를 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그리고 적합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적합한 만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

(2) 이사야 선지자는 이 대속 사역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사 53:5)라고 예언하였으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종'<휘파코에>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음을, 그분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성도는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

(1) 그리스도의 만족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고 증언하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4)고 확증합니다. 이는 구약의 반복되는 제사가 줄 수 없었던 완전한 사죄와 의롭다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히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2. 칭의에 나타난 공의와 은혜의 조화:

가. 하나님의 주권적 배려와 값없는 용납:

(1) 비록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으나, 그 사역이 죄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고백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의 복종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만족이 '용납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중보자를 세우시고, 죄인의 불완전한 행위 대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기로 작정하신 '은혜로운 배려'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들 안에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용납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고 고백하며, 칭의의 근거가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있음을 밝힙니다.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엄밀한 의와 풍성한 은총의 영광:

(1) 죄인의 칭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엄밀한 의와 풍성한 은총'이 동시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쏟으심으로 그분의 '엄밀한 의'를 지키셨으며, 동시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6)고 설명합니다.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는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을 영원한 찬양의 제목으로 삼게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죄인이 용서받는 지혜의 극치이며,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엡 2:7)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엡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제4항: 칭의의 영원한 작정과 역사적 적용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 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갈 3:8, 벧전 1:2, 19-20, 롬 8:30).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다(갈 4:4, 딤전 2:6, 롬 4:25). 그러나 성령이 인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하기 전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골 1:21-22, 갈 2:16, 딛 3:47).'

1. 영원한 작정과 구속의 성취

가. 칭의의 영원한 근거: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 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언하며, 칭의의 기원이 시간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Decree)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2)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음을 증언합니다(롬 8:30).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습니다(갈 3:8). 이 영원한 작정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구체화됩니다(벧전 1:2).

나. 그리스도의 구속적 성취:

(1) 영원한 작정은 역사 속에서 '때가 차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며(갈 4:4),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딤전 2:6).

(2) 특히 칭의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딤전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나타낼 증거니라

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는 말씀처럼, 죽음으로써 율법의 형벌을 만족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의 완전함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로써 칭의를 위한 객관적인 법적 토대가 역사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 성령을 통한 실제적 적용의 필연성

가. 적용 전의 상태와 실제적 칭의:

(1) 칭의의 근거가 영원 전에 마련되고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을지라도, '성령이 인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하기 전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작정과 성취가 곧 개인의 칭의 자체는 아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전까지 인간은 여전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골 1:21)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골 1: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 이는 객관적 성취와 주관적 적용의 구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작정이 있을지

라도, 성령의 '적용'<이슘> 사역을 통해 죄인 개개인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 은혜의 현현과 믿음의 수단:

(1) 실제적인 칭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딛 3:4-5). 사람이 의롭게 되는 실제적인 시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갈 2:16)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개인에게 전가될 때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비로소 그들을 의롭다 칭하십니다(딛 3:7). 이처럼 칭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취, 그리고 성령의 주권적인 적용이 삼위일체적으로 연합하여 완성되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딛 3: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딛 3:7]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5항: 의롭게 된 자의 죄와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

'하나님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마 6:12, 요일 1:7, 9, 2:1-2). 그들은 칭의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는 없으나(눅 22:32, 요 10:28, 히 10:14)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노(怒)를 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수가 없다(시 89:31-33, 51:7-12, 32:5, 마 26:75, 고전 11:30, 32, 눅 1:20).'

1. 칭의의 영속성과 지속적인 사죄:

가. 결코 상실되지 않는 칭의의 지위:

(1) 신앙고백서는 한 번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칭의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선언하며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실성을 확증합니다. 이는 칭의가 인간의 가변적인 도덕적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의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눅 22:32)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눅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가 없느니라"(요 10:28)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히 10:14)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이 확신이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고백은, 칭의 이후에도 성도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요일 1:9)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언자<파라클레토스>가 되심을 상기시킵니다(요일 2:1-2).

2.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와 회복의 길:

가. 부성적 진노와 친교의 단절:

(1) 성도가 죄를 범할 때, 법정적인 정죄는 당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노(怒)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장으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바른길로 인

[요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히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마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도하기 위해 베푸시는 징계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그들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시 89:31-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가벼이 여겼을 때 병들고 잠들게 된 사건(고전 11:30, 32)은 이러한 징계의 실례입니다.

[시 89:31]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 89:32]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고전 11:30]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전 11: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 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친교'를 가로막습니다. 징계 아래 있는 성도는 '회복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영적 침체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가랴가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된 것(눅 1:20)처럼,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만듭니다.

[눅 1:20]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나. 회개를 통한 영적 회복:

(1) 이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 한 후 침상이 젖도록 통회하며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

다"(시 32:5)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시 51:12)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2)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 26:75)고 한 것처럼, 참된 성도는 죄에 대해 아파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정죄 받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성도는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배우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 32: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 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 26: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6항: 신구약 시대 칭의의 통일성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이와 같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갈 3:9, 13-14, 롬 4:22-24, 히 13:8).'

1. 신구약 칭의의 본질적 일치

가. 동일한 칭의의 근거와 수단:

(1) 신앙고백서는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이와 같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시대에 따라 구원의 방법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신약 성도들이 은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며 '믿음'이라는 동일한 수단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2)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롬 4:22-24)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증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갈 3:9).

[롬 4:22]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롬 4:23]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것이아니요
[롬 4: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자니라

[갈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나. 행위가 아닌 은혜의 연속성:

(1) 구약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졌다는

오해는 불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갈 3:9).

(2) 칭의의 수단인 '믿음'<에무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 아래에서도 참된 신자들은 그 의식 자체가 아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갈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 시대를 초월한 중보자 그리스도

가. 약속된 메시아와 성취된 메시아:

(1)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성취된 메시아'를 믿습니다. 대상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단지 그분이 역사 속에 나타나시기 전과 후라는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14)라는 말씀처럼, 모든 시대 택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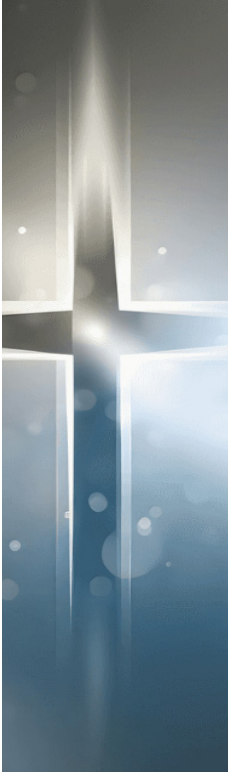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1) 이러한 칭의의 통일성이 가능한 근거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효력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그분의 의는 구약 시대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히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 결국 구약의 제사와 의식들은 그 자체로 죄를 씻는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로서 신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단 하나의 구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12 장

/

양자에 관하여

제 12 장 양자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2장 양자됨에 관하여 칭의를 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신분적 축복입니다.

제 12 장 양자에 관하여

제1항: 양자의 본질과 자녀의 특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엡 1:5, 갈 4:4-5).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즐기게 되었다(롬 8:17, 요

1:12).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 속에 넣고(렘 14:9, 고후 6:18, 계 3:12), 양자의 성령을 받고(롬 8:15),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엡 3:12, 롬 5:2),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갈 4:6),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시 103:13), 보호를 받으며(잠 14:26),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 받으며(마 6:30, 32, 벧전 5:7), 자기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히 12:6).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애 3:31)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엡 4:30),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벧전 1:3-4, 히 1:14) 약속을 받는다(히 1:14).'

1. 양자의 기원과 법적 지위의 변화

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입양: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칭의(Justification)가 법정에서 죄인의 죄책을 면해주는 선언이라면, '양자'<이무츠>는 그 의롭게 된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관계적이고 법적인 전환입니다.

(2) 이 모든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라고 증언하며 구속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가족을 얻는 데 있음을 밝힙니다.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 신분의 변화와 권세의 부여:

(1) 양자가 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이는 이전의 진노의 자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2)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고 선언하며, 이 지위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세'<엑수시아>임을 확증합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특권

가. 영적인 자유와 친밀한 관계:

(1) 양자 된 자들은 '양자의 성령'<루아흐 하이무츠>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며,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롬 8:15, 갈 4:6).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 4:6]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2) 또한 성도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2)고 말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담대함을 강조합니다.

[엡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 부성적 돌보심과 징계:

(1)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심과 보호와 공급'을 통해 채워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시 103:13), 환난 날에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잠 14:26).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

[시 103:13]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잠 14:2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마 6:30, 32)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2) 참된 자녀의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히 12:6)라고 말씀하며, 징계가 곧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참 아들임을 증명하는 은혜의 방편임을 가르칩니다.

[마 6: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자들아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아시느니라

[히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3. 영원한 보존과 상속의 약속

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1)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선포하듯이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애 3:31),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엡 4:30).

[애 3:31]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나.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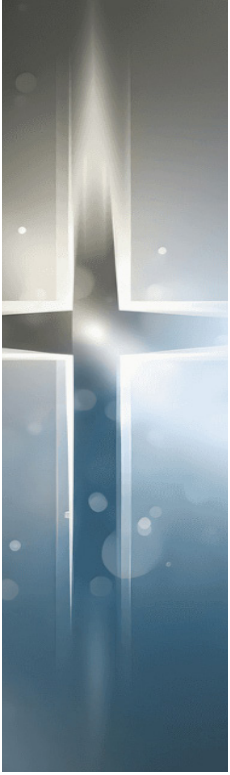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1)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요레쉬 게울라>가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롬 8:17).

(2) 베드로는 이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벧전 1:3-4)이라고 찬양하며, 천사들조차 부러워하며 수종드는(히 1:14) 이 영광스러운 상속의 약속이 모든 양자 된 성도들의 것임을 확증합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벧전 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히 1: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13 장

/

성화에 관하여

제 13 장 성화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거듭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실제로 거룩해져 갑니다. 죄의 세력은 꺾이고 거룩한 성품이 자라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 성령과 육체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진행되며,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1항: 성화의 정의와 실재적 사역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므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고전 6:11, 행 20:32, 빌 3:10, 롬 6:5-6)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요 17:17, 엡 5:26, 살후 2:13)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사람

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롬 6:6, 14),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갈 5:24, 롬 8:13)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골 1:11, 엡 3:1-19)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후 7:1, 히 12:14).'

1. 성화의 근거와 주체적 사역:

가. 중생에 기초한 실제적 변화:

(1) 신앙고백서는 성화의 대상을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므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로 한정합니다. 이는 성화가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중생(Regeneration)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칭의가 법정적인 신분의 변화라면, 성화(Sanctification)는 중생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의 변화입니다.

(2) 성화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

함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5)고 선언하며, 성화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실제적 성화:

(1) 성화의 외적 방편은 '말씀'이며, 내적 주체는 '성령'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살후 2:13)이라고 설명합니다.

[요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살후 2:13]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2) 성화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성도의 전 인격이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며, 성도 자신이 거룩함을 향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변화됨을 뜻합니다.

2. 죄의 죽임과 거룩한 삶의 증진:

가. 죄의 권세 파괴와 정욕의 소멸:

(1) 성화의 부정적 측면은 '죄의 죽임(Mortification)'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죄는 성도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롬 6:14). 비록 죄의 실재는 남아있으나, 그 법적·실제적 지배력은 꺾였습니다.

[롬 6: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2) 또한 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 갑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며(갈 5:16),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이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전 과정을 통해 '점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 거룩한 행실의 실천과 필수성:

(1) 성화의 긍정적 측면은 '거룩한 살림(Vivification)'입니다. 성도는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골 1:11) 기도하며, 성화가 영적인 힘의 증진을 동반함을 보여줍니다.

[골 1:11]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2)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는 성화의 필수성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고 명시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며(빌 2:12), 자신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케 해야 합니다(고후 7:1).

[히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는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후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하자

제2항: 성화의 범위와 잔존죄로 인한 내적 갈등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살전 5:23),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요일 1:10, 롬 7:18, 23, 빌 3:12).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을 거스른다(갈 5:17, 벧전 2:11).'

1. 성화의 포괄적 성격과 현세적 한계

가. 전인격적인 성화의 사역:

(1) 신앙고백서는 성화의 범위가 인간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인격(全人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영혼의 모든 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2)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고 기도한 것은 성화의 포괄성을 잘 보여줍니다.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나. 이생에서의 불완전성과 잔존죄:

(1) 그러나 이러한 성화는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는 신학적 실재를 직시해야 합니다. 성도는 중생을 통해 죄의 지배력에서는 벗어났으나, 죄의 실재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앙고백서는 그 원인을 '모든 부분에서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잔존죄(殘存罪)는 영혼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어, 성도가 완전히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요일 1:10)라고 경고하며,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인정하게 합니다. 바울 역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롬 7:18)라고 고백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신이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님을 밝히며 푯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말합니다(빌 3:12).

[요일 1: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롬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빌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2. 내적인 영적 전쟁: 육체와 성령의 대립

가. 화해할 수 없는 싸움:

(1) 잔존하는 부패성으로 인해 성도의 내면에는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전히 죄를 향하려는 옛 본성 사이의 충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고 권면하며, 이 전쟁이 성도의 신앙생활 내내 지속되는 실제적인 전투임을 강조합니다.

[벧전 2:11] 사랑하는 자들아 나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 성령과 육체의 상호 대적:

(1) 이 전쟁의 구체적인 양상은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을 거스른다'는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는 말씀처럼,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두 원리가 공존하며 투쟁합니다.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 이러한 갈등은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싸우지

않으나,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내면의 부패에 반응하며 괴로워하고 승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생에서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3항: 성화의 투쟁과 최후 승리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 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하나(롬 7:23),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으므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롬 6:14, 요일 5:4, 엡 4:15-16).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벧후 3:18, 고후 3:18)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고후 7:1).'

1. 영적 전쟁의 현실과 은혜의 보충:

가. 부패한 성품의 일시적 우세와 탄식:

(1) 신앙고백서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의 내면을 영적인 전쟁터로 묘사하며, '남아 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할 수 있음'

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에, 때때로 죄의 유혹에 굴복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처절한 내면의 갈등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 7:23)라고 토로하며, 죄의 잔재가 가진 강력한 힘을 경고합니다.

[롬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패배가 성도의 구원이나 성화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구속사적인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싸움을 통해 자기 의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나. 성령의 보충과 중생한 부분의 승리:

(1)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이로 인해 '중생을 입은

부분', 즉 새 사람의 원리가 결국 죄의 세력을 누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롬 6:14)고 선언하며, 성화의 승리가 하나님의 법적 권위와 은혜의 통치 아래 확증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2) 요한 사도는 이 승리의 비결이 믿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성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엡 4:15-16)는 말씀대로, 지체 간의 유기적 관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롬 6: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요일 5: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 은혜 안에서의 장성과 거룩함의 완성:

가. 영적 성장과 변화의 신비:

(1) 성화의 최종 목적지는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장성(Growth)'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벧후 3:18)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화가 단번에 끝

[벧후 3: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

나는 정적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과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깊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2) 성도는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바라봄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는 신비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외모나 성격의 개선을 넘어,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 회복'의 과정입니다.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함의 온전케 함:

(1) 성화의 실천적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이 결합된 경외심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좇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하라"(고후 7:1)고 권고하며, 이 과정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는 성도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고후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2) 비록 이 땅에서는 거룩함이 완전함(Perfection)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의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합니다. 이 거룩함의 완성은 성도의 평생의 소원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 이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14 장

/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제 14 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함은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께서 택하신 자의 마음에서 일으키시는 선물입니다. 성도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진리로 믿으며, 특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 전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며,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제1항: 믿음의 기원과 성장의 방편

'믿음의 은사는 그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고후 4:13, 엡 1:17-19, 2:8).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다(히 10:39). 그것은 보통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한다(롬 10:14, 17). 또한 성례를 집행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증가되고 강화된다(벧전 2:2, 행

20:32, 롬 4:11, 눅 17:5, 롬 1:16-17).'

1. 믿음의 신적 기원과 목적

가.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

(1) 신앙고백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인간의 지적 동의나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는 말씀은 믿음의 주권적 기원을 확증합니다.

(2)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마음'<루아흐 하에무나>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기초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고후 4:13)라고 고백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심을 강조합니다(엡 1:17-19).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후 4:13] 기록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엡 1: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엡 1: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 구원의 목적과 믿음의 효력:

(1) 이 믿음의 목적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히 10:39)가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통로입니다.

[히 10: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2. 믿음의 발생과 성장의 방편

가. 말씀 전파를 통한 믿음의 발생:

(1)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실 때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고 '보통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통상적인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는 말씀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도구 삼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 10:14).

[롬 10: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 은혜의 수단을 통한 믿음의 강화:

(1) 한번 발생한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를 위한 방편으로 '성례'와 '기도'를 제시합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침이며(롬 4:11),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통로입니다(눅 17:5).

[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눅 17: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2) 또한 거듭난 성도는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벧전 2:2)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며(행 20:32),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롬 1:16-17) 함으로써 성도의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만듭니다.

[벧전 2:2]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행 20: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제2항: 믿음의 행위와 그 핵심적 역할

'이 믿음으로 신자는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요 4:42, 살전 2:13, 요일 5:10, 행 22:14). 그리고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역사한다. 때로는 계명에 복종하고(롬 16:26) 때로는 경고에 대하여 두려워한다(사 66:2). 그래서 이생이나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히 11:11, 딤전 4:8).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요 역할은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의 약속의 힘으로(요 1:12, 행 16:31, 갈 2:20, 행 15:11)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안에 쉬게 하는 것이다.'

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다각적인 역사:

가. 하나님의 권능에 기초한 말씀의 수용:

(1) 신앙고백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무오한 계시임을 확신하

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기록된 말씀의 배후에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살전 2:13)고 칭찬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살전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2)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요일 5:10)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외부의 증거뿐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요 4:42)는 고백이 신자의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요일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 4: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나. 말씀의 성격에 따른 믿음의 다양한 반응:

(1) 참된 믿음은 말씀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역동적인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

격에 따라 그에 합당한 반응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 앞에서는 순종의 모양으로 나타나며(롬 16:26),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사 66: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이는 '이생이나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단산한 줄 알고도 잉태할 힘을 얻은 것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히 11:11) 때문입니다. 바울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전 4:8)고 가르치며, 믿음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복을 수용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2. 믿음의 핵심적 사역: 그리스도에의 영접과 안식:

가. 그리스도만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1) 믿음이 다각도로 역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요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됩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

[롬 16:26]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사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세상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히 11: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줄 알았음이라

[딤전 4: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안에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하며, 다른 어떤 공로나 수단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 중심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2)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핵심적 행위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선포하며,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행 16: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나. 은혜의 약속과 영혼의 안식:

(1)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의 힘'에 근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행 15:11)고 고백하며, 믿음이 은혜라는 기초 위에 서 있음을 밝힙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행 15:11]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갈 2:20).

(2) 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Resting)'입니다. 이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모든 율법적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 위에 영혼을 의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쉼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가 누리는 평강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3항: 믿음의 변동성과 궁극적 승리 및 장성

'이 신앙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히 5:13-14, 롬 4:19-20, 마 6:30, 8:10).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눅 22:31-32, 엡 6:16, 요일 5:45).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을 얻는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성한다(히 6:11-12, 10:22, 골 2:2).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시요 완성자시다(히 12:2).'

1. 믿음의 가변성과 시련 속의 보호

가. 믿음의 정도와 상태의 다양성:

(1) 신앙고백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가 고정적이지 않고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는 실제적인 영적 현실을 가르칩니다. 이는 믿음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처한 환경이나 영적 훈련의 정도에 따라 그 '분량'<미다>이나 확신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성경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히 5:13-14)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롬 4:19-20)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적은 믿음'<올리고피스토스>(마 6:30)를 책망하시기도 하셨으나, 백부장의 '큰 믿음'(마 8:10)을 보시고 기이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나. 영적 공격과 궁극적 승리:

(1) 참된 믿음은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하여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밀까부르듯 성도를 시험하며(눅 22:31), 불화

[히 5:13]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 5: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롬 4: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20] 믿음에 의심치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 6: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자들아

[마 8:10]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눅 22: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

살을 쏘아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엡 6:16). 이러한 시련의 때에 성도의 믿음은 쇠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성도는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성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입니다(눅 22:32).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5)는 말씀처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효한 병기이며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2. 믿음의 성숙과 그리스도의 주권적 역사

가. 장성과 온전한 확신에 이름:

(1) 믿음은 정체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확신을 얻는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성'해 나갑니다. 신앙고백서는 성도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히 6:11-12),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확신에

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눅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요일 5: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히 6: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 6: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골 2:2).

(2) 이러한 장성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히 10:22)을 목표로 합니다. 신자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더 풍성한 확신과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1) 믿음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종결의 주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시요 완성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조성자'<아르케고스>는 믿음의 길을 여시고 시작하신 분이라는 의미이며, '완성자'<텔레이오테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여 목표 지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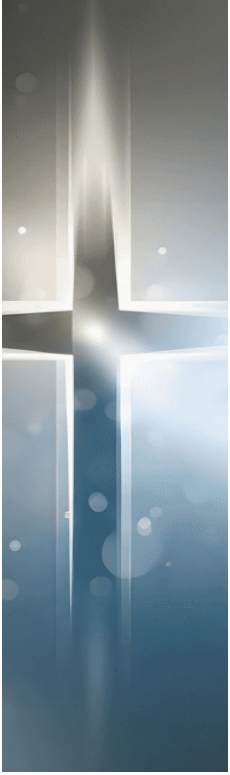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2)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강약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기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할 때, 성도는 비로소 요동치 않는 평안과 성숙에 이

[골 2:2]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를 수 있습니다.



15 장

/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제 15 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회개는 복음이 주는 은혜로운 열매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인지 깨달아 슬퍼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하여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 사함의 근거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1항: 회개의 기원과 설교의 필수성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슥 12:10, 행 11:18).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설교해야 한다(눅 24:27, 막 1:15, 행 20:21).'

1.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신성한 기원

가. 복음의 은혜로서의 회개:

(1) 신앙고백서는 회개를 인간의 자발적인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회개가 인간의 본성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영적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단순한 후회를 넘어, 죄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중생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2)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임할 은혜를 예언하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바카> (슥 12:10)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회개의 반응입니다.

[슥 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회개:

(1) 초대 교회 성도들 역시 이방인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행 11:18)라고 고백하며, 회개

[행 11:1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했습니다.

(2)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만지셔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권적 역사입니다.

2. 회개 교리의 필수적 전파

가. 믿음과 회개의 불가분성:

(1) 신앙고백서는 모든 전도자가 회개의 교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설교해야 한다'고 엄중히 명령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고, 믿음 없는 회개는 복음적 소망이 없는 절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관문이자 신앙생활의 지속적인 토대입니다.

[막 1: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나. 사도적 사역의 핵심인 회개 증거:

(1)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눅 24:47)을 명하셨습니다.

[눅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2)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행 20:21)이라고 말함으로써, 회개 설교가 복음 전파의 핵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행 20: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그리스도 중심적 회개:

(1) 회개는 단순히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돌아오라"<슈브>는 외침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완성됩니다.

(2) 구속사적 관점에서 회개는 아담 안에서 하나

님을 떠난 인류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 은혜로의 초대와 삶의 변화:

(1) 회개를 단지 '죄를 짓지 말라'는 도덕적 훈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이며(롬 2:4), 죄인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2) 성도는 날마다 이 은혜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자의 참된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2항: 참된 회개의 본질과 과정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

지게 되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겔 18 : 30-31, 36:31, 사 30:22, 시 51:4, 렘 31:18-19, 욜 2:12-13, 암 5:15, 시 119 : 128, 고후 7:11).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시 119:6, 59, 106, 눅 1:6, 왕하 23:25).'

1. 죄에 대한 자각과 신앙적 태도의 변화

가. 죄의 본질에 대한 영적 통찰:

(1)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단순한 후회를 넘어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각과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신앙고백서는 회개하는 자가 죄를 단순히 '무서운 것'(형벌에 대한 공포)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죄가 인간의 전인격을 오염시켰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사 30:22, 겔 36:31).

[사 30: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겔 36: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2) 무엇보다 회개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

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 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시 51: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 그리스도 안의 자비와 죄에 대한 미워함:

(1) 참된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없는 후회는 유다의 후회처럼 파멸에 이르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는 회개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욜 2:12-13).

[욜 2:12]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욜 2:13] 너희는 옷을 입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2) 이 자비의 빛 아래서 죄인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고후 7:11) 모든 불의를 미워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시 119:128, 암 5:15).

[고후 7: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었느니라

2. 회개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방향

가. 전인격적인 돌이킴:

(1) 회개의 구체적인 결과는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겔 18:30)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적극적인 회심을 의미합니다(렘 31:18-19).

(2) 성경적 회개의 본질은 '돌이킴'<슈브>에 있습니다. 과거에 사랑하던 죄를 등지고, 과거에 멀리하던 하나님을 향해 전인격적으로 유턴(U-turn)하는 것이며, 이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발걸음의 변화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나. 순종을 향한 목적과 노력:

(1) 회개한 자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회개한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으로

[시 119:128]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암 5: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찌어다 만군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겔 18:3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국문할찌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찌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렘 31:18]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렘 31:19]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서의 순종입니다.

(2) 성도는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자기 행위를 살피고 주의 증거들로 발길을 돌립니다(시 119:59).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행한 것처럼(왕하 23:25), 참된 회개는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시 119:6)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시 119:106).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부끄럽고 수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시 119:59]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걸음을 돌이켰사오며

[왕하 23:25]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시 119:6]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시 119:106]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제3항: 회개의 성격과 사죄의 유일한 근거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겔 36:31-32, 16:61-63).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이다(호 14:2, 4, 롬 3:24, 엡 1:7).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눅 13:3, 5, 행 17:30-31).'

1. 회개의 비공로성과 사죄의 참된 근거:

가. 만족이나 원인이 될 수 없는 회개:

(1) 신앙고백서는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죄인이 흘리는 눈물이나 뉘우침 자체가 죄의 값을 치르는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후에야 그들이 자기의 악한 길을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겔 36:31-32)고 선포합니다. 즉, 회개는 용서의 공로적 원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겔 36: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겔 36: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찌어다

(2) 회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만약 회개가 사죄의 원인이 된다면, 인간은 자신의 후회와 애통을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를 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 모든 행한 일을 사하여 주십니다(겔 16:61-

[겔 16:61]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겔 16:62]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나를 여호와인줄 너게 알게 하리니
[겔 16:63]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사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복구하여 다시는 교만하여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63).

나. 그리스도 안의 자유로운 은혜:

(1) 죄를 용서해 주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입니다. 죄의 값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지불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호 14:2, 4)라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고치심과 사랑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총에서 비롯됩니다.

[호 14: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의 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리이다

[호 14:4]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2)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고 선언하며, 사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임을 확증합니다(엡 1:7).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2. 사죄를 위한 회개의 필수성:

가.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불회개:

(1) 회개가 사죄의 공로는 아닐지라도,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동시에 강조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죄를 베푸시는 영적 질서 안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방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사죄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5)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회개는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눅 13: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눅 13: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나. 모든 사람에게 명하신 회개:

(1)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행 17:30)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회개가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정하

[행 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입니다(행 17:31).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회개는 아담의 교만으로 인해 돌아섰던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창조주를 향하는 인격적인 회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회개 행위를 신뢰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복음적 회개'를 통해 날마다 사죄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제4항: 죄의 정죄력과 회개의 사죄적 효력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롬 6:23, 5:12, 마 12:36)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사 55:7, 롬 8:1, 사 1:16, 18).'

1. 죄의 보편적 정죄성과 엄중함

가. 모든 죄에 담긴 사망의 형벌:

(1) 신앙고백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

는데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임을 천명하며 죄의 엄중함을 일깨웁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죄의 경중을 나눌 수 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그분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선언은 예외 없는 법적 판결입니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롬 5:12),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마 12:36)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세밀하고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 12: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나. 하나님의 무오한 공의의 기준:

(1) 하나님의 율법은 일점일획도 타협이 없는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조차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2) 이러한 '정죄'<하르샤아>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음을 확증하며, 우리를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율법의 엄중한 채찍이 됩니다.

2. 회개의 은혜로운 효력과 정죄로부터의 해방

가. 큰 죄를 덮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1) 복음의 영광스러운 소식은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효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사 55:7).

[사 55: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2)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는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며 행악을 버리는 회개의 과정(사 1:16)을 거치는 자에게는 과거의 어떤 흉악한 죄도 그를 영원한 저주 아래 묶어둘 수 없습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사 1: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소행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결코 정죄함 없음:

(1) 회개하는 자가 저주를 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라는 대선언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 보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참된 회개로 주께 나아오는 자는 더 이상 정죄의 공포 아래 살지 않습니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러한 가르침은 성도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어떠한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를 무효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제5항: 구체적인 회개의 의무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시 19:13, 눅 19:8, 딤전 1:13, 15).'

1. 총괄적 회개를 넘어선 구체적 회개

가. 자각된 죄에 대한 개별적 회개:

(1) 신앙고백서는 성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전체적인 회개'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경계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본질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범한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시편 기자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19:13)라고 간구하며, 구체적으로 드러난 고범죄에 대해 세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회개는 죄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시 19:13]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 사죄의 확신과 회개의 실제성:

(1)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기드푸> (딤전 1:13)라고 구체적인 죄목을 나열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 1:15)고 고백하면서도 그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찬양했습니다.

[딤전 1: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학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딤전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2)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직면은 결코 성도를 정죄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제적이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2. 회개의 실천적 증거와 책임

가. 보상과 돌이킴의 열매:

(1) 구체적인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보상이라는 열매를 동반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 19:8)라고 고백했습니다.

[눅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2) 그는 자신이 범한 구체적인 죄인 '토색'<오쉐

크>을 적시하고, 그에 합당한 실제적인 책임을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의를 사랑하게 하시는 성화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나. 양심의 각성과 성화의 동기:

(1) 죄에 대한 개별적인 회개는 무뎌진 우리 마음의 양심을 깨우며, 거룩한 삶을 향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죄를 뭉뚱그려 고백하는 습관은 죄에 대한 불감증을 낳을 수 있으나, 일일이 고백하는 태도는 죄의 추악함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2) 이러한 실천적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실제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교훈

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세밀한 사죄:

(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죄뿐 아니라 우리

가 일생 동안 범하는 모든 자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회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2) 우리가 죄를 낱낱이 고할 때, 우리는 그 죄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번호까지 세시는 세밀한 관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나. 영적 파수와 친밀한 교제:

(1) 성도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발견되는 죄마다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2) 이러한 '일일이 회개하는 노력'은 성도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

적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실한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제6항: 죄 고백의 대상과 화목의 의무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시 51:4-5, 7, 9, 14, 32:5-6).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잠 28:13, 요일 1:9).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한다(약 5:16, 눅 17:3-4, 수 7:19, 시 51편 전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케 되고 그를 사랑으로써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후 2:8, 갈 6:1-2).'

1. 하나님을 향한 사적인 죄 고백과 자비의 발견

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토로:

(1) 신앙고백서는 회개의 첫 단계로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할 것을 강

조합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에, 용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시 51:4)라고 고백하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고 간구한 것(시 51:9)은 사적 고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 '죄 고백'<토다>은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5)라는 말씀처럼,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사죄의 은총으로 이어집니다.

[시 51: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 51: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시 32: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나. 죄를 버림과 자비의 약속:

(1)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버림'으로 완성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는 말씀은 자비를 발견하는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2) 우리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

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요일 1:9). 이것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2. 공동체적 회개와 사랑의 용납

가. 대인적·공적 고백의 필요성:

(1) 죄가 개인을 넘어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었을 경우, 그 고백은 관계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성도가 입힌 상처에 대하여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회개를 표명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는 말씀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투명한 관계 회복을 요구합니다.

[약 5: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눅 17: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2)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하며(눅 17:3), 아간의 경우처럼 공적인 범죄일 경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수 7:19). 이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상처 입은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수 7: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나. 용납과 화목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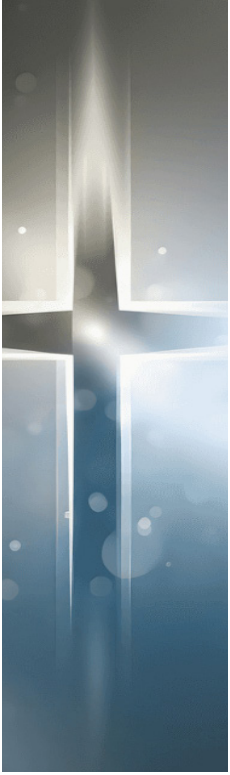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1) 회개의 표명을 받은 지체들은 '사랑으로써 용납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품는 것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후 2:8)고 명했습니다.

[고후 2: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나타내라

(2) 성숙한 신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갈 6:1).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갈 6:2). 회개는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열쇠이며, 용납은 그 회개를 완성하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갈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6 장

/

선행에 관하여

제 16 장 선행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참된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은 살아 있는 믿음의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선을 행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제1항: 선행의 기준과 본질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만 인정된다(미 6:8, 롬 12:2, 히 13:21).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성으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해 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마 15:9, 사 29:13, 벧전 1:18, 롬 10:2, 요 16:2, 삼상 15:21-23).'

1. 선행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

가. 기록된 말씀에 의한 규정성:

(1) 신앙고백서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만 인정된다'고 선언하며, 선행의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합니다. 선행은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사회적 평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뜻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라고 선포하며,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합니다.

[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2)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행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참된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며, 그분의 말씀이라는 궤도 위에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히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3:21).

나. 인본주의적 고안의 배격: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맹목적인 열성으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해 낸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희생적인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선행'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9; 사 29:13)라고 책망하셨습니다.

(2)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불순종을 꾸짖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23)라고 말한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인간의 자의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망령된 행실'<아나스트로페>(벧전 1:18)를 선으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성도를 핍박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요 16:2).

[히 13: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마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 29: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삼상 15: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2.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중보자 안에서 회복된 선한 행실:

(1)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었으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비로소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생명을 나타내는 필연적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사, 우리가 억지나 공로 의식이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2) 성도는 자기의 열심이나 지혜를 신뢰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롬 10:2). 참된 지혜는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며, 나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합치하는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데서 나옵니다.

나. 삶의 현장에서의 거룩한 순종: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요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예라 하리라

[롬 10: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것이아니라

(1) 선행의 범위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모든 삶의 영역-가정,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행하는 작은 순종들이 모두 선행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라는 명분 뒤에 숨은 자아의 고집을 꺾고, 오직 주께서 명하신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제2항: 선행의 성격과 그 유익 및 목적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이다(약 2:18, 22).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며(시 116:12-13, 벧전 2:9), 확신을 견고케 하며(요일 2:3, 5, 벧후 1:5-10), 형제에게 가르치고(고후 9:2, 마 5:19),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고(딛 2:5, 9-12, 딤전 6:1),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벧전 2:15),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벧전 2:12, 빌 1:11, 요 15:8).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므로(엡 2:10)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므로 결국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롬 6:22).'

1. 선행과 믿음의 유기적 관계 및 다각적 유익

가. 살아 있는 믿음의 필연적 결실:

(1) 신앙고백서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오직 행함(선행)을 통해서만 그 믿음의 참됨이 증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 2:18)는 말씀처럼, 선행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열매입니다.

[약 2:18]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2) 믿음은 선행과 함께 일하며,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약 2:22). 따라서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복종은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영적 지표가 됩니다.

[약 2: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행의 유익:

(1) 신자는 선행을 통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기

들의 감사'를 나타내며(시 116:12),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덕을 선포합니다(벧전 2:9).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확신하게 되어 구원의 '확신을 견고케' 합니다(요일 2:3).

(2) 대외적으로 선행은 '형제에게 가르치고' 도전하는 본이 되며(고후 9:2), 성도가 단정한 생활로 복음의 도를 행할 때 '복음의 말씀을 존경'받게 하고 비방하는 '반대자들의 입을 막는' 강력한 변증의 도구가 됩니다(딛 2:5, 벧전 2:15). 궁극적으로 성도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요 15:8, 빌 1:11).

2. 선행의 근거와 구속사적 종결

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목적:

(1) 신자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본성적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베리아 하다사>로

[시 116:12]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것이요

[고후 9:2]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년 전부터 예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딛 2:5]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인자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2:15] 곧 선행으로

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2)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0)라는 말씀은 선행이 성도의 존재 목적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선행 가운데 행하도록 예비하셨으며,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 성화의 열매와 영생의 상달:

(1) 성도의 선행은 '성화에 이르는 열매'가 됩니다. 이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영적 산물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2) 신앙고백서는 이 과정의 끝이 '결국에는 영생'임을 확증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 선행이 영생을 얻는 공로는 아니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며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요 15: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빌 1: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구하노라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6: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영생이라

의 증거인 선행을 통해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인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제3항: 선행의 원동력과 성도의 책임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요 15:4-6, 겔 36:26-27). 또한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게 된다(빌 2:13, 4:13, 고후 3:5).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의무를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같이 생각해서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기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빌 2:12, 히 6:11-12, 벧후 1:3, 5, 10-11, 사 64:7, 딤후 1:6, 행 26:6-7, 유 1:20-21).'

1. 선행의 근원: 성령의 실제적 역사

가. 전적인 무능력과 그리스도의 영:

(1) 신앙고백서는 성도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본성 안에는 선을 산출할 자원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가 가지에 진액을 공급하듯 그리스도의 영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이 선행의 유일한 근원임을 가르치십니다. 에스겔서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겔 36:27) 하실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겔 36: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2) 특히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만으로는 오늘의 선행을 이룰 수 없으며, 매 순간 성령의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조력<인플루엔티아>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라고 고백하며, 선한 의지(원함)와 실행(행함) 모두가 성령의 실시간 역사임을 확증합니다.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 자족의 배격과 의존적 능력:

(1) 성도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후 3:5). 성도의 유능함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빌 4:13). 따라서 모든 선행의 영광은 오직 그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고후 3: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 성도의 책임: 은혜를 분기시키는 노력

가. 영적 태만의 경계와 은혜의 분기:

(1)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의존한다는 사실이 성도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의무를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같이 생각해서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인격체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기'<아나조퓌레인>-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불어 살리는 것처럼-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딤후 1:6).

[딤후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2)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근거를 인간이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의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사 64:7)라고 탄식하며, 영적 나태함이 가져오는 비극을 지적했습니다.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는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 64: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 부지런함과 끝까지 견딤:

(1)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벧후 1:5)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이 일을 행할 때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며(벧후 1:10-11),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히 6:11-12)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됩니다.

[벧후 1:5]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벧후 1: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2) 유다 사도의 권면과 같이 성도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유 1:20-21)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히 6: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

사용해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선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성도가 자기 발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영적 역설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 6: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유 1: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 1: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4항: 잉여 공로의 부정과 인간 선행의 한계

'복종을 통해서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잉여분의 공덕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에 훨씬 못 미친다(눅 17:10, 느 13:22, 욥 9:2-3, 갈 5:17).'

1. 잉여 공로(Works of Supererogation) 사상의 배격

가.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책임:

(1) 신앙고백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이상의 선행을 쌓아 '잉여분의 공덕'을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이

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공로 사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의 기준을 초과하여 성취할 수 없습니다.

(2)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당연한 의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완전함'이기에, 인간이 그 기준을 넘어 하나님께 '덤'으로 드릴 수 있는 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무익한 종의 고백:

(1)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의 자세를 가르치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눅 17:10)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

(2) 모든 명령을 완수한 자라도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야 한다면, 하물며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잉여 공로란 있을 수 없습니다.

2. 인간 선행의 불완전성과 하나님의 자비

가. 의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1)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선행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과 잔존하는 부패성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며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 때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욥 9:2-3).

[욥 9:2]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 9:3]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찌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2) 성도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어(갈 5:17),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그 행위 속에 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잣대로 심판받는다면 결코 합격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호소:

(1) 이러한 진리는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개혁 사업을 완수한 후에도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

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느 13:22)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선행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수용될 수 있음을 아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2) 결론적으로 잉여 공로를 부정하는 이 교리는 구원의 모든 근거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만 두게 하며, 성도가 선행을 행한 후에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하는 구속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느 13: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제5항: 선행의 비공로성과 불완전성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것들과 장차 받을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행으로써 우리가 도움을 얻는다든가 전에 범한 죄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롬 3:20, 4:2, 4, 6, 엡 2:8-9, 딛 3:5-7, 롬 8:18, 시 16:2, 욥 22:2-3, 35:7-8).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눅 17:10).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

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갈 5:22-23).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심히 더럽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견딜 수 없다(사 64:6, 갈 5:17, 롬 7:15, 18, 시 143:2, 130:3).'

1. 선행의 공로적 가치 배제와 무한한 거리:

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근본적 이유:

(1)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최선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 용서나 영생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한 거리'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욥 35:7-8)라고 말하며,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충족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밝힙니다.

[욥 35:7]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 35:8]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2)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선행과 '장차 받을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선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행위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생명을 사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엡 2:8-9)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롬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나. 무익한 종의 고백:

(1) 설령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히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찌니라"(눅 17:10)고 가르치셨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듯,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눅 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2. 선행에 섞인 부패성과 하나님의 심판:

가. 성령의 사역과 인간적 불완전성의 혼합:

(1)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선행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모든 거룩한 열매는 성령의 산물입니다(갈 5:22-23). 즉, 선행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인간은 이를 자신의 공로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 더욱이 그 선행이 '우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생한 자 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며(갈 5:17),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갈등이 존재합니다(롬 7:15, 18). 이러한 죄의 잔재는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위조차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심히 더럽게' 만듭니다.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7:15]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롬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의 자격:

(1)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모든 의를 '더러운 옷'<베게드 이딤>-즉 오염된 누더기-과 같다고 탄식했습니다(사 64:6). 우리의 최선에조차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

[사 64: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

무서운 심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찐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시 130:3)라고 부르짖고,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시 143:2)라고 고백한 것은 이러한 영적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선행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저 얻은 영생에 대한 '감사의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의 불완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옮겨 가나이다

[시 130: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 143: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제6항: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의 용납과 상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엡 1:6, 벧전 2:5, 출 28:38, 창 4:4, 히 11:4).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

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욥 9:20, 시 143:2),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순전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주기를 기뻐하셨다(히 13:20-21, 고후 8:12, 히 6:10, 마 25:21, 23).'

1.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의 수용

가. 중보자로 말미암은 용납:

(1)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선행 자체의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며(엡 1:6),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된 존재로 보십니다.

[엡 1: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2)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여 이스라엘의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한 것(출 28:38)처럼, 우리의 불완전한 행실도 중보자 그리스도의 의라는 통로를

[출 28:38]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거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벧전 2:5).

[벧전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 믿음을 통한 예물의 인정:

(1)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존재를 먼저 보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신 것(창 4:4)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히 11:4).

[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2) 이처럼 성도의 선행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2. 하나님의 자비로운 평가와 상급의 은혜

가. 불완전함 중에도 베푸시는 긍휼:

(1) 선행이 용납된다는 사실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할지라도 자기 입이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욥 9:20),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시라고 간구해야 할 만큼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시 143:2).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성도의 선행을 순전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히 13:21),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할 마음'<라존>을 보시고 그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고후 8:12).

나. 약속된 상급과 기쁨:

(1)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수고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히 6:10).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행위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상주기를 기뻐'하십니다.

(2)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 23)라고 칭찬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에

[벧전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히 13: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후 8: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히 6:10]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마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 하고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자녀의 작은 순종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가 가져다주는 은혜의 결실입니다.

제7항: 비중생자의 행위와 그 한계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며 그 자체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왕하 10:30-31, 왕상 21:27, 29, 빌 1:15-16, 18). 그것은 믿음으로써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창 4:3-5, 히 11:4, 6), 그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고전 13:3, 사 1:1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옳은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마 6:2, 5, 16).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죄가 되며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이 된다(시 14:4, 36:3, 욥 21:14-15, 마 25:41-45, 23:23).'

1. 비중생자 행위의 본질적 결함

가. 외형적 일치와 내면적 부패:

(1) 신앙고백서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과 일치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산출하는 중심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2)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한 일은 칭찬을 받았으나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행위는 온전한 선이 되지 못했고(왕하 10:30-31), 아합의 겸비함 또한 중심의 변화를 동반하지 못한 일시적인 외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왕상 21:27, 29).

나. 참된 선의 세 가지 결핍 요소:

(1) 비중생자의 행위에는 세 가지 결정적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써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히 11:6)라는 원리에 따라,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습니다(창 4:3-5).

(2) 둘째, '정당한 방법'<데레크 야솨르> 즉 사랑

[왕하 10:30]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왕하 10:31]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상 21:27]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왕상 21:29]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과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고전 13:3, 사 1:12).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옳은 목적이 결여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헛된 것입니다(마 6:2, 5, 16).

2. 행위의 유기와 더 큰 죄의 책임

가. 선행 소홀에 대한 가중된 죄책:

(1) 비중생자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죄가 되며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이 됩니다.

(2)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며 선행을 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시 14:4, 36:3). 욥기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이자 도덕적 유기입니다(욥 21:14-15).

나. 일반 은총의 거부와 심판의 근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창 4: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창 4:5]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고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 6: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지 않은 것을 곧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마 25:41-45). 또한 내적 본질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마 23:23).

(2) 비중생자가 사회적 도덕마저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헤세드 클랄리>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더 큰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인간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교훈

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

(1) 이 교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확증합니다. 인간의 가장 선해 보이는 행위조차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마음과 성령의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5]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시 14: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 36:3]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궤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욥 21:14] 그러할찌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없이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구속사는 인간의 자기 의를 파쇄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세우는 역사입니다.

나. 은혜에 대한 자랑과 선교적 자세:

(1)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행위의 탁월함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2) 우리는 또한 불신 세상을 향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행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근본적인 생명인 그리스도께 돌아와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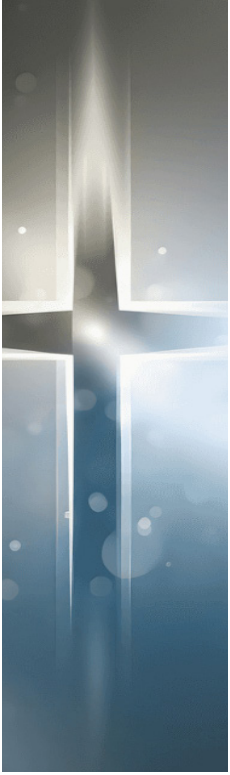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욥 21:15]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얻으랴 하는구나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 23:2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17 장

/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제 17 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도는 결코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선택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기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비록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져 은혜를 상실한 듯 보일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개시켜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제1항: 성도의 견인의 정의와 확실성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빌 1:6, 벧후 1:10, 요 10:28-29, 요일 3:9, 벧전 1:5, 9, 요 17:9).'

1. 견인의 대상과 은혜의 보존

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의 대상:

(1)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견인(Perseverance)이 모든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적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 해당됨을 명시합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된 자들이며, 역사 속에서 성령에 의해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진정으로 중생하고 연합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2) 이 견인의 주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는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보존'되는 것입니다.

[빌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 타락의 불가능성과 영원한 안전:

(1) 참된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고 선언됩니다. 비록 성도가 연약하여 일시적으로 범죄하거나 침체에 빠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의 통치에서 완전히(전적으로) 끊어지거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최종적으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이는 예수님의 강력한 보증에 근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하나님의 손과 그리스도의 손이 이중으로 성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요 10:29).

[요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 견인의 궁극적 목적과 종말론적 승리

가. 마지막 날까지의 인내와 구원의 완성:

(1)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성도가 구원의 여정에서 중도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벧전 1:5) 하십니다.

(2) 이러한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벧후 1:10)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며(요일 3:9),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중보하심으로 그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십니다(요 17:9).

나. 영혼 구원의 확실한 결말:

(1) 견인 교리의 결말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신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불확실한 도박이 아니라, 창세 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확실한 사슬입니다.

(2)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유혹을 겪으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9)는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인내심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벧전 1:5]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요일 3: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 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벧전 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제2항: 견인의 근거와 확실성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딤후 2:18-19, 렘 31:3).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다(히 10:10, 14, 13:20-21, 9:12-15, 롬 8:33-39, 요 17:11, 24, 눅 22:32, 히 7:25).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요 14:16-17, 요일 2:27, 3:9), 은혜의 언약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렘 32:40, 히 8:10-12).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나타난다(요 10:28, 살후 3:3, 요일 2:19, 살전 5:23-24).'

1. 객관적 근거: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사역

가. 성부의 불변한 선택:

(1)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견인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결단이 가진 가변성을 배격합니다. 구원의 최종적 보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아하바트 올람>(렘 3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딤후 2:19)는 말씀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렘 31:3]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딤후 2: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나. 성자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1) 견인의 실제적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히 9:12)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히 10:14)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롬 8:34),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히 7:25) 있는 분입니다.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2) 그리스도의 중보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눅 22:32)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요 17:24)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중보가 성도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2. 주관적 근거: 성령의 내주와 은혜 언약

가.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씨:

(1) 성도의 내면적 보존은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요 14:16-17) 거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2) 또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씨'<스페르마 아우투>, 즉 거듭난 자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 있어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요일 3:9)라는 말씀처럼 죄의 지배로부터 성도를 보호합니다.

나. 은혜 언약의 본성:

(1) 견인은 '은혜의 언약의 본성'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자시니라

[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눅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요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렘 32:40)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의 마음에 경외심을 두어 떠나지 않게 하시기에,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집니다(히 8:10-12).

[렘 32:40]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히 8: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 8: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히 8:12]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교훈:

가.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

(1) 이상의 모든 근거를 통해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는 약속대로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 중에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요일 2:19)라고 기록된 이들처럼 일시적인 신앙을 보이다 떠나는 자들도 있으나, 참된 성도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고 선언

[살전 5: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요일 2:19]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인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력(Holding power)에 의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낙심할 수 있으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안일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더 큰 감사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강력한 위로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 10: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3항: 성도의 일시적 타락과 그 비참한 결과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하므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마 26:70, 72, 74).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시 51: 표제 및 14, 삼하 12:9, 13).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사 64:5, 7, 9, 삼하 11:27),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케 한다(엡 4:30).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의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되며(시 51:8, 10, 12, 계 2:4, 아 5:2-4, 6),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사

63:17, 막 6:52, 16:14, 시 95:8), 양심은 상처를 입고(시 32:3-4, 51:8),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삼하 12 : 14)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시 89:31-32, 고전 11:32).'

1. 성도가 범죄에 빠지는 원인과 실제성

가. 외적 유혹과 내적 부패의 결탁:

(1) 성도의 견인이 성도의 무죄성이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고백서는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외적 요인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이체르 하라>이라는 내적 요인이 결합할 때,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홀히 할 때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건(마 26:70-74)은 성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뼈아픈 실례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나. 범죄의 지속성과 심각성:

[마 26: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마 26: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마 26: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 26: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마 26:74]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1) 성도는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까지의 기간(삼하 12:9, 13)이 그러합니다.

(2) 이는 성도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 침체와 완악함 속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자생력이 있어 한 번 허용하면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 안에 머물게 하려는 속성을 가집니다.

2. 범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영적 결과들

가.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과 성령의 탄식:

(1) 성도의 죄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사 64:5, 7). 비록 정죄의 진노는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가지시는 징계의 노여움입니다(삼하 11:27).

(2) 또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시게 함으로써 신령한 교제를 방해합

[삼하 12: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삼하 12: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 64:5]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사 64: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니다(엡 4:30). 성령의 인치심은 취소되지 않으나, 그분과의 감미로운 사귐은 죄로 인해 어두워지게 됩니다.

나. 은혜의 상실과 심령의 피폐함:

(1) 죄에 빠진 성도는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의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됩니다. 구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으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시 51:12)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계 2:4).

(2) 영혼은 주님의 부재로 인해 병들고(아 5:2-6), 마음은 완악해지며(사 63:17), 죄책감으로 인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시 32:3-4). 이는 성도가 범죄를 통해 얻는 쾌락보다 잃는 영적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큼을 보여줍니다.

3. 대외적 영향과 일시적 징계의 필연성

가.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

(1) 성도의 범죄는 개인의 파멸에 그치지 않고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의 범

[삼하 11:27] 그 장사를 마치매 다윗이 보내어 그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시 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5:6]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사 63: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퍅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죄가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한 것처럼(삼하 12:14), 성도의 불의한 행실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복음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2) 믿음의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손실을 입히는 가중된 죄책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의 매, 일시적 심판:

(1)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미슈파트 제마니>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과를 지팡이로 다스리며 그들의 죄악을 채찍으로 벌하십니다(시 89:31-32).

(2) 그러나 이 징계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 판단을 받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입니다(고전 11:32). 성도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들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경성해야 하며, 징계 중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시 32:3]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 32: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셀라)

[삼하 12:14]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시 89:31]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 89:32]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고전 11: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8 장

/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제 18 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참된 신자는 자신이 구원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헛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증거, 그리고 신앙의 열매에 기초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기에 때로 죄나 시험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확신을 회복하며,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제1항: 거짓 확신과 참된 확신의 구별

'위선자나 그밖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욥 8:13-14, 미 3:11, 신 29:9, 요 8:41) 거짓 소망과 육적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들이 가지는 이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마 7:22-23, 욥 8:13).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앞에서 모

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요일 2:3, 3:14, 18-19, 21, 24, 5:13)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은 그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롬 5:2, 5).'

1. 위선자의 거짓 소망과 그 종말

가. 육적 오만과 자아 기만:

(1) 신앙고백서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짓 소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호의 아래 있다고 착각하는 '육적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2) 빌닷의 변론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소망은 끊어지며, 그 믿는 것은 거미줄<카릿 쉬> 같아서 의지할 곳이 못 됩니다(욥 8:13-14). 이들은 종교적 형식이나 민족적 자부심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미 3:11)고 장담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욥 8: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욥 8:14]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미 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나. 위장된 경건의 비참한 결말:

(1)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요 8:41)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외적인 종교 생활은 참된 생명 없이도 위장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기초 없는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2-23)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요 8:41]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 7: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 성도의 참된 확신의 근거와 실재성

가.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삶의 증거:

(1) 참된 확신은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고양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2)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일 2:3)라고 말하며, 순종이 확신의 중요한 외적 증거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요일 3:14) 알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요일 3:18-19).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일 3: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나. 부끄럽지 않은 소망과 기쁨:

(1) 참된 확신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고 고백했습니다.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 이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롬 5:5).

[롬 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교훈

가. 약속에 근거한 무오한 확신: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주관적 확신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요일 5:13).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하려 함이라

(2) 이는 성도가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확신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나,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나. 확신의 보존과 성도의 자세:

(1)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확신'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 그리고 거듭난 삶의 열매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확신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2) 거짓 확신의 위험을 경계하며 늘 깨어 있되,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발견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티크바>을 마음껏 누

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권리이자 복입니다. 참된 확신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제2항: 구원 확신의 근거와 성격

'이 확실성은 허망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거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다(히 6:11, 19).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히 6:17-18) 신적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틀림없는 확신이다.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요(벧후 1:4-5, 10-11, 요일 2:3, 3:14, 고후 1:1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해 주는 양자의 영의 증거이다(롬 8:15-16).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증거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엡 1:13-14, 4:30, 고후 1:21-22).'

1. 확신의 객관적 근거: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

가. 허망한 억측과의 구별:

(1) 신앙고백서는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확실성이 인간의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에서 나온 '허망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 아님을 분

명히 합니다. 이는 심리적인 자기 암시나 주관적인 열광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참된 확신은 '영혼의 닻'<오겐>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실재적인 힘을 가집니다(히 6:11, 19).

나. 변치 않는 신적 진리:

(1) 구원 확신의 제1근거는 '구원을 약속한 신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히 6:17).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에, 그 분의 약속과 맹세라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근거한 확신은 '틀림없는 확신'이 됩니다(히 6:18).

2. 확신의 주관적 근거: 은혜의 내적 증거와 성령의 인침

가. 은혜의 열매를 통한 내적 증거:

(1) 확신은 또한 성도 안에 나타나는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를 통해 견고해집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벧후 1:4), 형

[히 6: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 6: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 6: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 6: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벧후 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를 사랑하며(요일 3:14),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요일 2:3)을 통해 자신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2)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양심의 증거'는 성도에게 큰 즐거움과 확신을 줍니다(고후 1:12). 이러한 덕을 쌓는 삶은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벧후 1:5, 10-11).

나. 성령의 증거와 인치심:

(1) 확신의 가장 깊은 뿌리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롬 8:15-16).

(2)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아라본>이 되사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습니다'(엡 1:13-14, 4:30). 인침은 소유권과 확실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정하셨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인

[요일 3: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고후 1: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벧후 1:5]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벧후 1: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롬 8:15] 너희는 다시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고후 1:21-22). 이 삼중적 근거(객관적 약속, 내적 은혜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통해 성도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엡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엡 1:14] 이는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후 1:21]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후 1: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3항: 확신의 습득 방편과 그 영적 결과

'이 틀림없는 확신은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일 5:13, 사 50:10, 막 9:24, 시 77:1-12, 88장),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어 별도의 계시 없이도 일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고전 2:12, 요일 4:13, 히 6:11-12, 엡 3:17-19).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벧후 1:10).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에 넘치며,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 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것이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결과이다(롬 5:1-2, 5, 14:17, 15:13, 엡 1:3-4, 시 4:6-7, 시 119:32).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요일

2:1-2, 롬 6:1-2, 딛 2:11-12, 14, 고후 7:1, 롬 8:1, 12, 요 3:2-3, 시 130:4, 요일 1:6-7).'

1. 확신의 습득 방식과 신자의 의무

가. 믿음의 본질과 확신의 구분:

(1) 신앙고백서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 그 구원을 스스로 확신하는 '틀림없는 확신'을 구분합니다.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확신 없이 기다리거나 시련 속에서 영적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사 50:10, 시 88장). 믿음은 있으되 확신이 흔들리는 상태(막 9:24)가 실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확신은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며(고전 2:12),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요일 4:13). 신자는 말씀, 기도, 성례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믿음의 풍성한 확신에 도달해야 합니다(히 6:11-12).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찌어다

[막 9:24]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고전 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일 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의무:

(1) 확신을 얻는 것은 성도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벧후 1:10)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구원이 취소될까 봐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구속사적 요청입니다.

2. 확신이 가져오는 영적 열매와 거룩한 삶

가. 심령의 평화와 순종의 동력:

(1) 구원의 확신이 주는 '정당한 결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롬 5:1),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즐거움을 맛봅니다(시 4:6-7).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롬 5:5),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2) 특히 확신은 순종을 '힘 있고 유쾌하게' 만듭

줄을아느니라

[히 6: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 6: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누리자

[시 4: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비취소서

[시 4: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니다. 억지로 하는 종의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감격하여 달려가는 아들의 순종이 됩니다.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주께서 우리 마음을 넓히셨기 때문이며(시 119:32), 이러한 유쾌한 복종은 확신이 있는 성도만이 누리는 영적 활력입니다.

[롬 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시 119: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요일 3: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시 130: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딛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딛 2: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방탕을 방지하고 거룩을 촉구함:

(1) 확신은 결코 도덕적 해이나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방탕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요 3:3). 참된 확신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듭니다(시 130:4).

(2)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십니다(딛 2:11-12).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롬 8:1)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확신은 성도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정결하게 하는 힘입니다.

제4항: 확신의 동요와 보존

'참 신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 한다. 양심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특별한 죄를 범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므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아 5:2-3, 6, 시 51:8, 12, 14, 엡 4:30-31, 시 77:1-10, 마 26:69-72, 시 31:22, 88:1-18, 사 50:10).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다.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결핍한 때는 없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에 따라 소생한다(요일 3:9, 눅 22:32, 욥 13:15, 시 73:15, 51:8, 12, 사 50:10). 또한 그들은 심한 실망 속에서도 그 보증의 도움을 받는다(미 7:7-9, 렘 32:40, 사 54:7-, 시 22:1, 88:1-18).'

1. 구원의 확신이 동요되는 원인과 실재:

가. 신자의 게으름과 범죄:

(1) 신앙고백서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는 영적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게을리'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심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특별한 죄'를 범했을 때 성도는 확신을 잃고 침체에 빠집니다.

(2) 다윗이 범죄 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1)라고 절규하며 "구원의 즐거움"(시 51:12)의 회복을 간구한 것이 그 실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는 영적 평안을 앗아갑니다(엡 4:30).

[시 51: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 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나. 시험과 하나님의 섭리적 유기:

(1) 성도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의해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며 통곡했던 사건(마 26:69-75)은

강한 유혹 앞에 확신이 얼마나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의 성숙을 위해 '자기의 얼굴빛을 돌이키심'으로써 그들을 영적 어두움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시 88:1-18; 사 50:10). 이때 성도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시 77:8)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영적 밤을 지날 수 있습니다.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찌어다

[시 77:8] 그 인자하심이 영구히 끊어졌는가 그 허락하심이 대대에 폐하였는가

2. 확신의 내면적 보존과 성령의 소생 사역:

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의 원리:

(1) 비록 주관적인 확신은 중단될 수 있으나, 성도의 신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씨'<스페르마 아우투>가 심겨 있어 '절대로' 이를 상실하지 않습니다(요일 3:9). 영적 암흑기에도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마음의 진실성' 등 은혜의 본질적 요소들이 '완전히 결핍한 때는 없습니다.'

[요일 3: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2) 이는 성령께서 성도의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

니다.

나. 성령을 통한 확신의 소생과 보증:

(1) 흔들렸던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에 따라 소생'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눅 22:32),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눅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2)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욥 13:15)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신뢰를 보였습니다.

[욥 13: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한 구원의 안전:

(1) 성도의 견인과 확신은 인간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마음에 경외함을 두어 우리도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렘 32:40).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잠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듯하나 "

[렘 32:40]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하고

큰 긍휼로 모으실 것"(사 54:7)이며, 성도의 탄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버림받으심(시 22:1)과 연합되어 결국 승리로 승화됩니다.

(2) 성도는 확신이 약해질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가 어두운데 앉을찌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미 7:7-8)라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며,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하사 그분의 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 54: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시 22: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미 7: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응락하시리로다
[미 7:8]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찌어다 나는 엎드러질찌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찌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나. 인내와 소망의 신앙:

(1) 성도는 확신이 약해질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가 어두운데 앉을찌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미 7:7-8)라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

시며,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하사 그분의 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가변적이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19 장

/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제 19 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도덕법을 주셨고 이는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폐지되었으나, 도덕법은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 영원히 유효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유익한 거울입니다.

제1항: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과 그 성격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셨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창 1:26-27, 2:17, 롬 2:14-15, 10:5, 5:12, 19, 갈 3:10, 12, 전 7:29, 욥 28:28).'

1. 창조 시 수여된 율법과 행위 언약

가. 행위 언약의 법적 기초: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율법'을 주셨음을 명시하며, 이것이 곧 '행위에 대한 약속', 즉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의 핵심임을 밝힙니다. 이 율법은 기록된 문자 이전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이었습니다(창 1:26-27, 롬 2:14-15).

(2) 이 율법의 요구 사항은 매우 엄격합니다. 인간은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일부분의 순종이나 일시적인 복종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롬 10:5, 갈 3:12).

나. 언약의 대표성과 후손에의 적용: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오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롬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10: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갈 3: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 이 율법은 아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언약적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의 순종이나 불순종은 곧 전 인류의 상태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롬 5:19)라는 말씀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을 보여주며(롬 5:12), 반대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 경우 모든 후손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 것임을 전제합니다.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2. 율법의 상벌 규정과 순종의 능력

가. 생명과 사망의 엄중한 경고:

(1) 율법에는 명확한 상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습니다(창 2:17). 이는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법적 효력을 가진 언약이었습니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2)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갈 3:10)는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함에 미치지 못할 때 따르는 저주의 엄중함을 확증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의 길이었으나, 실패는 곧 영원한 사망을 의미했습니다.

[갈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 순종을 위한 충분한 능력의 부여:

(1)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조 당시의 인간은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으며(전 7:29),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욥 28:28).

[전 7: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욥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니라

(2)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posse non peccare)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치될 수 있는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능력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부여받은 자유 의지를 오용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창조주에 대한 복종의 마지노선

이었습니다.

제2항: 도덕법의 존속과 십계명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약 1:25, 2:8, 10-12, 롬 13:8-9, 신 5:32, 10:4, 출 34:1, 롬 3:19).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마 22:37-40, 출 20:3-18).'

1. 도덕법의 영속성과 성격

가. 의의 완전한 규칙으로서의 율법:

(1) 신앙고백서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의 법이 타락 후에도 폐기되지 않고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능력은 상실했으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야고보 사도는 이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노몬 엘류테리아스> 혹은 "최고한 법"(약 1:25, 2:8)이라고 칭하며, 이 법이 신자의 삶에서 여전히 지켜져야 할 도덕적 규범임을 확증합니다. 바울 역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롬 13:8-9).

나. 시내산에서의 성문화와 명확성:

(1) 에덴에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졌던 법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는 역사적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법을 친히 돌비에 써 주심으로(출 34:1, 신 10:4),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각인시키셨습니다.

(2) 이 성문화된 법은 인간의 주관적인 양심이 타락하여 변질될 수 있음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이며,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려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롬 3:19).

[약 1: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 2:8]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롬 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롬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출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신 10:4]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

2. 십계명의 구조와 요약

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

(1)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은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는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이웃 중심의 사랑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십계명은 인간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와 관계의 질서를 정립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경외가 선행될 때, 비로소 이웃을 향한 수평적 윤리가 온전하게 성립될 수 있음을 구조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의 요약:

(1)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구조를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40).

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 것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 이는 십계명이 단순히 금지 조항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아하바>을 동력으로 하는 생명의 법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통일성을 갖습니다.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교훈

가. 율법의 보존과 그리스도의 성취: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시내산에서 수여된 율법은 인간의 부패를 폭로하고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들에게 마땅히 행할 '삶의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2)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자로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으며, 성도는 그분의 순종을 본받아 법의 정신을 구현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법도:

(1) 성도는 십계명을 단순히 고대의 법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신 5:32) 그 법도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신 5:32]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2)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법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인격을 세워가게 됩니다.

제3항: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식법의 성격과 폐기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식에 관한 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의식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 행동, 고난, 그리고 공로를 예표로 해서 보여 준다(히 9장, 10:1, 갈 4:1-3, 골 2:17).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교

훈이 있다(고전 5:7, 고후 6:17, 유 1:23).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성경시대에서는 폐기되었다(골 2:14, 16-17, 단 9:27, 엡 2:15-16).'

1. 의식법의 목적과 구속사적 예표성

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식에 관한 법'<후키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 성격을 가졌음을 밝힙니다. 제사 제도, 절기, 정결 예식 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은총, 행동, 고난, 공로'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2)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히 10:1)라고 명시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 규례(히 9장)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맡겨진 초등학문이었으며(갈 4:1-3),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에 관한 규례는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골 2:17).

[히 10: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갈 4: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갈 4: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갈 4: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골 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나. 도덕적 순결을 향한 교훈:

(1) 의식법은 단순히 제사 절차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와 거룩함을 교훈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들은 신자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상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2) 사도 바울은 이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전 5:7)고 권면하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고후 6:17). 즉, 의식의 외형 뒤에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성결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유 1:23).

2. 실체의 도래와 의식법의 폐기

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율법의 완성:

(1)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림자인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성경시대에서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골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후 6: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유 1: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골 2:14]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2:14).

(2)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으며(단 9:27),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엡 2:15)라고 선언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확증합니다.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엡 2:15]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나. 의식법 폐기의 영적 의미:

(1) 의식법의 폐기는 하나님의 법이 무효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향하던 목적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의 제사나 구약적 절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골 2:16-17).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2) 이제 성도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단번에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의식법의 폐기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실체적인 은혜의 교제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제4항: 시민법의 성격과 한시성

'하나님은 한 국가를 이룬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해 주셨다. 그것은 그 민족과 더불어 없어졌으며 현재는 그 법률에 있는 일반적인 정당성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출 21장, 22:1-19, 창 49:10, 벧전 2:13-14, 마 5:17, 38-39, 고전 9:8, 10).'

1.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특수 법률:

가. 시민법의 제정과 목적: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해 주셨다고 언급합니다. 이를 흔히 '시민법(Judicial Law)'이라 부릅니다. 이 법들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에 적용한 세부 규정들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는 종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 절도 및 배상에 관한 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었습니다.

(2) 시민법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질서를 유지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하는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예언대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쉴로>(창 49:10) 이 통치 체제는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창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2. 시민법의 효력 상실과 일반적 정당성:

가.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종료된 법적 의무:

(1) 이 법률들은 '그 민족과 더불어 없어졌으며'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한시성을 밝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가 신정 체제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상실하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됨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특수한 사회적 규정들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벧전 2:13-14)라고 권면한 것은, 신자가 구약의 유대 시민법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당한 법 질서를 따라야 함을 시사합니다.

[벧전 2:13]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벧전 2:14]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하라

(2)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으나(마 5:17),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마 5:38-39)는 시민법적 보복 원칙을 넘어서는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심으로 시민법의 외적 형식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 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나. 일반적 정당성의 원칙:

(1) 비록 시민법의 조문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그 법률들이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당성'<에퀴타스 코무니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시민법 배후에 흐르는 공의와 자비의 정신, 즉 보편적 정의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약의 법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고전 9:8-10)라고 해석한 것처럼, 시민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도덕적 원칙은 오늘날의 법 질서와 윤리 속에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전 9:8]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고전 9:9]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고전 9:10]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교훈:

가. 그리스도의 왕권과 성도의 삶:

(1) 구속사적으로 시민법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공의로운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므로, 성도는 특정한 국가의 법전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시민법의 폐지는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온 세계 신자들의 삶 속에서 더 깊고 넓게 실현됨을 의미합니다.

(2) 성도는 구약의 시민법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약자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정의를 연구하고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국가의 법을 준수하되,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제5항: 도덕법의 영속성과 하나님의 권위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것에 영원토록 복종케 한다(롬 13:8-10, 엡 6:2, 요일 2:3-4, 7-8, 롬 3:31, 6:15). 또한 단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케 한다(약 2:10-11).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서 안에서도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마 5:17-19, 약 2:8, 롬 3:31).'

1. 도덕법의 보편적·영원적 구속력

가. 모든 인류를 향한 영속적 의무:

(1) 신앙고백서는 도덕법(Moral Law)이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영원토록' 적용됨을 선언합니다.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시대적·제시적 한계가 있었으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므로 결코 폐기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이 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롬 13:8-10, 6:15).

(2) 사도 요한은 이를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

[롬 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롬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롬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6: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명"이라 부르며, 주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경고합니다(요일 2:3-4, 7-8).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롬 3:31).

나. 입법자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

(1) 도덕법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 내용이 유익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기는 것은 그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의 권위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라고 말하며,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어떤 계명이든 어기는 것은 율법 교사로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약 2:11).

2. 그리스도를 통한 도덕법의 성취와 강화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일 2:4]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일 2: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바 말씀이거니와
[요일 2: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췌짐이니라

[롬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약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약 2: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

가. 복음 안에서 강화된 순종의 의무:

(1)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서 안에서도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문자를 넘어 그 정신과 동기까지 요구하심으로써 도덕법의 기준을 더욱 깊고 높게 세우셨습니다.

(2)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마 5:18). 따라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삶의 거룩한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마 5:19).

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

(1) 그리스도께서는 도덕법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약 2:8)으로 요약하고 강화하셨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자발적 복종으

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약 2:8]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로 율법을 지켜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덕법은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지침으로 영원히 기능합니다.

제6항: 신자에게 주는 율법의 유익

'참 신자는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써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나(롬 6:14, 갈 2:16, 3:13, 4:4-5, 행 13:39, 롬 8:1), 율법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생활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알게 해준다. 또는 그들을 지도하고 그것에 따라 걷도록 한다(롬 7:12, 22, 25, 시 119:4-6, 고전 7:19, 갈 5:14, 16, 18-23). 그들의 본질과 마음과 생활에 있는 사악한 타락성을 발견케 한다(롬 7:7, 3:20).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반성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약 1:23-25, 롬 7:9, 14, 24).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동시에, 그의 완전한 복종에 관하여도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갈 3:24, 롬 7:21, 25, 8:3-4). 그것

은 또한 중생한 자들이 율법이 죄를 금하고 있는 데 따라서 그들의 부패성을 막는 데 사용된다(약 2:11, 시 119:101, 104, 128). 그리고 율법의 경고는 가령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된 저주에서는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무엇에 해당하며 이생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떠한 고난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스 9:13-14, 시 89:30-34).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은 그들에게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한 그것을 완수한 데 대하여 그들이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레 26:1, 10, 14, 고후 6:16, 엡 6:2-3, 시 37:11, 마 5:5, 시 19:11).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이 지켰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갈 2:16, 눅 17:10). 마찬가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은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롬 6:12, 14, 벧전 3:8-12, 시 34:12-16, 히 12:28-29).'

1. 신자의 자유와 율법의 도덕적 규범성

가. 행위 언약으로부터의 해방:

(1) 신앙고백서는 참 신자가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의롭다 함을 얻거나 영원한 저주를 받는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2)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가알> 하셨고(갈 3:13),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롬 6: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라는 선언은 신자의 절대적인 영적 안전장치입니다.

나. 생활의 표준으로서의 유용성:

(1) 그러나 율법의 정죄 기능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규범적 가치까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성도에게 '생활의 표준'<카논>으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 아래 있지는 않으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롬 7:22)고 고백했습니다.

(2)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영적인 지도와 같습니다(시 119:4-6). 성도는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롬 6: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7: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시 119:4]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 119:5]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 119:6]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자유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 율법의 도덕적 원리를 기쁘게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2. 타락의 발견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가. 거울로서의 율법과 죄의 자각:

(1) 율법은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여 '사악한 타락성'을 발견케 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롬 7:7).

(2) 성도는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약 1:23-25), 자신이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죄에 대한 '증오감'<시나>을 불러일으키고 자아를 신뢰하지 않게 하여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자극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듦:

(1) 율법을 통해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

[롬 7: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약 1:23]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약 1: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하였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약 1: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초등교사'<파이다고고스>가 됩니다(갈 3:24).

(2) 율법의 엄중한 요구는 우리를 대신해 율법에 '완전한 복종'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깊이 이해하게 하며, 오직 그 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복된 수단이 됩니다.

[갈 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 부패의 억제와 은혜로운 보상

가. 징계의 경고와 약속의 격려:

(1) 율법의 경고는 중생한 자의 '부패성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신자가 율법의 영원한 형벌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죄를 범할 경우 이생에서 겪게 될 '부성적 징계'와 고난을 경고함으로써 영적 경각심을 일깨웁니다(시 89:30-34).

[시 89:30]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시 89:31]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 89:32]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시 89:33]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시 89:34]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아니하리로다

(2) 반대로 율법에 담긴 약속은 성도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격려이며, 그에 따르는 풍성한 축복을 소망하게 합니다(엡 6:2-3). 이는 행위 언약의 보상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어린 응답입니다.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 은총의 증거로서의 순종:

(1) 마지막으로, 성도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그가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은총 아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따르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공로를 쌓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히 12:28-29). 이 자발적 순종이야말로 신자가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히 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제7항: 율법과 복음의 조화 및 성령의 역사

'상기한 바와 같은 율법의 사용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르는 것이다(갈 3:21, 딛 2:11-14).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기도 하고 능력 있게 하기도 하신다(겔

36:27, 히 8:10, 렘 31:33).'

1. 율법과 복음의 유기적 통일성

가. 복음의 은총에 부합하는 율법:

(1) 신앙고백서는 율법의 기능(죄를 깨닫게 하고 삶의 규범이 되는 것 등)이 결코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율법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나, 성경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결별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갈 3:21).

(2) 율법은 복음 안에서 그 진정한 용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며, 율법이 지향하는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딛 2:11-14)이 되게 합니다. 즉, 율법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거룩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복음과 조화를 이룹니다.

나. 감미로운 조화와 영적 질서:

[갈 3: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딛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딛 2: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딛 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딛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율법과 복음은 '감미롭게 조화'를 이룹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2) 이러한 조화<에조르>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질서 있게 작동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수단에서 성도의 즐거움으로 변모하며, 복음은 그 즐거운 순종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됩니다.

2. 성령을 통한 자발적 순종의 성취

가. 내면화된 율법과 의지의 변화:

(1) 구약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인간에게 외적인 정죄의 도구였으나,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이 율법을 신자의 마음속에 새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히 8:10, 렘 31:33)고 약속하셨습니다.

(2) 성령께서는 신자의 부패한 의지를 '억제'하여

[히 8: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렘 31: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죄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이는 강요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에서 비롯된 인격적 반응입니다.

나. 자유롭고 기쁜 순종:

(1)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의 결정적인 역할은 신자가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7).

[겔 36: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2) 율법은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따르는 '사랑의 법'이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20 장

/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은 죄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으며, 성경에 어긋나는 인간의 가르침이나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정욕을 채우기 위한 방종이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질서를 존중하는 거룩한 자유여야 합니다.

제1항: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과 범위

'그리스도가 복음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딛 2:14, 살전 1:10, 갈 3:13).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

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롬 5:1-2)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롬 8:14-15, 요일 4:18)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 3:9, 14).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1-3, 6-7, 5:1, 행 15: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14, 16, 10:19-22),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 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요 7:38-39, 고후 3:13, 17-18),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과의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

1. 대속으로 말미암은 해방의 자유

가. 법적 정죄와 권세로부터의 자유:

(1)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대속 사역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합니다. 이 자유의 핵심은 성도가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갈 3:13).

(2) 나아가 이 자유는 실제적인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성도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골 1:13) 옮기셨으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롬 6:14).

나. 죽음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1)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죽음의 공포와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비록 성도에게 고난이 있으나 그것은 형벌이 아닌 유익을 위한 징계가 되며(롬 8:28, 시 119:71),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 대하여 승리합니다(고전 15:54-57).

(2)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이른 성도는 '영원한 파멸'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골 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롬 6: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 119: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전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유

가. 노예적 공포가 아닌 사랑의 순종:

(1) 참된 자유는 단순히 '어디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형벌에 대한 '노예적인 공포'<포보스>가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2)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롬 8:14-15)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요일 4:18).

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

(1)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담대함'<파레시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전 15:55]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전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

제 정죄의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롬 5:1-2).

(2) 이러한 자발적 마음은 억지스러운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수준의 자유입니다.

3. 복음 시대에 확대된 신자의 자유

가.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1)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 자유를 누렸으나(갈 3:9, 14), 복음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유대 교회가 지켜야 했던 복잡한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는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의 의식들을 폐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갈 4:1-7, 5:1). 그림자의 시대가 지나고 실체의 시대가 왔기에 성도는 더 이상

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갈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짐승의 제사나 의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더 큰 담력과 성령의 교통:

(1) 이제 성도는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이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갑니다(히 4:14-16, 10:19-20). 구약의 성도들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희미하게 보았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봅니다(고후 3:13-18).

(2) 성도는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더 충만한 교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요 7:38-39). 이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가 가져다준 구속사적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이 신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 얻게 된 영광스러운 풍성함입니다.

제2항: 양심의 유일한 주재자와 진정한 자유의 한계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

[히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 4:15] 우리에게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

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1. 양심의 유일한 주재자이신 하나님

가. 하나님의 독점적 권위:

(1)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인 양심의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천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아돈 하마트푼>가 되신다는 고백은, 어떤 인간이나 단체도 타인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강제할 법적·영적 권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며(약 4:12),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권한은 오직 그 주인에게만 있습니다(롬 14:4).

[약 4: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롬 14:4]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나. 인간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1)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이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성경적인 전통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2)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언했으며(행 4:19, 5:29),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성도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고전 7:23). 신자는 오직 한 분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사람을 선생이나 아비로 삼아 맹종하지 말아야 합니다(마 23:8-10).

[행 4: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전 7: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마 23: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 23:9]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마 23: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2. 양심의 자유 위반과 맹목적 복종의 위험성

가. 진정한 자유의 파괴:

(1)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명령을 양심의 의무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거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허망함을 지적했습니다(골 2:20-22).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갈 5:1).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는 거짓 가르침에 굴복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갈 1:10, 2:4-5).

나. 이성과 신앙의 파멸:

(1)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죄악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해와 지식에 근거한 것이지,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에 비추어 보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롬 14:23, 사 8:20).

(2) 베뢰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며(행 17:11),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어리석음

[골 2: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 2: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 2:22] (이 모든 것은 쓰는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분과 가르침을 좇느냐

[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 2: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 2:5]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

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요 4:22).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명령을 좇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호 5:11, 렘 8:9),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적그리스도적 권세에 무릎 꿇는 것과 다름없습니다(계 13:12-17). 양심의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온전히 보존됩니다.

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4: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사 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찌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행 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호 5: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

제3항: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참된 목적과 남용 경계

'신자의 자유를 구실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갈 5:13, 벧전 2:16, 벧후 2:19, 요 8:34, 눅 1:74-75).'

1. 자유의 남용과 방종에 대한 경계:

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짓 자유:

(1)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결코 '방종'이나 '부도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는 구실'로 삼는 행위는 그 자유를 주신 본래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고 권면하며, 자유가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렘 8:9]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악하여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갈 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 악을 가리는 도구로서의 자유 경계:

(1) 베드로 사도 또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 2:16)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유를 핑계로 죄의 지배 아래로 스스로 들어간다면, 그는 이미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다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벧전 2: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요 8: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거룩한 목적:

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

(1)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었던 것과 같이, 성도의 해방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2) 사가랴의 찬가에 나타난 대로, 우리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라트류에인 아포보스>(눅 1:74-75)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눅 1:74]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눅 1: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나. 거룩과 의를 향한 자발적 순종:

(1) 여기서 '두려움 없이' 섬긴다는 것은 형벌에 대한 공포(노예적 공포)가 사라졌음을 뜻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2) 된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3. 영적인 적용과 교훈:

가. 진정한 종의 형체로의 회복:

(1)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벧후 2:19)이라는 말씀처럼 멸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 반면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비로소 참된 인격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 사랑의 종노릇을 통한 자유의 완성:

(1)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자유를 내 유익과 정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벧후 2:19]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2)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제4항: 자유와 권위의 조화 및 오용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의 책망과(롬 1:32, 고전 5:1, 5, 11, 13, 요이 1:10-11, 살후 3:6, 14, 딤전 6:3-5, 딛 1:10, 11, 13, 3:10,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 14:15, 20, 3:9)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신 13:6-12, 롬 13:3-4, 요 5:10-11, 스 7:23-28, 계 17:12, 16-17, 느 13:15, 17, 21-22, 25, 30, 왕하 23:5-6, 9, 20-21, 대하 34:33, 15:12-13, 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1. 신적 권위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조화:

가. 권위와 자유의 상호 보존 원리:

(1)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력'<레슈트>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듯(마 12:25), 권위와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 12:25]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 자유는 권위를 견고하게 하며, 권위는 자유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

신 자유는 우리를 정당한 법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자발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복종:

(1) 성도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 2:16)는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벧전 2:13-14), 그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롬 13:1). 따라서 정당하게 행사되는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롬 13:2).

(2)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신앙적 의무입니다(롬 13:5). 이는 권위자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배려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벧전 2: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하라

[벧전 2:13]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벧전 2:14]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하라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정하신바라

[롬 13: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자취하리라

2. 자유의 남용과 질서 파괴에 대한 경고:

가. 기독교 원리에 반하는 행위:

(1) 신앙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정당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자연의 도리'와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적 행동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히 13:17).

(2) 복음적 원리는 결코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무질서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영적 자유는 언제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역사하며, 교회의 널리 알려진 신앙 원리와 배치되는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지라도 신령한 힘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나. 교회 평화와 질서의 파괴적 성격:

(1) 경건하지 않은 의견을 유포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은 그 본질상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죄악입니다.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며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명했습니다(살후 3:6, 11). 그리스도께서

[롬 13:5]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것이라

[히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살후 3: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살후 3: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세우신 영원한 평화는 진리 안에서의 질서를 통해 보존됩니다.

(2)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르침은 성도 간의 연합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견해 차이를 넘어, 교회 전체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공적·교회적 권징의 필연성:

가. 교회의 책망과 징계:

(1)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 교회는 '교회의 책망'이라는 영적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음행이나 우상 숭배, 혹은 이단적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내쫓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고전 5:1-13).

(2) 권징은 범죄자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구원하며(고전 5:5), 다른 성도들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입니다. 진리에 반하는 자를 멀리하고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교훈(요이 1:10-11)은 교

[고전 5: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요이 1: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이 1: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마 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 18: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마 18: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회의 영적 경계심을 일깨웁니다.

나.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치리:

(1) 주님께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 권고하되, 듣지 않으면 교회의 치리에 맡기라고 명하셨습니다(마 18:15-17).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고 책망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권한입니다(살후 3:6, 14, 딛 3:10). 또한 사회적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경우 국가 권력의 정당한 법적 문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롬 13:3-4).

(2)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신정 국가와 교회를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아간의 죄나 고라의 반역에 대한 심판처럼,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공적 처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치리를 통해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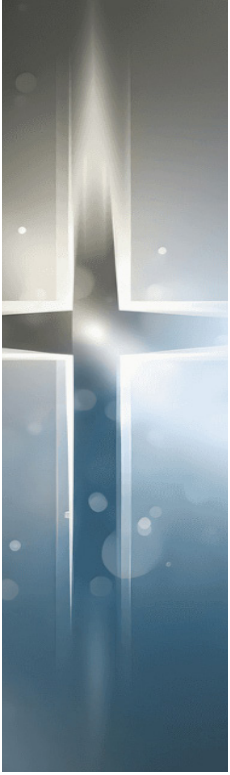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살후 3: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살후 3: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딛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롬 13:3]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롬 13:4]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21 장

/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제 21 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합당한 방식대로만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며, 성경이 명한 찬송, 기도, 말씀 선포, 성례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은 칠 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모든 세속적 업무를 쉬고 오직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제1항: 예배의 대상과 규정적 원리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롬 1:20, 행 17:24, 시 119:68, 렘 10:7, 시 31:23, 18:3, 롬 10:12, 시 62:8, 수 24:14,

막 12:33).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 주셨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는 어떤 가시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신 12:32, 마 15:9, 행 17:25, 마 4:9-10, 신 4:15-20, 출 20:4-6, 골 2:23)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탄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1. 일반 계시와 예배의 당위성

가.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현현:

(1) 신앙고백서는 먼저 '자연'<테바>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권을 증거한다고 선언합니다.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마땅한 의무를 부여합니다(롬 1:20). 하나님의 선하심과 만물에 베푸시는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시 119:68, 막 12:33).

(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시 119: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막 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나으니이다

로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이 본분입니다(수 24:14).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비참에 빠졌습니다.

[수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시 18: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 62:8]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나. 예배의 보편적 의무와 한계:

(1)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부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곤경 중에 주를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보편적 요청입니다(시 18:3, 62:8).

(2) 하지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가리키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인간의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2. 예배의 규정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방법:

(1)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규정적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습니다(신 12:32).

[신 12:3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찌니라

(2) 인간의 망상이나 의향, 혹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에 따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의 예배를 헛된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마 15:9).

[마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나. 우상 숭배와 자의적 숭배의 배격:

(1) 하나님은 가시적인 물질이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물질적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으며, 형상을 통한 예배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흐르게 됩니다(출 20:4-6, 신 4:15-20).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의적 숭배'<에델로트레스케

이아>이며(골 2:23), 이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길입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미적 감각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골 2: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계시된 말씀 중심의 예배: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예배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신약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뜻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언약적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나. 마음과 규범의 일치:

(1) 성도는 '무엇이 나를 감동시키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 규범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2) 동시에 외적 규범만을 따르는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라>와 뜨거운 사랑을 담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바를 따라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2항: 예배의 대상과 유일한 중보자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마 4:10, 요 5:23, 고후 13:13, 계 5:11-13). 천사에게나 성인에게나 그밖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골 2:18, 계 19:10, 롬 1:25).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요 14:6, 딤전 2:5, 엡 2:18, 골 3:17).'

1.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예배

가.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1) 예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성부는 예배의 기획자이시며, 성자는 예배의 통로이시고, 성령은 예배의 부양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은 예배의 본질적 요소입니다(고후 13:13).

[고후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찌어다

(2)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마 4:10).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요 5:23), 하늘의 모든 권세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만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계 5:13).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요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계 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나. 피조물 숭배의 금지:

(1) 천사나 죽은 성인(Saint),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을 때, 천사는 "나는 너와 및...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만류했습니다(계 19:10).

[계 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

(2) 천사 숭배나 인간을 신격화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죄악

입니다(롬 1:25). 성도는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골 2:18).

2.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적 예배

가. 중보자의 필연성과 유일성:

(1) 인간의 타락 이후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직접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딤전 2:5).

(2)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6).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으며, 오직 그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엡 2:18).

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1)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롬 1: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골 2:18] 누구든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엡 2: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골 3:17).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코헨 하가돌>이 되셔서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납되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공로: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예배의 특권입니다.

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1) 성도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인도자나 다른 피조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2)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내 정성"이 예배의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근거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열심은 자기 만족에 불과함을 기억하고, 오직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제3항: 기도의 본질과 합당한 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이다(빌 4:6).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시 65:2).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각자가 이해력과 존경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시 47:7, 전 5:1-2, 히 12:28, 창 18:27, 약 5:16, 1:67, 막 11:24, 마

6:12, 14-15, 골 4:2, 엡 6:18)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일 5:14) 성령의 도움을 얻어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요 14:13-14, 벧전 2:5). 만약 음성을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고전 14:14).'

1. 예배로서의 기도와 보편적 의무

가. 감사의 기도가 가진 예배적 가치:

(1) 신앙고백서는 기도를 단순한 간구가 아닌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경배입니다(빌 4:6).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 기도는 선택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시 65:2).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는 것은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며, 기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엘로힘>만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 65: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나.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조건:

(1) 기도가 하나님께 달상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내면적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지적인 '이해력'과 거룩한 '존경', 자신을 낮추는 '겸손', 간절한 '열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가 기도의 향기를 만듭니다(약 5:16, 엡 6:18).

(2) 외식적인 중언부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중심'<레브>을 다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며, 인내로써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기도의 신적 방법과 언어적 명료성

가. 삼위일체적 기도의 원리:

(1) 참된 기도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일 5:14), 성령의 도움을 얻어(롬 8:26),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요 14:13-14). 이것이 기도가 상달되는 유일한 합법적 통로입니다.

[약 5: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2) 인간의 육신적 정욕을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으며, '성령'<루아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간구는 하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나. 공적 기도의 명료성과 덕 세우기:

(1) 음성을 내어 기도할 때, 특히 공적 예배에서의 기도는 반드시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고전 14:14, 19).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고전 14:19]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공적 기도는 회중의 '아멘'을 이끌어내어 함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주의적 언어나 횡설수설하는 기도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기도의 '명료성'<비나>을 통해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휘장을 지나 보좌로 나아가는 담력:

(1) 구속사적으로 기도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얻게 된 신약 성도의 보혈적 특권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두려움 속에 나아갔으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 4:16).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2)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언약적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작정을 성취해 가십니다.

나. 기도의 생활화와 영적 파수꾼:

(1)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기도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우므로, 항상 감사를 기도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2)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시간입

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셰키나>를 경험하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4항: 기도의 대상과 범위

'기도는 모든 합당한 것을 들어 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5:14). 그리고 현재 살아 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로되(딤전 2:1-2, 요 17:20, 삼하 7:29, 룻 4:12)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삼하 12:21-23, 눅 16:25-26, 계 14:13).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요일 5:16).'

1. 기도의 합당한 주제와 대상

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

(1)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모든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 5:14)고 명

[요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시하며, 기도의 기준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2) 기도의 정당성은 간구하는 자의 열심보다 간구하는 내용의 합당함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요구합니다.

나. 살아 있는 자와 장차 올 세대를 위한 중보:

(1) 성도는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위정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딤전 2:1-2). 또한 주님께서 장차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요 17:20), 우리는 '장차 출생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도 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중보 기도는 구속사의 지평을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하는 사역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그 세대를 위해 기도했듯이(삼하 7:29), 우리의 기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적인 거름이 됩니다.

[딤전 2: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딤전 2: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요 17: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삼하 7:29]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2. 기도가 금지된 영역과 경계

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배격:

(1)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자 금식을 그치며 사후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삼하 12:21-23). 죽음 이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상태를 바꿀 수 없으므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삼하 12:21]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어찌 된 일이니이까
[삼하 12:22]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어니와
[삼하 12:23] 시방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 죽음은 인간의 기회가 끝나는 지점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변경하려는 인위적인 시도이며, 구원론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오류'<미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경계:

(1)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쉬라고 권고합니다(요일 5:16). 이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며 적대하는 완악한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존중하는 기도의

[요일 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한계를 보여줍니다.

(2)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공의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체데크>가 실현되는 것을 묵묵히 인정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기도의 유효성과 하나님의 섭리: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며, 성도의 간구를 구속사적 진전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2)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특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간구'<테필라>를 사

용하십니다.

나. 기도의 시급성과 책임:

(1) 죽은 뒤에는 기도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기도는 살아 있는 자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2) 성도는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그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뿐임을 기억하고,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중보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에무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5항: 예배의 구성 요소와 구체적 방편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행 15:21, 계 1:3).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딤후 4:2)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약 1:22, 행 10:33, 마 13:19, 히 4:2, 사 66:2).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골 3:16, 엡 5:19, 약 5:13)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값있게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마 28:19, 고전 11:23-29, 행 2:42). 이 외에 종교적 맹세와(신 6:13, 느 10:29) (그리고) 서원과(사 19:21, 전 5:4-5, 행 18:18) 엄숙한 금식과(욜 2:12, 에 4:16, 마 9:15 고전 7:5) 특별한 절기에 따라(시 107:1-43, 에 9:22) 드리는 감사예배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절기에 따라 거룩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히 12:28).'

1.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및 성례

가. 말씀의 낭독과 선포에 임하는 자세:

(1) 신앙고백서는 예배의 핵심 요소로 말씀의 낭독과 설교를 제시합니다. 성경 읽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르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로부터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었듯이(행 15:21),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계 1:3).

[행 15: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회당에서 날마다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흠이 없게' 전파해

야 하며(딤후 4:2), 인위적인 가르침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수반하며, 오직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선포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 정성 어린 청종과 순종의 의무:

(1) 신자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처럼(행 10:33) 선포되는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력과 믿음'이 결합되어야 영적 유익이 되며(히 4:2),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약 1:22).

[행 10: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히 4:2]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약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 특히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마 13:19) 깨어 있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떨며 순복하려는 자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사 66:2).

[마 13: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

다. 찬송과 성례의 시행:

(1) 예배에는 '마음에 감사를 품고 부르는 시'가 있어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

르며 화답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엡 5:19, 골 3:16).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약 5:13).

(2)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마 28:19, 고전 11:23-29)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예배의 기본 골격이며,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는 중요한 외적 수단입니다(행 2:42).

2. 특별한 경우의 종교적 의무와 절기

가. 맹세와 서원의 경건성:

(1) 일반적인 예배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이 예배의 일환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신 6:13)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엄숙한 행위입니다(느 10:29).

(2) 서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이므로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고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전 5:4-5, 사 19:21),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

에뿌리운자요

[사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세상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엡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 5: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행 18:18) 신앙의 진지한 고백으로서 그 가치를 지닙니다.

나. 금식과 감사예배의 기회:

(1) 환난의 때나 특별한 회개가 필요할 때는 '엄숙한 금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욜 2:12, 에 4:16). 주님께서도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 9:15). 부부 사이에도 기도를 위해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금식하며 신령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고전 7:5).

(2) 반대로 큰 기쁨이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는 절기에 따라 '감사예배'를 드려야 합니다(에 9:22).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거듭 권면합니다(시 107편).

3. 예배의 태도와 궁극적 목적

가. 경건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산 제사:

(1) 이 모든 예배의 요소들은 '여러 절기에 따라 거룩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합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전 5: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전 5: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욜 2:12]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 9:15]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니다. 이는 형식적인 의식의 준수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모든 순서에 녹아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예의:

(1)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 12:28)라는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2)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는 성도를 거룩하게 세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온전히 부합해야 합니다.

제6항: 예배의 장소와 공예배의 중요성

'기도나 그밖에 예배의 무슨 부분이 복음의 시대에 있는 현재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

거나, 또는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은 아니다(요 4:21). 하나님은 어디서든지(말 1:11, 딤전 2:8) 영과 진리 〔안에서〕 (요 4:23-24)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렘 10:25, 신 6:6-7, 욥 1:5, 삼하 6:18, 20, 벧전 3:7, 행 10:2) 매일(마 6:11, 수 24:15) 드리든지, 혼자서 (마 6:6, 엡 6:18) 은밀한 곳에서 드리든지, 또는 공동적으로는 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실 때에는(사 56:7, 히 10:25, 잠 1:20-21, 24, 8:34, 행 13:42, 눅 4:16, 행 2:42)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1. 예배 장소의 보편성과 영적 본질:

가. 장소적 국한으로부터의 복음적 해방:

(1)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시대에는 예배의 장소가 고정되거나 특정한 곳에서 드린다고 하여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 4: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말 1:11)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룩한 손을 들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으며(딤전 2:8), 장소라는 외적 조건보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내적 태도가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요 4:23-24).

[말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딤전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나. 다양한 환경에서의 개인적·가정적 예배:

(1) 참된 경건은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으며,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신 6:6-7). 욥이 자녀들을 위해 매일 번제를 드린 것처럼(욥 1:5), 신자는 가정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벧전 3:7).

[신 6: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2) 또한 성도는 '은밀한 곳'에서 혼자 드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6:6). 이러

한 개인적 경건의 시간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있게 하며(엡 6:18), 공적인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뿌리가 됩니다.

2. 공적 예배의 엄숙성과 거룩한 의무:

가. 공적 모임의 우선순위와 엄숙성:

(1)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적 예배'는 더욱 엄숙하고 특별한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섭리를 통해 자기 백성을 한자리에 부르십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서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사 56:7)이라 일컬어지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2) 초기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행 2:42), 공적 모임은 성도의 교제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주의 전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분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잠 8:34).

것이며

[욥 1:5]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벧전 3:7]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 공예배 무시에 대한 경계:

(1) 신앙고백서는 공적 모임을 '경솔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사도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히 10:25)라고 권면했습니다.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2) 주님께서도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처럼(눅 4:16), 성도는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을 존중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잠 1:20-21, 24), 공적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 56:7]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잠 8: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히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눅 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잠 1: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제7항: 안식일의 제정과 성수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원한 명령으로써 모든 시대 모

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특히 칠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출 20:8, 10, 11, 사 56:2, 4, 67, 사 56:6).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 날로(창 2:23, 고전 16:12, 행 20:7) 변경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계 1:10). 이 날은 세상 끝 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출 20:8, 10, 마 5:17-18).

[잠 1:21] 훤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잠 1:24]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 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1. 안식일의 신성한 제정과 도덕적 성격:

가.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특별한 지정:

(1)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의무를 구체화하시어, '칠일 중의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이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2) 안식일 계명은 특정 시대나 민족에 국한된 의식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도덕적 계명'

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고 명시하며, 이 날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안식에 근거한 보편적 원리임을 확증합니다.

나. 안식의 복과 거룩한 구별:

(1)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에게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 (사 56:6-7)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 이 계명은 인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인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성수는 신자가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구별된 거룩한 의무입니다.

2.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주일로의 전환:

가. 창조의 안식과 부활의 승리: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 56: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사 56:7]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1) 안식일은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 (제7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창조의 질서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창 2:2-3).

(2)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안식일은 '주간의 첫째 날' (제8일 혹은 현재의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창조의 안식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속의 안식을 기념합니다.

[창 2: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 2: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나. 주일의 확립과 영속성:

(1) 신약 성경은 이 날을 '주일' <헤 퀴리아케 헤메라> (계 1:10)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구별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떡을 떼고 연보를 모으는 등 주일을 공적인 예배와 교제의 날로 지켰습니다(행 20:7; 고전 16:1-2).

(2) 이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

[계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행 20:7]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고전 16:1] 성도를 위하

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으므로 (마 5:17-18), 안식일의 외적 날짜는 부활을 기점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도덕적 본질과 거룩한 안식의 정신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하라
[고전 16:2]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하라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8항: 안식일(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이 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날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며,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서도 떠나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출 20:8, 16:23, 25-26, 29-30, 31:15-17, 사 58:13, 느 13:15-22)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에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사 58:13, 마 12:1-13).'

1. 안식일을 위한 준비와 거룩한 쉼

가. 세심한 준비와 정돈의 의무:

(1) 신앙고백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주일 당일만의 문제

가 아니라, 평일의 삶을 어떻게 갈무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전날에 갑절의 만나를 거두어 예비했던 것처럼(출 16:23), 신자는 거룩한 날의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 16: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 '안식일'<샤바트>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출 20:8)은 능동적인 태도를 전제합니다. 세속적인 근심과 업무를 미리 정리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확보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시작입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세상적 일과 오락으로부터의 분리:

(1) 성도는 주일 '하루 종일' 세상적인 업무, 말, 생각에서 떠나 거룩하게 쉬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넘어 영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사 58:13).

[사 58: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2)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짐을 나르거나 장사하는 자들을 엄격히 경계했던 것(느 13:15-22)

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화의 날(출 31:15-17)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능동적인 예배와 자비의 실천

가. 공적·사적 예배에의 전념:

(1) 안식일의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쓰는 상태'입니다. 공적인 공동체 예배는 물론, 사적인 경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안식일의 규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쁘게 할 때, 그들을 세상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사 58:14). 예배는 이 복된 안식을 누리는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나. 필수의무와 자비의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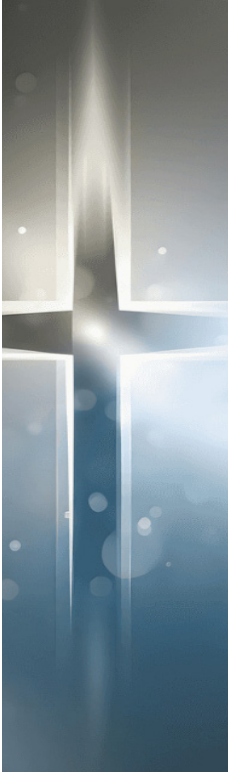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1) 안식일을 지키는 규범에는 '필요한 의무에나 자비를 베푸는 일'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출 31:15]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찌니라
[출 31: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 31: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사 58:14]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 12:1-13).

(2)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나 병자를 돌보고 곤경에 처한 자를 돕는 자비의 행동은 안식일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그 자비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22 장

/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제 22 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엄숙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사안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약속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거나 불가능한 약속을 서원하는 것은 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1항: 합당한 맹세의 정의와 예배적 성격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신 10:20).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출 20:7, 레 19:12, 고후 1:23, 대하 6:22-23)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1. 맹세의 신성한 기원과 예배적 본질:

가. 경건한 예배로서의 맹세:

(1) 신앙고백서는 합당한 맹세를 단순한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현존 앞에서 행해지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10:20)고 명함으로써, 맹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 1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2) 따라서 맹세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자는 자신의 진실함을 보증하기 위해 가장 높으신 권위인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증언과 판단에의 호소:

(1) 맹세하는 자는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한 내용이 진실함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언자로 부릅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만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서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만약 자신의 고백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하나님께서 '진리에 따라 판단'하시고 보응하시기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고후 1:23)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실성을 보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을 추구하는 거룩한 선서입니다.

[고후 1:23]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 맹세의 책임과 망령된 일의 경계:

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의무:

(1)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 20:7)고 경고합니다. 맹세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됨을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인식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만약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레위기 19:12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명시하며, 맹세가 도덕적 책임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대한 일임을 가르칩니다.

[레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공의로운 판단자이신 하나님:

(1) 맹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시비를 판단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대하 6:22-23). 맹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인간 세상의 질서 속에 도입하는 장치입니다.

[대하 6:22]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키심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대하 6:23]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자신의 언행을 진실하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게 보존해야 하며, 맹세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신뢰의 기초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제2항: 맹세의 대상과 경건한 태도 및 정당성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신 6:1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써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출 20:7, 렘 5:7, 마 5:34, 37, 약 5:12).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구약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히 6:16, 고후 1:23, 사 65:16).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청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왕상 8:31, 느 13:25, 스 10:5).'

1. 맹세의 유일한 대상과 경외심

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드리는 맹세:

(1) 신앙고백서는 맹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함을 천명합니다. 맹세는 진리의 증인이자 마음의 감찰자이신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예배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3)는 말씀은 맹세가 오직 창조주께만 드려야 할 신앙적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2)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이르아 베카보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맹세가 단순한 언어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전(御前)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담보로 내거는 엄중한 고백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 경솔한 맹세와 우상 숭배적 맹세의 금지:

(1)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은 제3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출 20:7). 또한 피조물이나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증오를 받아 마땅합니다(렘 5:7).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렘 5:7]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홀연히 모이며

(2) 주님께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무엇으로

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마 5:34, 약 5:12). 이는 맹세를 남발하여 진실성을 훼손하지 말고, 성도의 말은 오직 "예"와 "아니오"로 충분할 만큼 정직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마 5:37).

2. 맹세의 성경적 근거와 공적 의무

가. 신구약에 나타난 맹세의 합법성:

(1) 맹세는 인간 사이의 모든 다툼을 종결짓는 최후의 확정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입니다(히 6:16). 이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맹세한 바 있습니다(고후 1:23).

(2) 진리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며, 복음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의 하나님으로 불리며 경배를 받으십니다(사 65:16). 따라서 합당한 때에 드리는 진실한 맹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마 5: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약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마 5: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히 6: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확정이니라

[고후 1:23]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 65:16]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나. 권위에 의한 맹세의 요청과 순종:

(1) '합당한 맹세'가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청될 때' 신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웃에게 범죄한 자가 제단 앞에서 맹세하게 함으로써 공의를 세우려 했습니다(왕상 8:31).

(2)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영적 개혁을 위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엄중한 맹세를 시켰습니다(스 10:5, 느 13:25). 이처럼 공익과 공의,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해 권위자가 요청하는 맹세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정당한 사회적·종교적 책임입니다.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왕상 8:31]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키심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스 10:5]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느 13:25]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제3항: 맹세의 신중함과 정당한 거행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확언해서는 안 된다(출 20:7, 렘 4:2).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선하고 옳은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맹세하면 안된다. 그리고 옳다고 믿는 것이나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고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맹세하여도 안 된다(창 24:2-3, 5-6, 8-9).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때에도 선하고 의로운 것과 관련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민 5:19, 21, 느 5:12, 출 22:7-11).'

1. 맹세의 자격과 신중한 태도:

가. 엄숙한 행사에 합당한 확신:

(1)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맹세하는 자는 자신이 '진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모호한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확언해서는 안 됩니다.

(2) 예레미야 선지자는 맹세의 삼대 원리로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렘 4:2)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맹세가 주관적인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렘 4:2]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 선한 목적과 실천 가능성의 전제:

(1) 맹세의 내용은 반드시 '선하고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며,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2) 또한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고 행하려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만 맹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 여자를 아들의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서약했던 것처럼 (창 24:2-9),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거짓된 의도를 품은 채 맹세하여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맹세의 의무와 공적 권위에 대한 복종:

가. 합법적 요청에 따른 맹세의 의무:

(1) 국가나 교회와 같은 '합법적인 권위'가 진실을 밝히거나 공익을 위해 맹세를 요청할 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공의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모세 율법에서도 의심스러운 사건이나 이웃

의 물건을 맡은 일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때, 여호와 앞에 맹세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 5:19-21, 출 22:10-11). 정당한 맹세는 불신과 갈등을 종결짓는 화평의 도구가 됩니다.

나. 의로운 맹세의 거부와 그 폐해:

(1) 선하고 의로운 일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진리를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귀인들과 민장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시켰을 때(느 5:12), 그들은 그 맹세를 통해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2) 구속사적으로 맹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변치 않는 언약을 반영합니다. 인간의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행하는 '의로운 맹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맹세를 남용하지 않되,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이에 임해야 합니다.

[민 5:19]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민 5:20]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민 5:21]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줏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

[출 22: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출 22:11]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느 5:12]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

제4항: 맹세의 언어적 명료성과 이행의 신실성

'맹세를 할 때는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로 하지 말고 쉽고 평범한 말로 하여야 한다(렘 4:2, 시 24:4). 죄악이 아닌 사실을 맹세했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져야 한다(삼상 25:22, 32-34, 시 15:4). 또한 신앙의 이해가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불신자에게 행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겔 17:16, 18-19, 수 9:18-19, 삼하 21:1).'

고 저희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하고

1. 맹세의 언어적 정직성과 명료성

가. 진실과 정의에 근거한 명확한 표현:

(1) 신앙고백서는 맹세를 할 때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을 기만하기 위해 언어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므로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써 행해져야 합니다(렘 4:2).

[렘 4:2]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2) 마음의 순결을 가진 자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

니다(시 24:4). 따라서 맹세의 내용은 제3자가 듣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쉽고 평범한 말'이어야 하며, 이는 곧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드러내는 외적 표징이 됩니다.

[시 24: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나. 기만적 의도의 배격:

(1) 맹세에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심각한 불경죄입니다.

(2) 하나님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므로, 성도는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말고 투명한 언어로 자신의 진실을 담보해야 합니다.

2. 맹세 이행의 신실성과 자기희생

가. 손해를 감수하는 신실함:

(1) 일단 서원하거나 맹세한 내용이 '죄악이 아닌 사실'이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의 특징

으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시 15:4)를 꼽았습니다.

(2) 만일 맹세 자체가 범죄를 위한 것이라면(예: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려 했던 다윗의 경솔한 맹세), 그것은 즉시 중단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삼상 25:22, 32-34). 그러나 정당한 맹세의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나 경제적 손실을 핑계로 이를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야 할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나. 불신자 및 타인에 대한 약속의 준수:

(1) 맹세의 구속력은 상대방의 신앙 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해가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불신자'에게 한 맹세라도 결코 어겨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맺은 조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수 9:18-19).

(2) 만약 불신자와의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어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이에서 모욕을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

[시 15:4]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아니하며

[삼상 25:22]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었더라

[삼상 25: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찌로다

[삼상 25: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찌며 또 네게 복이 있을찌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삼상 25: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수 9:18] 그러나 회중

의 맹세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맹세를 업신여긴 것으로 간주하여 심판하셨으며(겔 17:16-19), 사울 왕이 기브온과의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죽였을 때 그 죄로 인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임했습니다(삼하 21:1). 성도의 정직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수 9:19]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겔 17:16]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겔 17:17]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겔 17:18]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겔 17:19]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5항: 서원의 성격과 성실한 이행

'서원도 서약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을 행할 때도 동일하게 경건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동일한 성실성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사 19:21, 전 5:4-6, 시 61:8, 66:13-14).'

1. 서원의 신성한 성격과 경건한 주의:

가. 맹세와 동일한 영적 무게:

(1) 신앙고백서는 서원이 본질적으로 '서약(맹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맹세가 인간 사회의 신뢰를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라면, 서원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헌신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서원을

행할 때는 맹세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는 '경건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사 19:21).

(2) 서원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원하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리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진실한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 성실한 실행의 의무:

(1) 서원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실성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할 구속력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자의 행위로 간주하시며, 이를 엄중히 다루십니다(전 5:4-5). 성도는 환난 중에 입술로 낸 서원이라 할지라도 평안할 때에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시 66:13-14).

(2) 만약 서원을 해놓고 '실수'였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죄가 됩니다(전 5:6). 성도는 매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삼하 21:1]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삼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하시니라

[사 19:21] 여호와께서 애굽에 알게 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전 5: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전 5: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전 5:6]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의 삶 속에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기를 힘쓰며(시 61:8),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인하여 진노하사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멸하시게 하랴

[시 61:8]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사 19:21]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교훈:

가. 하나님 중심의 신실함 회복:

(1) 구속사적으로 서원은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애굽인들조차 여호와를 알고 서원하며 예물을 드릴 것이라는 예언은(사 19:21), 서원이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선교적 도구가 됨을 보여줍니다.

(2) 성도는 서원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과정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이 됩니다.

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1) 서원의 진정한 동기는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환난 때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시 66:13-14), 성도는 그 기쁨을 서원의 이행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는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의 예배입니다.

[시 66:13]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시 66:14]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2) 우리는 서원을 율법적인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사귐 속에서 드리는 사랑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보다 그 법도를 즐거워하며 성실히 행하려는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6항: 서원의 대상과 합당한 조건 및 성격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시 76:11, 렘 44:25-26). 그것이 용납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며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나 또는 원하는 것이 허락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해야 한다.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무와 그 밖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서원의 뜻에 합치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더욱 엄격하게 행해야 한다(신 23:21, 23, 시 50:14, 창

28:20-22, 삼상 1:11, 시 66:13-14, 132:2-5).'

1. 서원의 유일한 대상과 자발적 성격

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헌신:

(1) 서원<네데르>은 맹세와 마찬가지로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해야 합니다. 서원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맺는 직접적인 약속이며 예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시 76:11)고 명하며 그 대상이 오직 창조주이심을 밝힙니다.

(2)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서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하늘 여신에게 과자를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렘 44:25-26). 서원은 오직 주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 자발성과 믿음에 근거한 서원:

(1) 서원이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자발적이어야'

[시 76:11]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

[렘 44: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실행하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왕후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시키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렘 44:26]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사심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외식으로 하는 서원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제물과 같으므로, 입술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필수적입니다(신 23:23). 하나님은 강요된 제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을 기뻐하십니다(시 50:14).

2. 서원의 목적과 엄격한 이행

가. 감사의 응답으로서의 서원:

(1) 서원의 동기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한 보답이거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허락될 것'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한 것(창 28:20-22)이 그 예입니다.

(2) 또한 한나가 아들을 구하며 그를 평생에 여호

을 두고 맹세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신 23:23]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할찌니라

[시 50: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창 28:20]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창 28:21]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

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처럼(삼상 1:11),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실한 기도와 결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드리는 거룩한 감사의 예표입니다.

나. 서원의 엄격한 이행과 성실함:

(1) 일단 서원했다면 '그것을 더욱 엄격하게 행해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므로 더디 갚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신 23:21). 시편 기자는 환난 때에 자기 입술이 낸 서원을 번제로 갚겠다고 고백하며 그 신실함을 드러냈습니다(시 66:13-14).

(2)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를 찾기까지 잠들지 않겠다고 서원하며 고군분투했던 것(시 132:2-5)처럼, 서원을 이행하는 과정은 성도의 삶을 절제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서원은 단순한 말의 약속을 넘어,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키려는 강력한 영적 헌신의 도구입니다.

제7항: 그릇된 서원에 대한 경계와 비판

겠나이다 하였더라

[삼상 1:11]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신 23: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시 66:13]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시 66:14]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시 132:2]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시 132:3]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시 132:4]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은 명령을 실천하는 데 방해되거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행 23:12, 14, 막 6:26, 민 30:5, 8, 12-13).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 안에서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나 공언한 궁핍생활과 규칙적인 복종을 서원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고상한 의미에서 너무나 먼 것이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는 도저히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신적이고 사악한 함정이다(마 19:11-12, 고전 7:2, 9, 엡 4:28, 벧전 4:2, 고전 7:23).'

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시 132:5]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1. 서원의 한계와 성경적 기준:

가. 말씀에 반하는 악한 서원의 금지:

(1) 서원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을 행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일 뿐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

의 결의는(행 23:12, 14) 거룩한 이름을 빙자한 살인 모의에 불과했습니다.

(2) 또한 서원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헤롯 왕이 살로메에게 경솔하게 서약하여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사건은(막 6:26), 잘못된 서원이 어떻게 더 큰 불순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행 23: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하고

[행 23: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막 6: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나. 인간의 능력과 신적 약속의 범위 내 서원:

(1) 성도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교만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수기 30장의 규례와 같이, 서원은 그를 책임지는 권위(아버지나 남편)의 동의 하에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했습니다(민 30:5, 8). 이처럼 서원은 현실적이고 인격적인 책임감이 전제된 상태에서 드려져야 하며, 신비주의적 열광에 사로잡혀 이행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

[민 30: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민 30:8]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여 입술로 경솔히 발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해서는 안 됩니다.

2. 수도원적 서원에 대한 비판과 영적 자유:

가. 인위적인 금욕주의 서원의 위험성:

(1) 신앙고백서는 당시 교황청 수도원의 '일생 동안의 독신, 궁핍, 복종의 서원'을 '미신적이고 사악한 함정'으로 규정합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각자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가르치며(고전 7:2, 9),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지(마 19:11-12) 모든 이에게 강요될 의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또한 '공언한 궁핍'은 성경적 경제 윤리인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는 명령에 반하며, 무조건적인 '규칙적 복종'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고전 7:23)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벧전 4:2).

나. 복음적 경건과 인위적 굴레의 구별:

[고전 7: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전 7: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마 19:11]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찌니라
[마 19:12]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찌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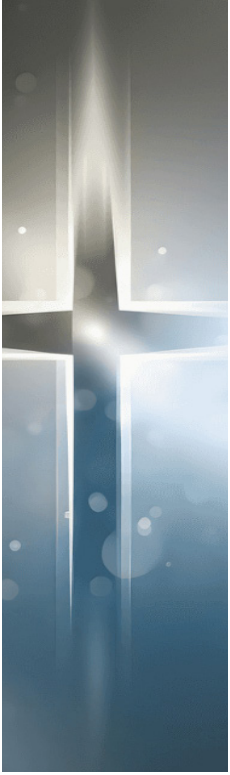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엡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1) 인위적으로 고안된 고행이나 서원은 외견상 고상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성경적 경건의 의미에서 멀리 떨어진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서원들은 신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위선의 함정에 빠뜨릴 뿐입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멍에나 인간이 만든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진정한 서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양심을 인간의 전통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말씀의 원리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고전 7: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벧전 4: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23 장

/

공직자에 관하여

제 23 장 공직자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3장 국가 공직자에 관하여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위정자는 백성을 보호하고 공의를 집행하며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며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1항: 공직 제도의 신적 기원과 목적

'모든 세계의 최고의 주님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선을 위하여 백성들 위에 공직 제도를 두셔서 자기의 관할 하에 두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힘을 주어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반면,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셨다(롬 13:1-4, 벧전 2:13-14).'

1. 공직 제도의 기원과 하나님의 주권

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 기구로서의 공직:

(1) 신앙고백서는 공직 제도(Civil Magistracy)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최고의 주님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명시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는 그분의 사역자들입니다(롬 13:1).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2) 공직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사회의 '공동선'<토브 미슈파트>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위임된 대리적 성격을 갖습니다.

나. 신적 임명에 근거한 복종의 기초:

(1) 하나님께서 백성들 위에 공직자를 두셨다는 사실은 성도가 국가의 질서에 복종해야 할 신앙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공직자 개인의 인격

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직무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강제력의 정당성

가. 칼의 힘과 공의의 집행:

(1) 하나님은 공직자들에게 '칼의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직자가 공연히 칼을 차지 않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롬 13:4).

[롬 13:4]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2) 이러한 강제력은 사적인 복수나 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의 통치 원리로 구현하기 위해 주신 도구입니다. 공직자가 이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사회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선행의 장려와 악행의 처벌:

(1) 공직자의 이중적 사명은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

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총독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벧전 2:13-14).

(2) 공직 제도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억제하고 인간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방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성도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국가를 보존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벧전 2:13]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벧전 2:14]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하라

제2항: 신자의 공직 수행과 정당한 전쟁

'신자가 이 공직에 임명될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잠 8:15-16, 롬 13:1-2, 4).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특별히 그 나라의 좋은 법에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 2:10-12, 딤전 2:2, 시 82:3-4, 삼하 23:3, 벧전 2:13). 이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정의롭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눅 3:14, 롬 13:4, 마 8:9-10, 행 10:1-2, 계 17:14,

16).'

1. 신자의 공직 수행과 통치 원리:

가. 공직 수락의 정당성과 신적 기원:

(1) 신앙고백서는 신자가 국가의 '공직'<마기스트라투스>에 임명될 때 이를 수락하고 집행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한 일'임을 천명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잠 8: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 8: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2) 따라서 공직은 신자가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냄을 받은 거룩한 소명의 자리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므로(롬 13:1), 신자 공직자는 공적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롬 13:4).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롬 13:4]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나. 공직 수행의 목표: 경건, 정의, 평화:

(1) 신자 공직자는 '그 나라의 좋은 법'에 근거하여 통치하되, 궁극적으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딤전 2:2).

[딤전 2: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2) 또한 공직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공의를 베풀며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시 82:3-4). 다윗의 유언과 같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삼하 23:3)가 되어야 하며, 이는 세속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방편입니다.

[시 82: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찌며
[시 82:4]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찌니라 하시는도다

[삼하 23: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자여

2. 정당한 전쟁과 국가의 방어권:

가. 합법적 전쟁의 가능성과 조건:

(1) 신앙고백서는 신약 시대(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도 '정의롭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무분별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공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이며 공의로운 전쟁' (Just War)을 의미합니다.

(2) 국가는 칼의 권세를 가졌으므로 악행하는 자를 보응하기 위해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롬 13:4).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눅 3:14)고 권고했을 때 직업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마 8:9-10) 등은 군직과 국가 방어의 기능이 복음과 충돌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눅 3:14]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마 8: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 8:10]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나. 평화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

(1) 전쟁은 결코 선호되는 수단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칼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대행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군사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2) 구속사적으로 전쟁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완성하실 영원한 평화를 예표적으로 갈망하게 합니다(계 17:14). 지상의 공직자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성도들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

[계 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대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항: 공직자의 직무 한계와 교회의 보호 의무

'공직자는 스스로 설교와 성례를 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열쇠들을 취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대하 26:18, 마 16:19, 고전 4:1-2). 하물며 믿음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요 18:36, 말 2:7, 행 5:29).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한 교파에 다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이다. 모든 신자들이 폭력에나 위험에 부딪치지 않고 그들의 성스러운 기능의 모든 부분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사 49:2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정규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하셨으므로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시 105:5, 행 18:14-16). 공무원의 할 일은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실제적으로 보

호하고 지켜 주는 동시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든지 냉대와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 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이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삼하 23:3, 딤전 2:1, 롬 13:4).'

1. 교회와 국가의 직무 구별과 한계

가. 영적 통치권의 독립성:

(1) 신앙고백서는 공직자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인 '설교와 성례'를 집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공직자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마프테오트 말쿠트 하샤마임>인 천국 열쇠의 권한(권징과 말씀 선포)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웃시야가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려다 문둥병에 걸린 사건(대하 26:18)은 국가 권력이 영적 권위를 찬탈하려 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2) 교회와 국가는 그 기원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요 18:36), 영적 진리의 수호는 제사장적 입술을 가진 사역자들의 몫입니다(말 2:7). 따라서 국가 권력이 성도의 양심과 믿음의 핵심에

[대하 26:18] 웃시야 왕을 곁서서 저에게 이르되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성별함을 입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간섭하려 한다면,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행 5:29).

나. 청지기적 사역자로서의 공직자:

(1) 공직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서(고전 4:1-2), 자신에게 주어진 세속적 통치권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교회의 상위 기관이 아니라, 각기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임을 의미합니다.

2. 종교적 자유의 보장과 공직자의 보호 책임

가.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보호 의무:

(1) 공직자의 긍정적 의무는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사 49:23). 이때 공직자는 특정 교파에 특혜를 주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협 없이 신앙의 본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또한 국가의 법은 교회의 자율적인 치리와 훈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갈리오 총독이 종

[말 2: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어늘

[행 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전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고전 4: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 49:23]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적인 논쟁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행 18:14-16), 국가는 교회가 스스로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나. 시민적 평화와 질서 유지의 임무:

(1) 공직자는 '시민을 실제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이 종교나 신념의 이유로 부당한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는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는 공직자의 기본 자질입니다(삼하 23:3). 국가는 모든 시민이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녕을 책임져야 합니다(딤전 2:1).

(2) 종교적 모임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위임받은 칼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입니다(롬 13:4). 공직자가 사회적 냉대와 폭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때, 교회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교회가 서로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속사적 조화입니다.

[행 18: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당하거니와

[행 18: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행 18:16] 저희를 재판정에서 쫓아내니

[삼하 23: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딤전 2: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롬 13:4]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

제4항: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의무와 국가 주권

'모든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딤전 2:1-2),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벧전 2:17), 세금이나 그 밖의 공납금을 바치고(롬 13:6-7), 양심에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롬 13:5, 딛 1:3),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공직자가 가지는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복종을 거절할 수는 없다(벧전 2:13-14, 16). 신자도 예외가 아니다(롬 13:1, 왕상 2:35, 행 25:9-11, 벧후 2:1, 10-11, 유 1:8-11). 더욱이 교황은 그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력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않는다. 가령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가식적인 이유를 붙이더라도(살후 2:4, 계 13:15-17) 그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다.'

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1. 공직자에 대한 신자의 보편적 의무:

가. 기도와 존중 및 물질적 의무:

(1) 성도는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공직자를 위하

여 기도'해야 할 영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딤전 2:1-3). 이는 그들이 공의롭게 통치함으로써 성도가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또한 공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벧전 2:17), 국가 유지에 필요한 '세금과 공납금'을 성실히 바쳐야 합니다(롬 13:6-7).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 신자가 지상 국가의 일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딤전 2: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딤전 2: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 2: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것이니

[벧전 2: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롬 13:6]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롬 13: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롬 13:5]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

나. 양심에 따른 정당한 복종:

(1) 복종의 의무는 단순히 형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디아 텐 쉬네이데신> 행해져야 합니다(롬 13:5). 이는 공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공직자의 정당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이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며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하며(롬 13:1), 신앙을 이유로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공직자의 권위를 멸시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벧후 2:10-11; 유 1:8).

2. 불신 공직자에 대한 복종과 종교적 주권의 한계:

가. 공직자의 신앙 여부와 권위의 유효성:

(1) 공직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권위를 부정하거나 복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국가 권세의 합법성은 통치자의 개인적 경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벧전 2:13-14).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나 가이사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성도는 통치자가 비신자일지라도 그가 행하는 '옳고 합법적인 권위' 아래서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여 할것이라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벧후 2:10]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벧후 2: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유 1:8]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훼방하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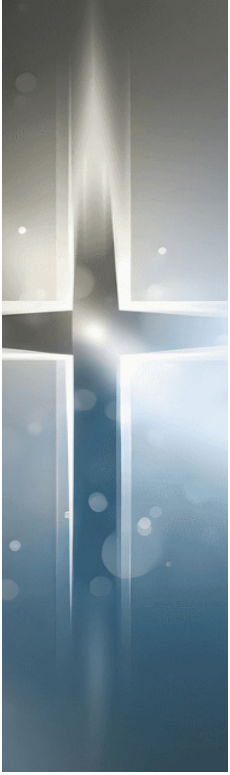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벧전 2:13]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벧전 2:14]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하라

나. 교황권의 정치적 간섭 배격:

(1) 신앙고백서는 '교황'이 국가의 통치권이나 사법권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상위 기구로서 군주를 폐위시키거나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찬탈입니다(살후 2:4).

[살후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2)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라는 두 영역의 통치권을 구별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식적인 종교적 이유를 들어 국가의 고유한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며, 어떤 종교적 수장도 이를 임의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24 장

/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제 24 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연합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돕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며 음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나, 배우자의 음행이나 신앙 때문에 일어난 고의적 유기와 같이 성경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제1항: 결혼의 신적 기원과 언약적 성격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을 받은 제도다. 이것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성별된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에 들어가며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

하고, 그들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은총의 계승자로서 그들의 수명대로 같이 산다(창 2:24, 마 19:4-6, 창 2:17).'

1. 결혼의 기원과 목적 및 신성함

가. 창조 질서로서의 결혼 제도:

(1) 신앙고백서는 결혼이 인간의 관습이나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을 받은 제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결혼의 원형을 세우셨으며(창 2:24), 예수님께서는 이를 재확인하시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마 19:4-6).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2) 결혼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카도시>된 제도입니다. 이는 인간의 고독을 해결하고 생육하며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배려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령한 연합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모형이기도 합니다.

나. 일부일처제의 성경적 원리:

(1) 결혼의 정당한 주체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제한됩니다. 이는 창조의 본연적인 질서로,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다처제나 비정상적인 결합은 결혼의 거룩한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마 19:4-5).

[마 19: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마 19: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마 19: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니

2. 부부간의 인격적 연합과 실제적 삶의 태도

가. 전인적 연합과 사랑의 인내:

(1) 부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결합을 넘어 전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결혼 생활의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2) 인생의 풍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는 것'은 부부에게 주어진 언약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 고백했던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나. 성실한 가정 세우기와 영적 동역:

(1) 부부는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을 보존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책임감을 포괄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본분 중 하나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부의 연합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붙드는 끈입니다.

(2) 부부는 '삶의 은총의 계승자'<나할라트 헤세드>로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수명대로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의 지향점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동역의 과정입니다.

제2항: 타락한 본성과 결혼의 보존 및 이혼의 허용 범위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들을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며, 파혼이 된 그들이 현재 참회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계의 끊어짐은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축성 있게 기록된 이유로 허락된 이혼 후의 재혼은 (당사자들의)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나타나고 기독교의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허락될 수 있다(창 2:18, 말 2:15, 고전 7:2, 9).'

1. 인간의 부패와 결혼의 위기:

가. 결혼의 신성한 결합과 부패한 파괴성:

(1)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거룩한 결합이지만, '사람의 부패'<코룹티오>는 이 신성한 관계를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쉽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완악함은 한 몸 된 원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2) 따라서 교회는 결혼이 단순히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진' 성경적 원리에 따른 것인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 2:18)라는 창조의 목적과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말 2:15)라는 언약적 성실함을 보존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 2:15]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찌라도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라

나. 파혼과 이혼의 비극적 실재:

(1)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거룩한 관계의 끊어짐'인 이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조건적인 정죄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현재 어떠한 태도로 '참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파경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결백이나 책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슬픈 예외적 상황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특수한 사유(음행이나 불신자의 배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도록 세심한 영적 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재혼의 조건과 신앙적 회복:

가. 성경적 근거에 따른 재혼의 허용:

(1) 재혼은 오직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함축된 이유'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혹은 은사에 따라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하며(고전 7:2, 9), 정당한 사유로 혼자가 된 자들에게 재혼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고전 7: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전 7: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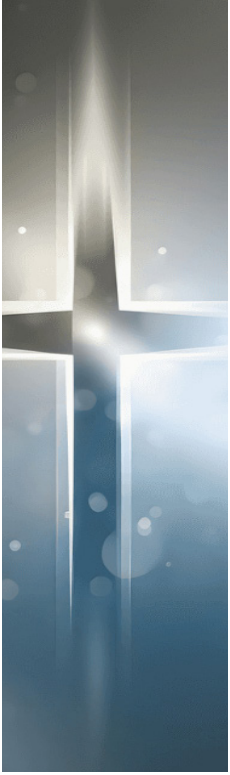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2) 단, 재혼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이전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나. 결혼의 목적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

(1) 재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독교의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가정이 다시는 인간의

부패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자손의 보존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2) 구속사적으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상처 입은 관계일지라도, 참회와 회복을 거친 재혼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결합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 장

/

교회에 관하여

제 25 장 교회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입니다. 보편적 무형 교회는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성도로 구성되며, 지상의 유형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와 그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의 통상적인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전파, 성례의 집행, 거룩한 치리를 통해 보존되며,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제1항: 보편적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엡 1:10, 22-23, 5:23, 27, 32, 골 1:18).'

1. 불가시적 교회의 성격과 구성

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성격:

(1)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본질적 형태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카톨리코스 에클레시아>로 정의하며, 이를 '불가시적'(Invisible)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의 육안으로 파악되는 외적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 실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2)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성도, 즉 창세 전부터 종말의 날까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교회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엡 1:10).

[엡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연합:

(1) 불가시적 교회의 유일한 구심점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

리이시며 몸의 구주이십니다(엡 5:23).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며,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통치를 공급받습니다.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골 1:18)은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은 인간의 제도나 서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실재입니다.

[골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 교회의 영광스러운 명칭과 그 충만함

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인 교회:

(1)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엡 5:27). 이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깊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상징합니다(엡 5:32).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2) 또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을 그 발아

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 위에 머리로 삼으셨으며,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지상의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는 신령한 유기체입니다(엡 1:22-23).

[엡 1: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엡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1)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플레로마>입니다(엡 1:23).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온 우주에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2) 교회의 가치는 그 구성원의 수나 외적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공유하는 영원한 공동체이며,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제2항: 가시적 교회의 범위와 성격

'가시적인 교회도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

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율법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신앙을 고백하는(고전 1:2, 12:12-13, 시 2:8, 계 7:9, 롬 15:9-12)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고전 7:14, 행 2:39, 겔 16:20-21, 롬 11:16, 창 3:15, 17:7, 갈 3:7, 9, 14, 롬 4장).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마 13:47, 사 9:7),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엡 2:19, 3:15, 마 12:50, 잠 29:18).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행 2:47).'

1. 가시적 교회의 보편성과 구성원:

가. 전 세계적 신앙 고백 공동체:

(1) '가시적인 교회'<에클레시아 비시빌리스>는 눈에 보이는 조직과 고백을 가진 교회로서, 복음 시대에는 특정 장소나 민족에 매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고전 1:2).

(2)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들로 구성됨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니다(고전 12:12-13).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시 2:8),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가시적 교회의 외연을 형성합니다(계 7:9).

나. 언약의 자손을 포함하는 범위:

(1) 가시적 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믿는 자와 그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합니다(행 2:39; 창 17:7). 믿는 부모로 인해 그 자녀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며(고전 7:14), 교회의 돌봄 아래 놓이게 됩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창세기 3:15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의 영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자녀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통치 방식의 결과입니다(롬 11:16; 갈 3:7).

2. 교회의 영적 신분과 구원의 방편:

[고전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행 2: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전 7: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

가.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속:

(1) 가시적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위를 이어 이 나라를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십니다(사 9:7). 또한 교회는 복음의 그물과 같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가시적인 영역이 됩니다(마 13:47).

(2)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엡 2:19). 이 신령한 권속 안에서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형제로 연합하여 자라가게 됩니다(엡 3:15).

나. 구원의 통로로서의 교회:

(1) 신앙고백서는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이 없다'는 엄중한 원리를 천명합니다. 이는 교회가 구원을 주는 주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은혜의 방편(말씀, 성례, 기도)이 가시적 교회 안에서 집

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롬 11: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갈 3: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사 9: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마 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

행되기 때문입니다.

(2)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신 것은(행 2:47), 하나님께서 가시적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양육하신다는 구속사적 질서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도로부터 스스로 격리되지 말아야 하며,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3: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3항: 교회의 은혜의 수단과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는 이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에게 이들의 모임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성직과 예언과 의식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전 12:28, 엡 4:11-13, 마 28:19-20, 사 59:21).'

1.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신령한 방편들

가. 성직과 말씀과 예식의 제정:

(1) 그리스도께서는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가 지상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고전 12:28, 엡 4:11),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이러한 '성직과 예언(말씀)과 의식'은 교회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권위 있는 제도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방편들을 통해 성도의 신앙 생애를 양육하고 완수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유지합니다.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엡 4: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나. 성도의 온전함과 교회의 건덕:

(1) 그리스도께서 직분과 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엡 4:12-13). 가시적 교회는 이 신령한 방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2)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례와 말씀 선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의 증표입니다.

2.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

가. 주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

(1) 교회에 주신 직분과 의식이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고 약속하셨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지혜나 조직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나. 성령을 통한 효과적인 은혜의 현시:

(1)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통해 말씀과 성례가 성도의 심령 속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부어주신 영과 입에 두신 말씀은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우리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사 59:21).

[사 59: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성령의 조명이 없는 직분이나 의식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나,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것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가시적 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제4항: 교회의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다(롬 11:3-4, 계 12:6, 14, 행 9:31).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체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또한 의식이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가지고 못 가지는 데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계 2-3장, 고전 5:6-7).'

1. 교회의 가시성의 변동성과 영적 보존:

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교회의 가시성:

(1) 보편적 교회는 역사 속에서 '때로는 더 쉽게 볼 수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영적 부흥기와 평안의 시기에는 교회가 든든히 서 가며 그 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행 9:31), 극심한 박해와 배교의 시기에는 교회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행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2)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다 죽고 홀로 남았다고 탄식했던 상황은 교회의 가시성이 극도로 낮아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을 숨겨두셨던 것처럼(롬 11:3-4), 광야로 피신한 여자를 보호하시듯(계 12:6, 14) 어떤 암흑기에도 자기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롬 11:3]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롬 11:4]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 이백 육십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 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

나.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보존과 신뢰:

(1) 교회의 모습이 인간의 눈에 희미해 보인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 있는 남은 자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은둔의 시간을 지납니다. 성도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규모나 세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2. 개체 교회의 순결성과 분별의 척도:

가. 순결함을 결정하는 본질적 표지:

(1) 보편적 교회에 속한 각 '개체 교회'는 그 상태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합니다. 순결성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타협 없이 선포되고 신봉될 때 그 교회는 순결함을 유지합니다.

[고전 5:6]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2) 또한 '성례(의식)의 정당한 시행'과 '공동 예배의 순수성'이 척도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해 책망받았던 것처럼(고전 5:6-7), 인간적인 고안이나 죄악된 습관이 예배와 의식에 침투할 때 교회의 순결성은 훼

손됩니다.

나. 지상 교회의 불완전성과 개혁의 과제:

(1)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지상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순결의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계 2-3장). 어떤 교회는 칭찬받으나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으며 회개를 촉구받습니다.

(2) 완전한 순결에 도달한 지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개체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쉽게 떠나기보다, 그 교회가 더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항: 지상 교회의 불완전성과 하나님의 보존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고전 13:12, 계 2-3장, 마 13:24-30, 47).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

를 수밖에 없다(계 18:2, 롬 11:18-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마 16:18, 시 72:17, 102:28, 마 28:19-20)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1. 지상 교회의 가변성과 불완전성

가. 순결한 교회에 내재된 혼합과 과오:

(1) 신앙고백서는 지상의 가시적 교회가 지닌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지상 교회는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완전할 수 없으며, 항상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는 '혼합'<에레브> 상태에 있고 가르침과 치리에 있어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보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고전 13:12).

(2)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것이며(마 13:24-30),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을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마 13:47).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계 2-3장)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조차 책망받을 요소가 있음을 엄중히 경

[고전 13: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온전히 알리라

[마 13: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 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같으니

고합니다.

나. 교회의 타락과 변질의 위험:

(1)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계 18:2).

(2)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라도 믿지 아니할 때 꺾이셨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찍히는 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고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롬 11:18-22).

2.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의 불멸성

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1) 교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계 18: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롬 11: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롬 11: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리니
[롬 11:20]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롬 11: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롬 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

라"(마 16:18)고 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2)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들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시 102:28).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주의 이름은 해와 같이 장구하며, 인류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시 72:17).

나.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예배 공동체:

(1)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위임령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마 28:19-20). 이 임재의 약속은 지상의 가시적 교회가 아무리 풍파를 겪어도 결코 멸절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2)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남은 자들의 모임을 보존하십니다. 지상 교회는 이 신적 섭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바 되리라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 102:28]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 72:17] 그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6항: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의 머리가 되신다. 로마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자는 적그리스도요 죄인이요 멸망의 아들이다(골 1:18, 엡 1:22, 마 23:8-10, 살후 2:3, 4, 8, 9, 계 13:6).'

1.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 되심과 신적 주권:

가. 만물의 머리요 교회의 통치자:

(1)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케팔레>이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엡 1:22).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는 주권자이십니다(골 1:18).

[엡 1: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골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 따라서 교회의 모든 권위와 생명력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제

자들에게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마 23:10)고 말씀하시며, 지상에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엄중히 가르치셨습니다.

[마 23: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나. 대행할 수 없는 신적 직무:

(1)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 자기 교회를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법과 질서가 오직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함을 의미하는 가시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백성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공유하거나 넘볼 수 없으며, 교회는 오직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만 순결한 처녀로 드려져야 합니다.

2. 적그리스도적 권위의 배격과 심판:

가. 인간적 수위권의 불법성과 교황권 비판:

(1) 신앙고백서는 '로마 교황'이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음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명목으로 교회의 수위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통치권을 찬탈하는 행위이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인위적인 고안물입니다.

(2)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들의 모든 시도는 '적그리스도'<안티크리스토스>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살후 2:3-4).

[살후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나. 참칭하는 권세에 대한 경고와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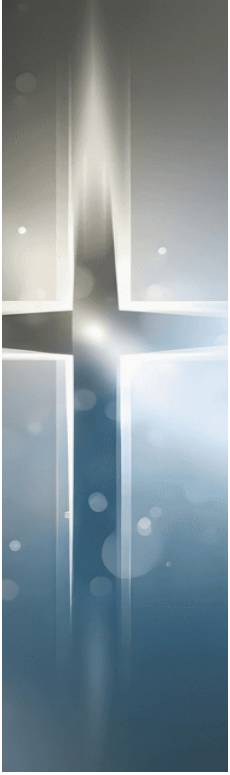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1)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짐승과 같은 권세는 결국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살후 2:8; 계 13:6).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든 인본주의적 체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살후 2: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2) 성도는 교회의 참된 머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인간이 세운 조직의 권위를 신성시하는 함정에서 벗어나, 오직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대적인 충성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순결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때 보존됩니다.



26 장

/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제 26 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성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은혜와 고난에 동참합니다. 또한 사랑의 띠로 서로 연결되어 각자 받은 은사와 물질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 교제는 지교회를 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보편적 교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각 사람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

제1항: 그리스도 및 성도 상호 간의 신령한 교제

'성령과 믿음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결합이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진다(요일 1:3, 엡 3:16-19, 요 1:16, 엡 2:5-6, 빌 3:10, 롬 6:5-6, 딤후 2:12).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눈다(엡 4:15-16, 고전 12:7,

3:21-23, 골 2:19). 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살전 5:11, 14, 롬 1:11-12, 14, 요일 3:16-18, 갈 6:10),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호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1.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교제와 연합

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

(1)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는 인간적인 친목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써'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합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신비롭게 참여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요일 1:3).

(2)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함으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십니다(엡 3:16-19).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요 1:16),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하늘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엡 3: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엡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엡 3: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엡 3:19]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엡 2:5-6).

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유하는 삶:

(1)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 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갈망합니다(빌 3:10).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롬 6:5-6).

(2)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라는 약속처럼(딤후 2:12), 성도는 지상에서 주님의 고난을 따르고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을 지속합니다. 이 수직적 교제가 모든 성도 간 교제의 기초입니다.

2. 성도 간의 수평적 교제와 상호 책임

가. 사랑 안에서 은사와 은총의 공유:

(1)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

[요 1: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엡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빌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딤후 2: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을 받음으로써 함께 자라갑니다(엡 4:15-16, 골 2:19).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며(고전 12:7), 성도는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2) 바울은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고전 3:21-23).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자원이 한 지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 공유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나. 전인적이고 공적인 봉사의 의무:

(1)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부분에만 머물지 않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며 피차 권면하고(살전 5:11), 약한 자들을 돕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실제적 사랑이 요구됩니다(살전 5:14, 롬 1:11-12).

(2)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3: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고전 3: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고전 3: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살전 5: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살전 5:14] 또 형제들아

마땅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요일 3:16-18).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갈 6:10), 성도가 상호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의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제2항: 성도의 교제의 의무와 범위

'공적으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간 덕을 세우는 것에(히 10:24-25, 행 2:42, 46, 사 2:3, 고전 11:20)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영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교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행 2:44-45, 요일 3:17, 고후 8-9장, 행 11:29-30).'

1. 성도의 공적 의무와 영적 교제:

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지속적인 교통: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롬 1:11]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롬 1: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 3: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갈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1)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공적으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자들은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닙니다. 사도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 10:25)라고 권면하며 이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할찌니라

[히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 초대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행 2:42), 참된 교제는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인 친목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높이는 영적 연합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전혀 힘쓰니라

나. 상호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

(1) 교제의 목적은 '상호간 덕을 세우는 것'<오이코도메>에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며(히 10:24),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지체들의 영

[히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적 봉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사 2:3)라고 서로 독려하며 거룩한 길로 이끄는 모든 행위가 성도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사 2: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2. 물질적 나눔과 교제의 보편적 확장:

가. 능력과 필요에 따른 구제와 봉사:

(1)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물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던 것처럼(행 2:44-45), 성도는 지체의 어려움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 2: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행 2: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2) 사도 요한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

다(요일 3:17).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운 사례(고후 8-9장)는 이 물질적 교제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요일 3: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나. 우주적 교회로 확장되는 보편적 교제:

(1) 이 거룩한 교제는 자신이 속한 개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인종, 국가, 계급의 장벽을 허무는 보편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근을 만난 유대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 부조를 보낸 것이 그 실례입니다(행 11:29-30).

[행 11: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행 11: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 구속사적으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교제의 실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총회를 미리 맛보게 하는 소중한 표징이 됩니다.

제3항: 교제의 한계와 소유권의 보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골 1:18-19, 고전 8:6, 사 42:8, 딤전 6:15-16, 시 45:7, 히 1:8-9). 또는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가 소유하는 감투나 소유를 탈취하거나 깨뜨리지는 않는다(출 20:15, 엡 4:28, 행 5:4).'

1. 신인 합일설의 배격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가. 신성의 본체 참여에 대한 엄격한 부정:

(1) 신앙고백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센티아>에 참여하거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품에 참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혼동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지극히 '불경건한' 시도입니다.

(2) 오직 그리스도만이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십니다(골 1:18-19).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뿐입니다(고전 8:6).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자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사 42:8).

나. 그리스도의 독보적 위엄과 주권:

(1)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딤전 6:15-16).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양자 된 자들입니다.

(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며(시 45:7, 히 1:8-9), 성도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성으로의 흡수가 아니라, 인격적 연합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골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전 8: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 42:8]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딤전 6: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2. 성도 간 교제와 사유 재산권의 존중

가. 소유권과 사회적 질서의 유지:

(1) 성도들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은사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각자가 소유하는 감투(직위)나 소유(재산)'를 강제로 빼앗거나 부정하는 '공산(共産)'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교제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소유를 '탈취하거나 깨뜨리지' 않습니다.

(2)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는 명령은 신약 시대에도 성도의 사유 재산권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전제합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돌이켜 빈궁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엡 4:28).

나. 자발적 나눔과 인격적 자유:

(1) 초대 교회의 유무상통(행 5:4)은 국가나 조직에 의한 강제적 몰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한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판 후에도

[딤전 6: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찌어다 아멘

[시 45:7]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히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히 1:9]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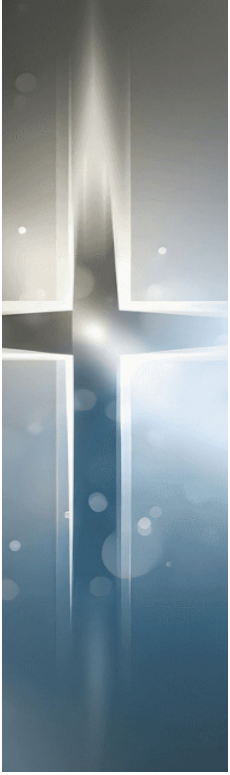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출 20:15]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엡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것이 자신의 권한 아래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2) 즉, 성도의 교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말살하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각자의 소유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사랑으로 기꺼이 나누는 고차원적인 윤리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참된 교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행 5: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27 장

/

성례에 관하여

제 27 장 성례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7장 성례에 관하여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확증하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킵니다. 성례의 효력은 예식 자체나 집행자의 자격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례를 통해 실제적인 영적 은혜를 누립니다.

제1항: 성례의 정의와 목적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고전 10:16, 11:25-26, 갈 3:27) 하나님께서(마 28:19, 고전 11:23)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롬 4:11, 창 17:7, 10)에 대한 인치심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롬 15:8, 출 12:48, 창 34:14, 고전 10:21)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롬 6:3-4, 고전 10:16, 2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1. 성례의 신적 기원과 영적 본질:

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표와 인:

(1) 성례는 인간이 고안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세례를 명하셨고(마 28:19), 친히 성찬을 제정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고전 11:23). 이는 성례가 신적 권위를 가진 은혜의 방편임을 의미합니다.

(2) 성례는 '거룩한 표'<시그눔>이자 '인치심'<시길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의의 인침으로 받은 것과 같이(롬 4:11), 성례는 '은총의 계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신자 개인에게 유효함을 확증합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을 영적으로 확증받습니다(고전 10:16).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0:16]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가시적 복음:

(1)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물질(물, 떡, 포도주)을 통해 '나타내고 확증' 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며(롬 6:3-4),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갈 3:27).

(2) 성찬의 잔과 떡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상징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는 가시적인 말씀의 역할을 합니다(고전 11:25-26). 이처럼 성례는 연약한 신자의 믿음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2. 성례의 구별적 기능과 성도의 헌신:

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가시적 표지:

(1)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공적인 경계선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출 12:48),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신분적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 신자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습니다(고전 10:21).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출 12:48]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찌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고전 10: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나.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봉사와 헌신:

(1) 성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한 신자는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거룩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2) 구속사적으로 성례는 옛 언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성찬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성도는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러운 군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제2항: 성례적 표지와 실체 사이의 신령한 합일

'모든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표지와 물질 사이에는 영적 관계 또는 성례전적인 합일이 있다. 그러므로 한편의 이름과 그 효과는 다른 편에게 영향을 준다(창 17:10, 마 26:27-28, 딛 3:5, 롬 6:3-4).'

1. 표지와 물질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

가. 성례적 합일의 정의:

(1) 신앙고백서는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표지'<오트>(물, 떡, 포도주)와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 '물질'(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사이에 '영적 관계' 또는 '성례전적인 합일'이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외적 상징과 내적 실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신령하게 하나로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합일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외적 표지의 이름을 영적 실체에 부여하거나, 그 반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할례라는 외적 표지를 가리켜 직접 "나의 언약"이라 칭하셨으며(창 17:10), 주님께서는 성찬의 잔을 가리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마 26:27-28)라고 말씀하셨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마 26:27]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습니다.

나. 이름과 효과의 상호 작용:

(1) 표지와 실체 사이의 합일로 인해 '한편의 이름과 그 효과는 다른 편에게 영향을' 줍니다. 즉, 외적 씻음인 세례를 가리켜 구원의 실체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딛 3:5)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이는 물 자체가 중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인쳐지는 성령의 사역이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하셨나니

2. 성례적 합일의 구속사적 의미

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함:

(1) 성례적 합일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영적 실제에 참여하게 됩니다(롬 6:3-4).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하려 함이니라

(2) 이 합일은 마술적인 변화(화체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

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실재가 되게 하는 신령한 방식입니다. 표지를 볼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효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 약속의 신실성과 인침:

(1) 하나님은 가시적인 물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외적 표지와 영적 물질의 합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합당하게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효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호탐>이 됩니다.

(2) 성도는 성례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영혼에 실제적으로 적용됨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제3항: 성례의 효력과 근거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례전 안에서 혹은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전 자체의 힘이나, 혹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앙이나 뜻에 따

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롬 2:28-29, 벧전 3:21). 그것은 성령의 역사(마 3:11, 고전 12:13)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성례전에 사용되는 제정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그 말씀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전을 가치 있게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마 26:27-28, 28:19-20).'

1. 성례의 효력에 대한 오해의 배격:

가. 의식 자체의 기계적 효력 부인:

(1) 성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성례전 자체의 힘'<엑스 오페레 오페라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의식이 그 자체로 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자동적으로 은혜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롬 2:28-29).

(2) 베드로 사도 또한 세례에 대하여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벧전 3:21)라고 언급하며, 외적 씻음보다 내적인 영적 실재가

[롬 2: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벧전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중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례의 요소들은 은혜를 담는 그릇일 뿐, 은혜의 원천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나. 집행자의 경건에 대한 의존성 거부:

(1)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앙이나 뜻'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집행자가 불완전하거나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시행된다면 그 성례는 유효합니다. 이는 성례의 객관적 거룩함이 집행자의 주관적 상태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만약 성례의 효력이 사람의 신앙에 달려 있다면, 신자는 자신의 세례나 성찬 참여가 유효한지에 대해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성례의 근거를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둠으로써 신자의 영적 안녕을 보호합니다.

2. 성례의 효력의 참된 근거:

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1) 성례가 신자에게 실제적인 은혜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오페라티오 스피리투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 (마 3:11)이라고 한 것처럼, 외적 징표를 영적 실재로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2)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고전 12:13). 성령께서는 가시적인 성례를 도구로 삼아 신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적용시키시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나. 제정의 말씀과 신적 약속:

(1) 성례는 그 안에 담긴 '제정의 말씀'을 통해 권위와 유익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는 성례를 거행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이를 '가치 있게 받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적 약속이 결합되어 있습니다(마 28:19-20).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8)고 말씀하

[마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셨습니다. 성례의 효력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성례는 구원의 은총을 확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제4항: 성례의 수와 집행자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단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마 28:19, 고전 11:20, 23, 4:1, 히 5:4)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1. 성례의 수적 제한과 복음적 근거:

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1) 그리스도교의 성례는 인간이나 교회가 임의로 추가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만 유효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승천 직전 명령하신 '세례'(마 28:19)와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주의 만찬'(고전 11:23-26)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2) 이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칠성례(칠사)의 비성경성을 배격하고, 오직 신적 기원을 가진 예전만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몸에 접붙여지는 입교의 표이며,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양육의 표로서, 이 두 가지만이 신자의 전 생애에 필요한 구원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확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나. 성례의 독특성과 영적 권위:

(1)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합니다. 다른 의식들은 경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어 전 교회에 영구히 지키라고 명하신 성례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 성도는 이 두 성례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고, 그 수가 적음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풍성한 복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2. 성례 집행자의 자격과 질서:

가지사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가. 말씀 사역자에 의한 집행 원칙:

(1) 성례는 아무나 집행할 수 있는 사적인 예식이 아니라,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례가 '보이는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수종자로 부름받은 자(고전 4:1)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성경적 질서에 부합합니다.

[고전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2)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집인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안수를 통해 공적으로 세우셨습니다(히 5:4). 따라서 사역자에 의한 성례 집행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성례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거나 미신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히 5:4]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할 것이니라

나. 집행 권한의 신적 위임:

(1)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9)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공적인 권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이며, 이 권세는 교회가 세운 합법적인 직분자를 통해 계승됩니다.

(2) 따라서 성례가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해 집행될 때, 성도는 그 행위 뒤에 계신 주님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집행자 개인의 자질보다 그가 가진 '말씀 사역자'라는 직분의 공적 권위에 근거하여 성례에 참여할 때, 성도는 비로소 교회적 연합 안에서 평안히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5항: 구약과 신약 성례의 본질적 통일성

'구약에 있는 성례전이 표현하고 상징하는 영적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그것과 동일하다(고전 10:1-4, 고전 5:7-8).'

1. 성례의 구속사적 연속성과 통일성:

가. 동일한 영적 의미와 상징적 실재:

(1) 신앙고백서는 구약의 성례(할례, 유월절 등)와 신약의 성례(세례, 성찬)가 그 외적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지시하는 '영적 뜻'은 '본질

적으로 동일하다'고 천명합니다. 이는 모든 성례가 시대와 관계없이 오직 한 분이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음을 언급하며, 그들이 마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확증했습니다 (고전 10:1-4). 즉, 구약 성도들도 성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것입니다.

[고전 10:1]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고전 10: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전 10:3]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고전 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나. 언약의 성취와 영원한 유효성:

(1) 성례의 유효성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구약의 성례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의 표였다면, 신약의 성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를 기념하는 감사의 표입니다.

(2)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전 5:7-8)고 선언한 것과 같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과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성도는 구약의 예표적 성례를 통해 신약의 완성된 성례를 깊이 이해할 수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 5: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를 관통하여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 동일한 은혜의 원천으로서의 그리스도:

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

(1) 구약과 신약의 성례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두 성례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만을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고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죄 씻음과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2) 따라서 성도는 구약의 의식들을 낡은 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붙들었듯이, 우리도 가시적인 징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나.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공통성:

(1) 성례의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점에서도 두 성례는 동일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례를 통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신약 성도들 역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합니다.

(2) 성례에 참여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믿음' 또한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외적 의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성례가 제공하는 참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8 장

/

세례에 관하여

제 28 장 세례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세례는 물을 사용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가입의 예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성인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녀인 신자의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1항: 세례의 정의와 영적 유익 및 영속성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마 28:19, 막 16:16) 제정하신 예전이며,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고전 12:13, 갈 3:27-28) 세례를 받은 무리가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롬 4:11, 골 2:11-12)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갈

3:27, 롬 6:5) 중생과(딛 3:5) 사죄와(막 1:4, 행 2:38, 22:1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함의 (롬 6:3-4)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 예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한 것이며, 세상 끝 날까지 교회 안에서 존속될 것이다(마 28:19-20).'

1. 세례의 신적 기원과 가시적 입회

가. 그리스도에 의한 제정:

(1) 세례는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마 28:19). 이는 신약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신적 규례이며 믿음의 외적 고백입니다(막 16:16).

(2) 세례는 '보이는 교회'<에클레시아 파네라>에 참여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 공인되며(고전 12:13),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갈 3:27-28).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막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나. 신분적 변화의 공적 선포:

(1) 세례는 개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알리는 영적 군대의 입대식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가시적인 공동체 안에서 확증하는 절차입니다.

2. 세례의 영적 의미와 구속적 효력

가. 은혜의 언약에 대한 표와 인침:

(1) 세례는 본인에게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됩니다. 구약의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듯이(롬 4:11), 세례는 신약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증하는 도장<호탐>입니다.

(2)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영적 할례를 경험하며(골 2:11-12),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갈 3:27, 롬 6:5).

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

나. 중생과 사죄 및 봉헌의 표징:

(1) 세례는 성령의 사역인 '중생'(딛 3:5)과 죄 씻음의 실체인 '사죄'(행 2:38, 22:16)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듯이(막 1:4), 세례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영적으로 확증합니다.

(2) 또한 세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써,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롬 6:3-4). 세례받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사신 주를 위해 살 것을 서약하는 자입니다.

3. 세례의 영속성과 교회의 사명

가. 세상 끝 날까지의 지속성:

(1) 세례는 임시적인 의식이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 교회 안에서 존속'될 영원한 규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마

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롬 6:4] 그러므로 우리

28:19-20).

(2) 이 영속성<나차흐>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표로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의 물줄기는 끊이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나. 교회가 수호해야 할 거룩한 예전:

(1)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예전을 변질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집행해야 할 사명을 가집니다. 세례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속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2) 성도는 자신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세례가 주는 위로와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현장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2항: 세례의 외적 요소와 집행자

'이 예전에서 사용되는 외적인 요소는 물이다.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는(마 3:11, 요 1:33, 마 28:19-20, 행 10:47, 8:36, 38) 이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1. 세례의 외적 요소인 물의 의미와 기능

가. 정결과 생명의 상징으로서의 물:

(1) 신앙고백서는 세례의 '외적인 요소'<예소드 히초니>를 오직 '물'로 규정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정결(겔 36:25)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어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마 3:11),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내적 씻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물질적 표지입니다.

(2) 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은혜의 방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요 1:33), 지상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물이라는 가시적 요소를 사용하여 영적 실재를 인쳐야 합니다. "이 물"은 그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

[겔 36:25]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

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결합될 때 성례적 가치를 지닙니다(행 10:47, 8:36).

나. 표지와 실체의 일치:

(1)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행 8:36, 38)은 물이 세례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물을 통한 씻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구속사적 신비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2. 집행자의 자격과 삼위일체의 이름

가. 안수받은 목사의 집행 권한:

(1)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27장 4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성례가 말씀 선포와 직결된 공적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고전 4:1),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안에서 이 거룩한 예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집행자의 자격을 엄격히 하는 것은 세례가 개

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행 10: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행 8: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행 8: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고전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인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공적인 언약 행위임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권위:

(1) 세례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 대위임령을 통해 이 분명한 문구를 제정하셨습니다(마 28:19). 이는 세례를 받는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구원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예정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의 적용하심이 세례받는 자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였음을 이 거룩한 이름을 통해 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성례의 유효성은 집행자 개인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제3항: 세례의 올바른 양식

'세례 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물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붓든지 뿌리며(히 9:10, 19-22, 행 2:41, 16:33, 막 7:4) 거행하는 세례도 올바른 것이다.'

1. 세례 양식의 자유와 본질적 의미:

가. 침례의 비필수성과 상징적 유효성:

(1) 세례의 방식에 있어 피세례자를 '물속에 잠그는 것'<임메르시오>은 세례의 본질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세례의 핵심은 물의 양이나 잠기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 씻음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상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 성경에서 '씻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반드시 잠그는 것만을 뜻하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의 정결 의식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외적 양식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침례만이 유일하고 정당한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례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은혜의 보편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 성경적 근거에 따른 살수례와 관수례의 정당성:

(1)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살수례 및 관수례)은 성경에 나타난 정결례의 전통과 일치하는 '올바른 세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씻는 것들과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던 의식들을 언급하며(히 9:10, 19-22), 이것이 영적 씻음의 예표임을 보여줍니다.

(2) 신약의 실례에서도 오순절에 삼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것이나(행 2:41), 간수의 집에서 밤중에 급히 세례가 베풀어진 정황(행 16:33)은 전신을 물에 잠그는 방식보다는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이 더 적합하고 자연스러웠음을 암시합니다.

2. 구속사적 정결과 성령의 부으심:

가. 뿌림을 통한 영적 정결의 예표:

(1) 구속사적으로 '뿌림'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겔 36:25)라

[히 9: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히 9: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히 9: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히 9:21]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히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행 2: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16: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시 물을 뿌리는 행위는 바로 이 약속된 정결이 신자에게 임했음을 시각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피는 '뿌리는 피' (히 12:24)로 묘사됩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뿌려지는 것은,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인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나.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상징:

(1)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묘사할 때 자주 '부어 주신다' (행 2:17, 딛 3:6)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물을 피세례자의 머리 위에 붓는 양식은 성령께서 위로부터 신자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시는 영적 실재를 매우 적절하게 형상화합니다.

(2) 결국 세례의 양식은 문화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모든 방식은 공통적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죄 사함의 은총을 가리켜야 합니다. 성도는 세례의 외적 형태보다 그 예식을 통해 내적으로 인치시는 성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겔 36:25]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히 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행 2:17]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딛 3:6]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령의 강력한 씻어주심과 부어주심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4항: 세례의 대상 - 신자와 그들의 자녀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제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사람뿐만 아니라(막 16:15-16, 행 8:37-38), 부모가 다 믿거나 한편만 믿는 가정의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창 17:7, 9, 갈 3:9, 14, 골 2:11-12, 행 2:38-39, 롬 4:11-12, 고전 7:14, 마 28:19, 막 10:13-16, 눅 18:15, 행 16:14-15, 33).'

1. 신앙 고백자의 세례 (성인 세례)

가. 복음에 대한 인격적 응답과 고백:

(1)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제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사람'은 세례의 일차적인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6:15-16).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세례를 베푼 것이 성경적 전형입니

[막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 8:37]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능하니

다(행 8:37-38).

(2) 이러한 자백<호몰로게오>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겠다는 의지적 복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은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연합됩니다.

나. 회개와 믿음의 외적 증거:

(1) 성인에게 베푸는 세례는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외적 증거입니다. 이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가시적으로 인치는 행위이며, 신자는 이 성례를 통해 공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믿는 자의 자녀와 유아 세례

가. 언약의 연속성과 가계적 축복:

(1) 신앙고백서는 '부모 중 한편만 믿는 가정의 아이'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약의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행 8: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창 17:7, 9).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된 의의 인치심으로 할례를 주셨고, 이 언약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롬 4:11-12, 갈 3:9, 14).

(2) 신약에서도 이 언약의 원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선언하였으며(행 2:38-39), 바울은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이미 '거룩하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언약의 범위 안에 있음을 확증했습니다(고전 7:14).

나. 그리스도의 용납과 구속사적 실례:

(1)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막 10:13-16, 눅 18:15). 이는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며 주님의 복을 받을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집이나 간수의 집처럼 '온 집'이 세례를 받은 사례들(행 16:14-15, 33)은 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언약적 세례가 초대 교회의 관행이었음을 시사합니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2) 유아 세례는 아이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 신실함에 기초합니다. 비록 유아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에 참여하는 표징인 세례(골 2:11-12)를 통해 장차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 아래 있음을 확증하는 귀한 은총의 방편입니다.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고전 7: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행 16:14]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행 16:15]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제5항: 세례의 의무와 구원과의 관계

'이 예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다(눅 7:30, 출 4:24-26).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을 할 수 없다든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롬 4:11, 행 10:2, 4, 22, 31, 45, 47),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분명히 중생했다고 할 만큼(행 8:13, 23) 이 세례와 은혜와 구원이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 세례의 엄중한 의무와 불순종의 위험:

가. 신적 제정에 대한 순종의 의무:

(1) 세례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므로, 이를 고의적으로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며 '큰 죄'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눅 7:30) 것과 같이, 성례를 경시하는 태도는 구원의 방도를 멸시하는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2)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물을라>를 행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던 사건은(출 4:24-26), 언약의 표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죄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존중:

(1) 세례는 단순히 인간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입대하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신앙만을 주장하는 것은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행 16: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눅 7:30]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출 4: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출 4:25]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 따라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을 교회의 보호 아래 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닙니다.

[출 4:26] 여호와께서 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2. 세례와 구원의 본질적 구별:

가. 세례의 절대적 구원 수단성 부인:

(1) 신앙고백서는 세례가 구원에 유익하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처럼(롬 4:11), 구원은 외적 의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 고넬료와 그 권속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도 이미 경건하여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드렸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은(행 10:2, 44-47),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가 반드시 외적인 성례의 순서에 종속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행 10: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행 10:44]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행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나. 외적 세례와 내적 중생의 불일치 가능성:

(1)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분명히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와 구원은 기계적으로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행 8:13, 23) 되어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2) 구속사적으로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가시적인 표징일 뿐입니다. 참된 중생은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가능하며, 외적인 물 세례가 내적인 성령 세례를 항상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외적 세례를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 안에 참된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행 10: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행 10: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행 8: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행 8: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제6항: 세례의 효력과 성령의 주권적 사역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행해진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요 3:5,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을 옳게 거행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때에 연령의 차이가 없이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

미암아 성령에 의해 주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갈 3:27, 딛 3:5, 엡 5:25-26, 행 2:38, 41).'

1. 세례의 효력과 시간적 독립성

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자유하심:

(1) 신앙고백서는 '세례의 효력'<코아흐 하트빌라>이 반드시 물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세례가 기계적이거나 마술적인 수단이 아님을 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아서(요 3:8),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적인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 3: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2) 물로 세례를 받는 외적 사건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적 실재(요 3:5)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례 시에 은혜가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세례 전이나 훨씬 후에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서정 속에서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 인침과 약속의 선행:

(1)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는 것입니다. 비록 효력이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세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성도는 나중에 회심하고 믿음을 가질 때, 과거에 받았던 세례가 비로소 자기 영혼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 성령을 통한 은혜의 실제적 부여

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확실한 은혜:

(1) 비록 시간적 즉각성은 보장되지 않더라도, 세례를 '옳게 거행'할 때 약속된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때'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제정하신 성례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나타내고 부여' 하십니다.

(2) 이 은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갈 3:27),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딛 3:5).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구속

[갈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적 효력이 세례를 통해 신자에게 전달됩니다(엡 5:25-26).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나. 전 연령을 포괄하는 보편적 효력:

(1) 이 영적 유익은 '연령의 차이가 없이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한결같이 적용됩니다. 성인 신자가 고백과 함께 받은 세례나, 언약의 자녀가 유아 때 받은 세례나 그 영적 가치와 효력은 동일합니다. 성령은 나이와 상관없이 각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죄와 생명을 적용하십니다.

(2)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삼천 명의 신자들에게 임했던 그 사죄와 성령의 선물(행 2:38, 41)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됩니다. 세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제7항: 세례의 단회성

'세례의 성례는 어느 사람에게든지 한 번만 베풀

것이다(딛 3:5).'

1. 세례의 단회성과 영적 인치심:

가. 중생의 씻음과 단회적 상징:

(1)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예전으로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 생애에 '한 번만 베풀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단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팔링게네시아 루테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딛 3:5).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하셨나니

(2) 한 번 태어난 자가 다시 태어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입교의 표인 세례 역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세례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단번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의 영속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언약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1) 세례가 단회적인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범죄하거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인치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신앙의 침체 후에 회복되었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미 받은 세례를 평생 '사용'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그 단 한 번의 표징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구속사적 의미와 성도의 확신:

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

(1) 구속사적으로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계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할례를 단 한 번 받았던 것과 같이, 신약의 성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할례인 세례를 통해 영원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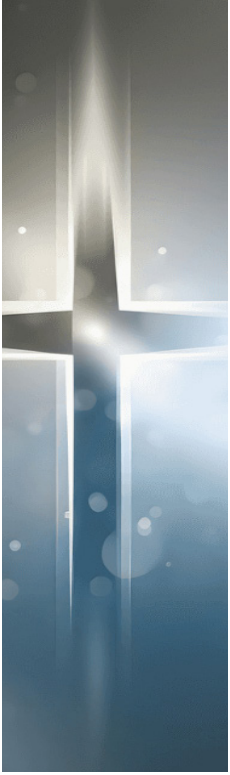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세례 또한 단회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단 한 번의 세례를 통해 자신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하며, 그 권위 아래서 영적 안식을 누립니다.

나. 재세례 금지와 교회의 일치:

(1) 성경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엡 4:5)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그 효력이 영구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재세례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엡 4:5]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2) 재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는 세례의 단회성을 인정함으로써, 구원이 인간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구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29 장

/

주의 만찬에 관하여

제 29 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29장 주의 성찬에 관하여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며, 떡과 포도주가 실제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깊은 연합을 누립니다.

제1항: 성찬의 제정과 다각적 목적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제정하셔서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희생을 언제든지 기억케 하시고, 참 신자에게 그 희생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인치시며, 그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장성케 하

시고, 그에게 행할 모든 의무를 더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교제의, 그리고 주님의 신비적인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제의 매는 줄과 담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고전 11:23-26, 10:16-17, 21, 12:13).'

1. 성찬의 신적 기원과 기념적 성격

가. 주님의 밤에 세워진 언약의 식사:

(1) 성찬은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권위 있는 예전입니다. 이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세워진 엄숙한 언약의 식사이며, 주님은 이를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영속적인 규례로 명하셨습니다(고전 11:23-26).

(2) 성찬의 일차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희생'<제바흐>을 기억<아남네시스>하는 데 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가시적으로 회상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속의 사건을 만방에 전파하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 참 신자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인침:

(1) 성찬은 '참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모든 혜택'을 확증하고 인치는 수단입니다. 죄 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영생의 보증 등이 이 성례를 통해 성도의 영혼에 더욱 견고하게 새겨집니다.

2. 영적 양육과 성도 간의 유기적 결합

가. 영적 성장과 사명 완수를 위한 양식:

(1) 성찬은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신앙이 장성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성찬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주님께 받은 '모든 의무'를 감당할 영적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2)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시게 되어, 세상을 이길 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나. 주님 및 성도 상호 간의 교제의 끈:

(1) 성찬은 그리스도와 갖는 '수직적 교제'의 통로인 동시에, 성도들이 주님의 신비로운 지체로서 서로 나누는 '수평적 교제'의 '매는 줄과 담보'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많으나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확증합니다(고전 10:16-17).

[고전 10:16]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고전 10: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

(2)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듯이(고전 10:21), 성찬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제 성찬을 통해 한 성령을 마시는 자들로서(고전 12:13) 사랑과 연합의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고전 10: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제2항: 성찬의 단회적 희생과 기념적 성격

'이 예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성부에게 바쳐진 것은 아니다. 또는 산 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드린 참 희생의 제물도 아니다(히 9:22, 25-26, 28). 다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친 그 제물에 대한 기억이다. 또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찬양의 영적 봉헌이다(고전 11:24-26, 마 26:26-27, 눅 22:19-20). 그러므로 소위 미사의 제물은 택함을 받은 자의 모든 죄를 위한 단 하나의 속죄로서의 그리스도 자신의 제물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고전 11:24-26, 마 26:26-27, 눅 22:19-20, 히 7:23-24, 27, 10:11-12, 14, 18).'

1. 성찬의 본질: 단회적 희생의 기념과 찬양:

가. 반복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

(1)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성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히 9:28)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희생된다면,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복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히 9:25-26).

[히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나타나시리라

[히 9: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아니하실찌니
[히 9: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 따라서 성찬은 '산 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한 참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성찬은 그 완성된 속죄를 믿

음으로 취하는 은혜의 방편일 뿐, 새로운 속죄를 창출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나. 기억과 영적 봉헌으로서의 성찬:

(1) 성찬의 참된 의미는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바치신 제물에 대한 '기억'<아남네시스>에 있습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고전 11:24-25)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거룩한 회상입니다.

(2) 또한 성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가능한 찬양의 영적 봉헌'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삼아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Eucharist)이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봉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눅 22: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 로마 가톨릭 미사 교리에 대한 비판:

가. 미사 제물의 불법성과 대속의 완전성:

(1) 신앙고백서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의 제물' 교리가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미사에서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희생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 10:14)는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히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2)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구약적 방식은 죄를 결코 없애지 못했으나,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히 10:11-12). 따라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으므로(히 10:18), 반복적 희생 제사를 주장하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히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 10: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나. 구속사적 신실함과 성도의 확신:

(1)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는 "갈아치울 필요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히 7:23-24). 그분은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며, 단번에 자기를 드려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히 7:27).

[히 7: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히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는 완전한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찬은 인간의 행위나 교회의 반복적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신실한 구속 사역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히 7: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제3항: 성찬의 집행자와 정당한 시행 절차

'주 예수께서는 이 예전을 집행하도록 목사를 택하셨다. 목사는 신자들에게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떡을 집어 들어 떼고 잔을 들어 그 자신이 예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떡과 잔을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고전 11:23-27).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못한다(행 20:7, 고전 11:20).'

1. 집행자의 직무와 성찬의 거룩한 구별

가. 택함 받은 사역자에 의한 집행:

(1) 주 예수께서는 성찬의 질서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목사'를 집행자로 세우셨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 의해 시행되는 공적 예전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1:23). 목사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공급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2) 집행의 핵심은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성찬의 근거를 밝히고, '기도와 축사'를 통해 평범한 요소였던 떡과 포도주를 성례적 용도로 '구별'<히브딜>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 자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이 신령한 방편으로 성별됨을 의미합니다(마 26:26).

[마 26:26]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나. 성례적 행위의 순서와 의미:

(1) 목사는 주님의 본을 따라 '떡을 집어 들어 떼고 잔을 드는' 가시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눅 22:19-20). 떡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잔을 드는 것은

[눅 22: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막 14:22-24).

(2) 집행자 자신도 이 은혜의 수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온 교회가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성찬이 집행자와 수찬자 모두에게 동일한 구속의 효력을 발휘함을 나타냅니다.

[막 14:22]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막 14:2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막 14:24]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 참여의 범위와 공동체적 성격

가. 현장 참여자와의 나눔:

(1) 목사는 구별된 떡과 잔을 현장에 있는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먹고 마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완성됩니다.

(2) 성도들은 이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증합니다(고전 11:26).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 부재자에 대한 분배 금지와 공적 모임의 원리:

(1) 성찬은 '그때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자'에게

는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행하는 '공동체적 예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 한데 모였던 성경적 실례(행 20:7)는 성찬의 장소적, 시간적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행 20:7]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2) 성찬은 개인적인 경건 행위나 사적인 배달 서비스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먹지 않고 사사로이 행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고전 11:20). 부재자에게 성물을 보내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교회는 성찬이 지닌 유기적 연합의 가치와 공적 거룩함을 보존합니다.

[고전 11: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제4항: 성찬의 남용과 오용에 대한 경계

'사적인 미사, 예전을 사제에게서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 것(고전 10:6), 또는 일반 신자에게 잔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막 14:23, 고전 11:25-29),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거나 높이 들어 올리거나 동경하는 마음으로 들고 다니는 것 또는 무슨 정상적이 아닌 종교적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모두 이 예전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뜻에도 모순되는 것이다(마 15:9).'

1. 공동체적 성격의 훼손과 비성경적 집행:

가. 사적 미사와 개별적 참여의 부당성:

(1)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예전입니다. 따라서 사제나 개인이 '혼자 받는 사적인 미사'는 성찬의 본질인 '교제'와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공동체적 질서를 강조했습니다(고전 10:16-17).

[고전 10:16]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고전 10: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

(2)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 이것을 마시라"고 공동으로 명령하신 것은, 성찬이 결코 개인적인 경건 행위로 전락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혼자 받는 예전은 지체 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적 질서에 위배됩니다.

나. 이종배찬 금지의 비성경성:

(1) 일반 신자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지 않고 떡만 주는 행위(일종배찬)는 명백히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뜻에 모순'됩니다. 주님은 떡뿐만 아니라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막 14:23)고 명하셨으며, 사도 바울 역시 성도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고전 11:25-26).

[막 14:2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 신자의 영적 유익을 제한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러한 관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전으로 폐하는 외식에 불과합니다(마 15:9).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는 이를 가감 없이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니라

2. 요소에 대한 미신적 숭배와 오용:

가. 성찬 요소에 대한 우상숭배적 행위 배격:

(1)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올리거나 절을 하는 것', 혹은 그것을 들고 행렬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오해한 미신적 행위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징'일 뿐, 그 물질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는 없습니다.

(2) 이러한 행위는 물질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기념하고 먹는 데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요소를 시각적으로 숭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를 '예전의 본질에 대한 모순'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합니다.

나. 부적절한 보관과 종교적 오용 방지:

(1) 성찬 후에 남은 떡과 포도주를 '정상적이 아닌 종교적 사용을 위해 보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성례의 요소들은 성례가 거행되는 그 시점과 목적 안에서만 거룩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 마술적인 도구나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물질에 매이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성도는 가시적인 요소 너머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야 하며, 주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인간이 고안한

종교적 열심으로 성례를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5항: 성찬 요소의 성격과 성례전적 관계

'이 예전의 외적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이 요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그러나 성례전적으로만, 때로는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도 부른다(마 26:26-28). 그렇게 부른다 해도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 있다(고전 11:26-28, 마 26:29).'

1. 외적 요소의 거룩한 구별과 명칭의 의미

가. 성례적 용도로의 구별:

(1)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평범한 음식이지만, 주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가 세속적인 목적에서 영적인 목적으로 성별됨을 의미

합니다.

(2) 이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6:26-28). 이처럼 명칭이 부여되는 이유는 표지와 실체 사이에 밀접한 영적 연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 26:26]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 26:27]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 26:28]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 성례전적 명칭의 원리:

(1)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으로, 그러나 성례전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물질이 살과 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표지가 상징하는 영적 실체를 가리키는 성경적 수사법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표지가 지닌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물의 이름을 실체에 부여하십니다. 성도는 이 명칭을 통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가 곧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신령한 사건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2. 본질의 불변성과 화체설의 배격

가. 실체와 본질의 지속성:

(1) 성찬의 요소들은 축사 후에도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단호히 배격하는 개혁주의적 입장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먹는 것은 여전히 떡이며, 마시는 것은 여전히 포도주입니다(고전 11:26-28).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2) 주님께서도 성찬을 행하신 직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잔의 내용물이 본질상 여전히 포도주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마 26:29).

[마 26: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하시니라

나. 믿음으로 누리는 영적 실재:

(1) 성찬의 유효성은 물질의 물리적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베푸시는 영적 임재에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본질상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례

가 마술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적 방편임을 보여줍니다.

(2) 성도는 입으로 물리적 떡을 먹으면서, 동시에 영혼으로는 믿음의 손을 뻗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이처럼 표지와 실체의 구별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미신적 오용을 막고 성찬의 참된 영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6항: 화체설의 오류와 우상숭배적 위험성

'사제가 축사함으로써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체설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또한 예전의 본질을 전도시키는 생각이며 과거나 현재나 여러 가지 미신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야말로 큰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다(행 3:21, 고전 11:24-26, 눅 24:6, 39).'

1. 화체설의 비성경성과 이성적 모순:

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과 장소적 제한:

(1) 사제가 축사할 때 떡과 포도주의 물질적 본질이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트랜스섭스탄티아티오>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하늘이 마땅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분을 받아두어야 합니다(행 3:21).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의 수많은 제단 위에서 동시에 물리적 실체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행 3: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2)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3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공간적 특성을 가진 참된 몸이기에, 그 실체가 떡의 모양 안에 물리적으로 갇혀 있다는 주장은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나는 궤변입니다.

[눅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 성례적 상징의 파괴와 전도:

(1) 화체설은 '예전의 본질을 전도'시키는 생각입니다. 성례는 '보이는 표징'과 '보이지 않는 영

적 실재'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은혜를 전달합니다. 만약 표징(떡과 포도주)이 실체(살과 피)로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며 성례의 정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사도 바울은 성찬을 행할 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고전 11:26)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축사 후에도 그것이 여전히 본질적으로 떡과 포도주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화체설은 이러한 성경적 언어 사용을 무시하고 신비주의적 물리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합니다.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 미신과 우상숭배의 발생:

가. 물질 숭배로 흐르는 미신의 원인:

(1) 화체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미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성까지 포함한 실체라고 믿게 되면서, 성찬 요소를 신비한 마술적 도구로 여기거나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구원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믿는 영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2) 이러한 생각은 성찬의 본질인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보다 '물질의 소유와 접촉'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는 복음이 주는 자유와 은혜의 원리를 가리고, 인간을 가시적인 의식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나. 피조물 숭배라는 큰 우상숭배:

(1) 신앙고백서는 화체설이 '큰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언합니다.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거나 그것을 신성시하여 숭배하는 행위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지, 빵의 형상 속에 갇혀 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2)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이 형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요소 자체에 신성을 부여하는 화체설적 미신을 배격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참된 성찬의 신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7항: 성찬의 영적 참여와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

'이 예전에 있어서(고전 11:28, 고전 5:7-8)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예전을 값있게 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받는다.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 또한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몸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예전에서 떡과 포도주가 외형적으로 외적 감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임재한다(고전 10:16, 고전 10:3, 4:1).'

1. 믿음을 통한 영적 수찬과 유익

가. 외적 수용과 내적 믿음의 병행:

(1) 성찬을 '값있게 대하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라는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성찬의 효력은 물리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별하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 나타납니다(고전 11:28).

(2) 신자는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입을 통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분과 연합하며 영혼의 '양육'을 받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먹는 신령한 잔치입니다(고전 5:7-8).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 5: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사 수혜:

(1)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마타노트 하게울라>, 즉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화의 은혜를 실제로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것처럼(고전 10:3-4),

[고전 10:3]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고전 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2) 성도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자기 것으로 소유합니다.

2.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 영적 임재설의 확립

가. 육체적 임재의 거부:

(1)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의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육신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이는 화체설뿐만 아니라 공재설(Consubstantiation)까지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현재 하늘에 계시므로, 지상의 물질 속에 물리적으로 국한되어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2) 성례의 신비는 물질의 물리적 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우리 영혼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고양(高揚)되는 데 있습니다.

나. 실제적이고 영적인 현존: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서의 임재는 결코 상징에 불과한 환상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2) 우리가 축복하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고전 10:16). 신자는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참되게 교제하며, 주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신령한 실제<루하니 가무르>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전 10:16]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제8항: 성찬 참여자의 자격과 부적격자의 심판

'이 예전에 있어서 가령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이 외적인 요소를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가치하게 그것을 대했으므로 주의 살과 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적합지 않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있다면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도 없고(고전 11:27-29, 고후 6:14-16, 고전 10:21) 거기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전 11:24-26, 마 26:26-27, 눅 22:19-20, 히 7:23-24, 27, 10:11-12, 14, 18, 고전 5:6-7, 13, 살후 3:6, 14-15, 마 7:6).'

1. 외적 참여와 영적 실재의 분리:

가. 무가치한 수찬자의 불행한 참여:

(1) 성찬의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요소'를 입으로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비록 물질적인 요소를 섭취할지라도, 그 물질이 상징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찬의 효력이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로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오히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고전 11:27, 29).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 예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이기에 엄중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부적합한 상태:

(1) 복음의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

와 회개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듯이(고후 6:14-15),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 합당한 영적 준비 없이 나아오는 것은 영적 질서에 위배됩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2)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고전 11:28).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형식적 참여는 영혼에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함정이 됩니다.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 교회의 권징과 성례의 거룩성 보존:

가.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1) 교회는 '거룩한 신비'인 성찬을 보호하기 위해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 7:6)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정수인 성찬이 가치 없이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교회의 직무를 시사합니다.

[마 7: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2)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한 자들을 내쫓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고전 5:6-8). 공적으로 죄를 짓거나 규모 없이 행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사도의 권면은 성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살후 3:6, 14).

[고전 5:6]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살후 3: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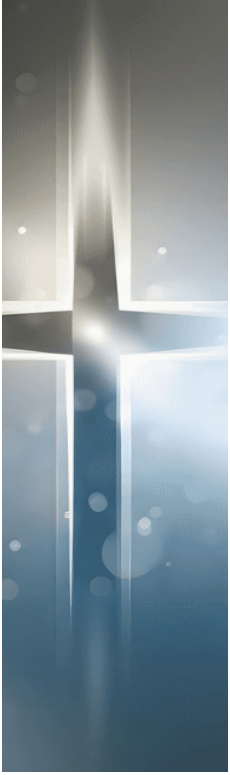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살후 3: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나. 구속사적 순결성과 종말적 잔치:

(1) 구속사적으로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 했던 자가 쫓겨난 비유처럼,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2) 결국 성찬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되게 누리게 하며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보존하는 사랑의 조치입니다. 성도는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았음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정돈해야 합니다.



30 장

/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제 30 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주님은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위해 치리자들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징은 죄를 지은 자를 회개시켜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권징의 단계는 개인적인 권면에서 시작하여 수찬 정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교에 이르기까지 공의롭고 사랑 어린 마음으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1항: 교회의 독특한 통치권과 신적 기원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사 9:6-7, 딤전 5:17, 살전 5:12, 행 20:17, 28, 히 13:7, 17, 24, 고전 12:28, 마 28:18-20, 시 2:6-9, 요 18:36) 교회의 제직의 손에 한 통제 기관을 정해 주셨다.'

1.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가. 왕이신 메시아의 주권:

(1) 교회 통치의 근거는 '주 예수'께서 교회의 '왕과 머리'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를 굳게 세우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사 9:6-7).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시온에 자신의 왕을 세우셨으며 그에게 모든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시 2:6-9).

(2)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 영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요 18:36). 따라서 교회는 국가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부터 직접 통치권을 위임받은 독립적이고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1)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며, 그 권위에 근거하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통치 체계를 세우셨습니다(마 28:18-20). 교회의 질서와 권징은 인간의 편의를 위

[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왕이라 할것임이라
[사 9: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

한 조직론이 아니라,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2. 교회 제직에게 위임된 통치 기구

가. 직분자를 통한 대리 통치:

(1) 왕이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 '교회의 제직(Officer)'의 손에 통제 기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셨으며(고전 12:28), 장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행 20:17, 28).

(2) 이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며(딤전 5:17, 살전 5:12),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직분자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히 13:7, 17, 24).

나. 통제 기관의 영적 성격:

(1) 교회 제직에게 주신 '한 통제 기관'<멤샬라>은

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딤전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살전 5: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

영적인 검(말씀과 권징)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칼의 권세'를 가졌다면, 교회는 영혼의 성결을 수호하는 '열쇠의 권세'를 가집니다.

(2) 이 통치 기구의 목적은 성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범죄한 자를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 된 교회가 무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직분자들을 통해 거룩한 질서의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히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2항: 천국 열쇠의 권세와 그 기능

'이 제직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맡겨져 있다. 그것들에 의해서 제직은 죄를 그대로 있게 하거나 용서할 수도 있으며, 말씀과 징계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을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때에 따라(마 16:19, 마 18:17-18, 요 20:21-23, 고후 2:6-8) 징계를 용서함으로써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문을 열어 준다.'

1. 천국 열쇠의 수여와 영적 통치권:

가. 제직에게 맡겨진 신적 권위: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교회의 치리자들(제직)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마 16:19)라고 말씀하시며 이 권위를 확증하셨습니다.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 따라서 교회의 제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치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늘의 확증을 동반하는 엄중한 영적 통치 행위입니다. 이 열쇠의 권세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징이 됩니다.

나. 매고 푸는 권세의 실재:

(1) 제직은 이 열쇠를 사용하여 '죄를 그대로 있게 하거나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직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죄권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 20:22-23)고 명하셨습니다.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하시니라

(2) 이 권세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며 범죄한 자를 회개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교회는 이 열쇠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지상 공동체 안에서 가시적으로 실현되도록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지닙니다.

2. 천국문을 닫고 여는 권징의 실제:

가. 말씀과 징계를 통한 문닫음:

(1) 교회는 '말씀과 징계'를 통하여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문을 닫을 권한'을 행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명백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는 그들이 현재 구원의 은혜 밖에 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마 18:17).

[마 18: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2) 이는 정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자비로운 조치입니다. 거룩한 교제의 권락(출교)을 통해 성찬의 식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하늘 문이 닫히는 두려움을 통해 그를 회개로 촉구하는 엄중한 사랑의 매입니다.

나. 복음과 사죄의 선언을 통한 문열음:

(1) 반대로 제직은 진실로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게 하고, 징계를 받았던 자가 참회할 때 그 '징계를 용서함'으로써 다시금 교회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고후 2:6-8).

[고후 2:6]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고후 2: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2: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천국 열쇠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이 권세를 통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시 우리 안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대행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정당한 권징과 사죄 선언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합니다.

제3항: 권징의 목적과 필요성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누룩을 없애 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훼방자로 말미암아(고전 5장, 딤전 5:20, 마 7:6, 딤전 1:20, 고전 11:27-34, 유 1:23) 그의 인치심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내리신다.'

1. 권징의 일차적 목적: 형제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의 순결

가. 범죄한 형제의 교정과 회복:

(1) 권징의 가장 큰 동기는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권징은 단순히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이는 잃은 양 한 마리

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죄의 길에 들어선 성도를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돌이키게 하려는 영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2) 바울은 사탄에게 내준 자라 할지라도 그 목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고전 5:5). 또한 불 속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려는 절박한 노력이 권징의 본질입니다(유 1:23).

[고전 5: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 1: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나. 악한 누룩의 제거와 파급 효과 방지:

(1) 권징은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과 같아서(고전 5:6),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고전 5:6]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 범죄한 자를 엄중히 훈계하는 것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경계가 됩니다(딤전 5:20).

[딤전 5: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무서워하게 하라

2. 하나님의 영광 수호와 공적 책임

가.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위엄 옹호:

(1)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옹호'하는 수단입니다. 만일 교회가 명백한 죄악을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2)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마 7:6)처럼, 교회는 거룩한 예전과 복음의 진리가 완고한 자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마 7: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나. 교회의 성결과 하나님의 진노 억제:

(1) 교회가 악독하고 불의한 자들을 방치하여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심'은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성찬과 같은 거룩한 예전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병든 자와 잠자는 자(죽은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고전 11:27-34).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2) 교회가 권징을 통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 위에 '진노'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징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거룩한 자정 작용입니다. 후메내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준 것처럼(딤전 1:20), 단호한 권징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30]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전 11: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전 11: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33]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전 11: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딤전 1:20] 그 중에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4항: 권징의 단계와 시행 방법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직은 먼저 충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을 정지하고 범죄의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살전 5:12, 살후 3:6, 14-15, 고전 5:4-5, 13, 마 18:17, 딛 3:10) 교회에서 제명도 한다.'

1. 권징의 점진적 단계와 영적 지도:

가. 사랑에 기초한 권면과 충고:

(1) 교회 권징의 첫 단계는 정죄가 아니라 '충고'<

아드모니티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범죄한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비로운 조치입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살전 5:12-13)라고 권면하며, 지도자들의 영적 권고를 존중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살전 5: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살전 5:13]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2) 이 단계에서의 충고는 사적인 권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하셨습니다(마 18:15-17). 이는 죄인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얻으려는 구속사적 사랑의 발로입니다.

[마 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 18: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마 18: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나. 수찬 정지를 통한 거룩한 경고:

(1) 충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을 정지'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표징이므로,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배찬 정지는 범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가시적으로 깨닫게 하는 엄중한 영적 징벌입니다.

(2)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명했습니다(살후 3:6, 14). 배찬 정지는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권계하여(살후 3:15) 거룩한 식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살후 3: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살후 3: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살후 3: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계하라

2.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제명과 출교:

가. 공동체의 순결을 위한 제명:

(1)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하거나 완악하여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교회는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에서 제명(출교)'을 시행합니다. 이는 "그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전 5:13)는 말씀의 실행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패한 지체를 몸에서 분리해내는 아픈 결정입니다(고전 5:6).

[고전 5:13]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2)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전 5:4-5)고 말하며, 출교의 궁극적 목적이 파멸이 아닌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거룩함 보존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것이 성경적 질서입니다(딛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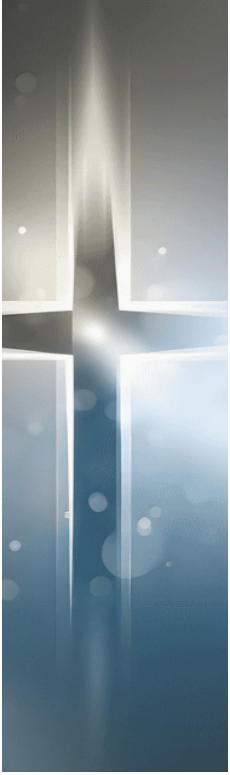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고전 5: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고전 5: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딛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나. 구속사적 회복과 공동체의 책임:

(1) 권징의 각 단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제명은 이 세상에서 천국 문이 닫히는 두려운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자각하고 그리스도께로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하려는 '거룩한 강제'입니다.

(2) 교회는 권징을 시행할 때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주의 이름과 권능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징을 받는 자가 진심으로 참회할 때 언제든지 다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정당한 권징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엄연히 살아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31 장

/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제 31 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31장 총회와 노회에 관하여 개별 교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 총회와 노회 같은 상급 회의체가 필요합니다. 이 회의체는 신앙의 논쟁을 결정하고 공적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 결정이 성경에 합당하면 성도는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는 인간의 모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므로, 회의의 결정을 성경과 같은 절대적 권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1항: 각 급 회의의 필요성과 소집 권한

'교회가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소위 각 급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행 15:2, 4, 6).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하여 주신 권리로 그러한 모임을 정하고(행 15장),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소집

하는 것은 개별 교회의 감독자들과 다른 지도자들의 권한에 속한다(행 15:22-23, 25).'

1. 교회 회의의 필요성과 성경적 근거

가. 질서와 덕성을 위한 연합의 필요:

(1) 신앙고백서는 개별 교회의 한계를 넘어 '더 좋은 통제 기관'과 '덕성의 함양'을 위해 '각 급 회의'<모에드>와 같은 연합 모임이 필수적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신학적·윤리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회의체의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는 안디옥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되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 및 다른 사람들은 할례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졌으며, 공적인 회의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행 15:2, 4, 6).

[행 15:2]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행 15: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행 15: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나. 건덕을 위한 신적 권리:

(1) 교회 회의를 구성하는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권리는 교회를 해치거나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Building up)'을 위하여 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회의의 목적은 언제나 교회의 평화와 성결, 그리고 진리의 수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2. 회의의 소집 권한과 운영의 자율성

가. 교회 지도자들의 소집권:

(1) 대회나 노회와 같은 모임을 정하고 소집하는 것은 '개별 교회의 감독자들과 다른 지도자들'의 정당한 권한에 속합니다. 이는 교회의 통치권이 세속 정부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손에 맡겨진 자율적 권한임을 확인해 줍니다.

(2)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사도와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가부를 결정하고 사람을 택하여 안디옥으로 보냈던 것처럼(행 15:22-23),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인물을 선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행 15: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행 15:23]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나. 교회의 유익을 위한 적시의 소집:

(1) 지도자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당면한 위기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여러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행 15:25).

(2) 이러한 회의체는 개별 교회의 고립을 막고, 보편적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구속사적 방편이 됩니다.

[행 15:25]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제2항: 교회 회의의 직무와 권위

'믿음에 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공적 예배와 교회정치에 관하여 규칙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목사들이 모이는 각 급 회의에 속한다. 그리고 행정상의 실수에 따른 불평을 접수하거나 그 문제를 권위 있게 처리하는 것도 각 급 회의에 속한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

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귀중하게, 또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었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행 15:15, 19, 24, 27-31, 16:4, 마 18:17-20) 정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로서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행 15장, 행 15:22-23, 25).'

1. 교회 회의의 직무와 치리 범위:

가. 신앙의 보존과 예배의 질서 확립:

(1) 교회 회의(당회, 노회, 총회 등)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믿음에 관한 논쟁들'과 복잡한 '양심의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직무를 가집니다. 이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순수한 교리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 신자들의 율법 준수 논쟁을 다루어 교회의 일치된 고백을 이끌어낸 것이 그 모범입니다(행 15:15, 19).

(2)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공적 예배'와 '교회 정치'를 위한 규칙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는 예배가 인간의 고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드려지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교회의 평안과 덕을

[행 15: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바

[행 15: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세우는 데 필수적인 지침이 됩니다.

나. 사법적 기능과 행정적 구제:

(1) 교회 회의는 하급 치리회에서 발생한 '행정상의 실수에 따른 불평'을 접수하고 이를 '권위 있게 처리'하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억울한 자를 보호하고 교회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2) 주님께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교회에 말하라'고 하셨으며(마 18:17), 사도들은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권위 있는 결정을 전달했습니다(행 15:22-23). 교회 회의는 이처럼 지상의 불완전한 치리를 보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화하는 장치입니다.

[마 18: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행 15: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행 15:23]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 회의 결정에 대한 복종과 신적 권위:

가. 말씀에 기초한 조건적 권위:

(1) 교회 회의의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교회 회의 자체가 무오한 것은 아니기에, 모든 결정은 항상 성경이라는 표준에 비추

어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에 부합하는 결정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2)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성도들은 그 권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행 15:30-31). 말씀에 근거한 결정은 신자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를 줍니다.

[행 15:30]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행 15: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나. 하나님의 제도로서의 신적 권위:

(1) 우리가 교회 회의의 결정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내용이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회의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으며(마 18:18-20), 사도들이 결정한 규례는 성령과 교회의 이름으로 공포되었습니다(행 15:28; 16:4).

[마 18: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 18:20]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행 15:28] 성령과 우리

(2) 구속사적으로 교회 회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가시적인 통치 수단입니다. 성도는 회의의 결정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에 대한 신앙적 응답입니다.

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줄 알았노니

[행 16:4]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제3항: 교회 회의의 가변성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

'사도시대로부터 총회나 특별한 모임의 구별 없이 가진 모든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었으며 사실 여러 번 과오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회의를 믿음과 행위의 법칙으로 생각치 말고, 믿음과 행위를 돕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엡 2:20,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1. 교회 회의의 유한성과 과오 가능성

가. 인간적 불완전성과 역사적 실례:

(1) 신앙고백서는 사도시대 이후의 모든 '총회나 특별한 모임'이 결코 무오(Infallible)하지 않음을 정직하게 선언합니다. 회의를 구성하는 인간 지체들의 지혜가 불완전하기에 모든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하타> 있으며, 교회사 속에서 실제로 여러 번 진리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린 전적이 있습니다.

(2) 이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 무오설이나 공의회

의 절대 권위를 배격하는 개혁주의의 철저한 성경 중심 사상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학식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나. 신앙의 기초로서의 부적합성:

(1)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합니다(고전 2:5). 따라서 사람이 모여 결정한 회의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격상시키는 것은 영적인 월권입니다.

[고전 2: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2) 성도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의 빛 아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2. 교회 회의의 정당한 기능과 성경의 수위성

가. 믿음과 행위를 돕는 보조적 도구:

(1) 비록 교회 회의가 무오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믿음과 행위를 돕는 것'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의의 결정은 성경을 올바

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지침이 되며,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의 성격이지, 성경 그 자체와 같은 '법칙'은 아닙니다.

(2) 신자는 베뢰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회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행 17:11).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고후 1:24).

[행 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고후 1: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선 교회:

(1) 교회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며, 그 모퉁잇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엡 2:20). 이 터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 따라서 모든 대회와 회의의 결정은 성경이라는 최종적 표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성경의 증거와 일치할 때만 신적 권위를 대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교회 회의는 성경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실한 수종자

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제4항: 교회 회의의 한계와 국가 사무에 대한 태도

'각 급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일반 관청으로부터(눅 12:13-14, 요 18:36)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1. 교회 회의의 고유한 영역과 한계:

가. 영적 사건에 국한된 치리권:

(1) 교회의 각 급 회의는 오직 '교회에 관한 사건'<레 에클레시아스티카에>만을 취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권세가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내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의가 세속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이권 다툼에 개입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교회의 신성한 직무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 18:36)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의 통치 영역을 침범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교회 회의는 오직 신앙과 도덕,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관한 일에 전념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아니니라

나. 세속적 재판에 대한 거부:

(1)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아와 유산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눅 12:13-14)고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법적·재산적 분쟁을 해결하는 세속적 재판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모범입니다.

[눅 12: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눅 12: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2) 교회는 세상적인 송사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파수하는 곳입니다. 교회 회의가 세속적인 사건에 몰두하게 되면, 정작 수행해야 할 영적인 치리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2. 국가 사무와의 관계 및 충고의 원칙:

가. 예외적인 청원과 양심적 충고:

(1)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일반 관청이나 국가 기관으로부터 '겸손한 청원이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권력적 개입이 아니라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가가 도덕적·윤리적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2) 이러한 충고는 국가의 정책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작동하도록 돕는 영적 조언의 성격을 가집니다. 교회는 국가가 공의를 행하도록 기도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원리들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국가 사무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1) 충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확증하는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회의가 국가의 행정이나 사법 체계에 직접 개입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성경적 질서에 어긋납니다.

(2)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라는 두 통치 영역을 각각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통치를 행하고, 국가는 칼의 권세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성도는 두 영역의 시민으로서 각 권위에 복종하되, 교회 회의는 자신의 영적 경계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세상 속에서 교회의 순결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제4항: 교회 회의의 직무 범위와 국가 사무에 대한 태도

'각 급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일반 관청으로부터(눅 12:13-14, 요 18:36)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1. 교회 회의의 배타적 관할권과 영적 성격

가. 교회적 사건에 국한된 직무:

(1) 신앙고백서는 교회 회의(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가 다루어야 할 대상이 오직 '교회에 관한 사건'<다바르 에클레시아>뿐임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이는 교회의 통치 기구가 세속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님을 뜻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영적인 영역에 국한됩니다.

(2) 교회 회의는 교리의 순결을 지키고, 예배의 질서를 확립하며, 성도의 권징을 다루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세속적 이권이나 정치적 쟁점에 깊이 관여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본질적인 사명을 훼손하고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별:

(1) 주님께서는 형제 사이의 재산 분할 문제로 개입을 요청받으셨을 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눅 12:13-14)라고 말씀하시며 세속적 송사에 개입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법정이나 행정 기구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사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눅 12: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눅 12: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2)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요 18:36), 교회 회의는 세속적인 수단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2. 국가 사무에 대한 제한적 참여와 충고

가. 특별한 경우의 예외적 조언:

(1) 비록 교회가 국가 사무에 직접 간섭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소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가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청원'이 있거나, 사회적 공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가 요구될 때 교회는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조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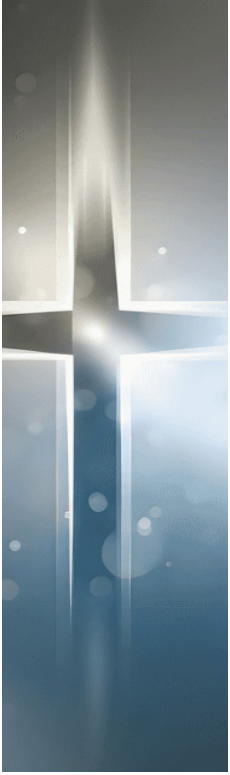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법에 부합하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지자적인 직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적인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충고'와 '청원'의 형태를 띠어야 합니다.

나. 일반 국사에 대한 비간섭 원칙:

(1) 교회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대해 결코 '간섭'<히타레부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교회가 정치 집단화되거나 국가 권력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차단합니다.

(2) 성도는 각자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교회의 공적 회의체인 대회와 총회는 세속 정사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도덕적 순결함과 영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 또한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게 됩니다.



32 장

/

사람의 사후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제 32 장 사람의 사후상태에 부활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죽음 이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겪으며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재림 때에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것이며, 불신자는 수치스러운 몸으로 일어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질 것입니다.

제1항: 사후 영혼의 상태와 중간기적 거처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 버린다(창 3:19, 행 13:36).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눅 23:43, 전 12:7).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히 12 : 23, 고후 5 : 1, 6, 8, 빌 1:23, 행 3:21, 엡 4:10, 요일 3:2).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눅 16:23-24, 행 1:25, 유 1:6-7, 벧전 3: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1. 육체의 부패와 영혼의 불멸성

가. 티끌로 돌아가는 육체:

(1) 인류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죄의 형벌로 인해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 버린다'는 선고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으며(창 3:19),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이라 할지라도 죽어 장사되어 그 육신이 썩음을 당했습니다(행 13:36). 이는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을 상기시키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창 3: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행 13: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2)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부패는 성도에게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기다리는 잠시 동안의 해체 과정입니다.

나. 깨어 있는 존재로서의 영혼:

(1) 육체와 달리 인간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누마>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집니다. 신앙고백서는 '영혼 수면설'을 배격하며, 죽음 직후 영혼이 즉시 의식적인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감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증거했습니다(전 12:7).

[전 12: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2)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눅 23:43)은, 죽음 이후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머물지 않고 즉각적인 영적 실재 속으로 들어감을 확증합니다.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2.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사후 거처

가. 의로운 자의 낙원과 소망:

(1) '의로운 자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곳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모인 곳이며(히 12:23), 성도는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요일 3:2).

(2) 그들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고후 5:8, 빌 1:23), 낙원에서 안식하는 동안에도 땅에 남겨진 자신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게울라> 갈망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지상 장막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들의 복된 상태입니다(고후 5:1).

나. 사악한 자의 고통과 심판 대기:

(1) 반면 '사악한 자의 영혼'은 죽음 즉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부자의 비유에서 보듯, 그들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눅 16:23-24).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간 것처럼(행 1:25), 불신자의 영혼은 자기 죄에 합당한 심판의 장소에 갇히게 됩니다.

(2) 그들은 흑암에 갇힌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유 1:6-7), 최종적인 '대심판의 날'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옥에 갇힌 영들의 상태에 놓입니

[히 12: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인함이니

[고후 5: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빌 1: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에너니라

[눅 16: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눅 16:24]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

다(벧전 3:19).

3. 영적 거처의 유일성과 명확성

가. 연옥설과 제3의 장소 배격:

(1) 신앙고백서는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중세 교회의 비성경적인 연옥설이나 림보(Limbo) 등의 가르침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2) 성경적 계시는 죽음 이후의 운명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뉨을 명확히 합니다. 인간의 고안물인 제3의 장소는 복음의 명확성을 흐리게 하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나. 단회적인 기회와 영원한 결정:

(1) 이 두 장소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오갈 수 없으며(눅 16:26), 사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후의 중보 기도나 제사가 죽은 자

민하나이다

[행 1: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갔나이다하고

[유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형상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벧전 3:19] 저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눅 16:26]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2) 성도는 이 명확한 진리 위에서 오늘을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확실한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2항: 종말의 변화와 몸의 부활

'마지막 날에 살아 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살전 4:17, 고전 15:51-52).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욥 19:26-27, 고전 15:42-44).'

1. 종말의 변화와 부활의 실재성:

가. 산 자의 변화와 홀연한 영광:

(1)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세상에 '살아 남아 있는 자'들은 일반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

치지 않고 직접 '변화'<알라게소메다>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고전 15:51-52).

(2) 이 변화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신령한 사건입니다. 살아 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며, 이로써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살전 4:17).

[고전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고전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 몸의 부활과 동일성의 보존:

(1) 이미 죽음을 맞이한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졌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욥은 "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 19:26-27)고 고백하며 부활체의 인격적·신체적 동일성을 확증했습니다.

[욥 19:26]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 19:27]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2) 만약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하셨으며, 성도는 자기가 가졌던 그 고유한 신체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부활체의 질적 변화와 영원한 연합:

가. 질적 변화: 썩을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1)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 동일하지만,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입니다. 지상의 몸은 약하고 썩고 욕된 것이었으나, 부활의 몸은 강하고 썩지 아니하며 영광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사도는 이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고전 15:44)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2) 이 '신령한 몸'<소마 프뉴마티콘>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질병, 쇠약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형된 이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상태입니다(고전 15:42-43).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15: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나.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재결합:

(1) 죽음으로 인해 잠시 분리되었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인격을 이룹니다. 인간은 본래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창조되었기에, 구원의 완성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부활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도입된 사망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보여주는 최종적 승리입니다. 부활한 성도는 영혼과 몸이 온전히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계속' 거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제3항: 최후 부활의 성격과 두 부류의 운명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행 24:15, 요 5:28-29, 고전 15:43, 빌

3:21, 요일 3:2).'

1. 불의한 자의 부활과 심판의 권능

가. 그리스도의 힘에 의한 강권적 부활:

(1)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행 24:15). 불의한 자들은 부활하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만유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힘'<코아흐>에 의해 강권적으로 일으켜 세워집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조치입니다.

[행 24:15] 저희의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2)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요 5:28-29). 이들의 부활체는 영원한 형벌과 '굴욕'을 견디기에 적합한 상태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차단된 비참한 존재로 서게 됩니다.

[요 5: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 수치와 멸시의 부활:

(1)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영광이 아닌 영원한 수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라고 예언했습니다.

(2) 이들은 부활한 몸으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의 결과를 온전히 담당하며, 영원한 심판의 집행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 위에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2. 의로운 자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변화

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부활:

(1) 반면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루아흐 하마시아흐>으로 인하여 부활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며, 지상에서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씻어내는 영원한 회복을 경험합니다(요 5:29).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 지상에서 욕된 것으로 심겨졌던 육신은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비로운 변모가 일어납니다(고전 15:43).

[고전 15: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의 일치:

(1) 성도의 부활체는 단순히 생명을 얻는 수준을 넘어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빌 3:21).

[빌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2) 우리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요일 3:2). 부활은 성도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정점이며, 그리스도와 온전한 형상적 일치를 이루는 영광의 극치입니다.

[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 구속사적 진리와 영적인 적용

가. 육체의 구속과 창조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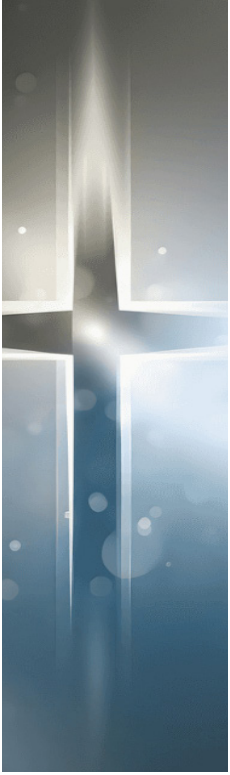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하

신 인간의 육체까지도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되찾으시는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

(1) 성도는 장차 임할 '부활의 소망'<티크바트 하트히야>을 가지고 현재의 연약함과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늙고 병들고 쇠잔해지는 육신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2) 부활은 신앙의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동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33 장

/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제 33 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33장 최후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보내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 직고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상급과 안식을 얻고, 악인은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1항: 심판의 날과 심판주 및 심판의 대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셨다(행 17:31).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과 심판을 부여하셨다(요 5:22, 27). 그 날에는 배신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 6:3, 유 1:6, 벧후 2:4)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

에 대해 결산을 하며,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후 5:10, 전 12:14, 롬 2:16, 14:10, 12, 마 12:36-37).'

1. 정해진 심판의 날과 신적 권위를 가진 심판주:

가.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심판의 날:

(1)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되거나 허무하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날'<헤메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 하셨습니다(행 17:31). 이 날은 역사의 종결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앞에 명백히 실현되는 날입니다.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2) 심판의 날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신앙적 근거를 얻습니다.

나. 심판의 권능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1)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권능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 하셨습니다(요 5:22). 이는 인자 됨으로 인함이며(요 5:27),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고난 당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만유의 주재로서 가장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 그리스도의 심판은 편파적이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각 사람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주가 되셨던 주님은 이제 보좌 위에서 심판주로서 자신의 권위를 만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2. 전 우주적인 심판의 범위와 결산:

가. 타락한 천사와 인류 전체의 출두:

(1) 심판의 대상은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천사'<안겔루스 하마르테산타스>들까지 포함합니다(벧후 2:4; 유 1:6). 타락한 영적 존재들도 하

[벧후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형벌의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 또한 장차 천사를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고전 6:3).

(2)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고후 5:10; 롬 14:10). 지위나 권력, 인종과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창조주이자 심판주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전 6: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롬 14: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한 철저한 결산:

(1) 심판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말'까지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며(롬 2:16),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마 12:36-37).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는 말씀처럼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롬 2:16]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마 12: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 12: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전 12:14] 하나님은 모

(2) 각 사람은 '육신으로 행한 그 일에 따라서' 결

산을 받게 됩니다. 이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삶의 열매로 증명되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신자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성령의 증거이며, 악인의 행실은 하나님을 거역한 본성의 결과입니다. 성도는 이 엄중한 결산의 날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음을 인지하고 코람 데오(Coram Deo)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드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2항: 심판의 목적과 두 부류의 영원한 운명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롬 9:23, 마 25:21) 사악하고 불복종하는(롬 2:5-6, 살후 1:7-8, 롬 9:22-23) 버림받은 자들의 처벌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 25:31-46, 행 3:19, 살후 1:7).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 앞에서 처벌을 받

아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마 25:41, 46, 살후 1:9, 사 66:24).'

1. 최후 심판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 현시

가.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심:

(1)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택하신 자'<베히림>의 구원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무한한 '자비'를 선포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롬 9:23).

[롬 9: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찌라도 무슨말 하리요

(2) 신실한 종들은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마 25:21).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과 은혜의 산물임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마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 하고

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심:

(1) 심판의 또 다른 목적은 '사악하고 불복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처벌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체데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나, 끝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쌓는 자들에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롬 2:5-6, 9:22).

(2)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결코 타협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현시입니다(살후 1:8).

2.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와 종국

가. 의인의 영원한 기쁨과 안식:

(1) 심판 이후 '의로운 사람'은 단번에 '영생'에 들어갑니다(마 25:46). 이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며(마 25:34),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여 '충만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행 3:19, 살후 1:7).

(2) 이곳은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며,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롬 9:22]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살후 1: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마 25:46]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살후 1:7]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상태가 지속됩니다.

나. 악인의 영원한 형벌과 파멸:

(1) 반면 '사악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마 25:41). 이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파멸'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살후 1:9).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살후 1: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2) 이 고통은 일시적인 소멸이 아니라, 그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하고 의식적인 고통입니다(사 66:24). 복음을 거부한 대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가장 비참한 소외로 나타납니다.

[사 66:24]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제3항: 심판 날을 계시하신 목적과 성도의 자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삼가도록,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하여 큰 위로를 주기 위하여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셨다(벧후 3:11, 14, 고후

5:10-11, 살후 1:5-7, 눅 21:27-28, 롬 8:23-25). 마찬가지로 그 날을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 두어서 그들이 모든 인간적인 안전감을 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다(마 24:36, 42-44, 막 13:35-37, 눅 12:35-36, 계 22:20). 아멘.'

1. 심판의 확신이 주는 도덕적 억제와 영적 위로:

가. 거룩한 삶을 위한 도덕적 억제력:

(1)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을 분명히 계시하신 첫 번째 목적은 성도가 '죄를 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고후 5:10-11).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벧후 3:11, 14).

(2) 심판에 대한 확신은 방종을 막고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강력한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시기에,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1]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벧후 3: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나. 고난받는 성도를 위한 궁극적 위로:

(1) 또한 심판 날은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큰 위로'<솔라티움>를 주기 위해 예정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는 그 날은 환난에서 놓임과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살후 1:5-7).

(2)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파멸의 날이 아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눅 21:28)고 선포되는 구원의 완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영적 동력을 심판의 약속 안에서 발견합니다(롬 8:23-25).

2. 심판 날의 은비성과 종말론적 대망:

가. 인간적 안일함의 타파와 긴박한 준비:

[살후 1: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살후 1:6]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살후 1:7]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눅 21: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롬 8:23]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1) 하나님은 심판의 '그 날을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날짜를 계산하며 스스로의 '안전감'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마 24:36). 주님이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긴박함을 갖게 합니다(눅 12:35-36).

(2) 심판 날의 은비성은 우리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그레고루에이테> 만듭니다. 만일 그 날을 안다면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미루는 완악함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를 감추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을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막 13:35-37).

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

(1)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항상 준비'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마라나타>라는 대망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계 22:20). 이는 심판을 두려움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하여 양자 될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롬 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롬 8: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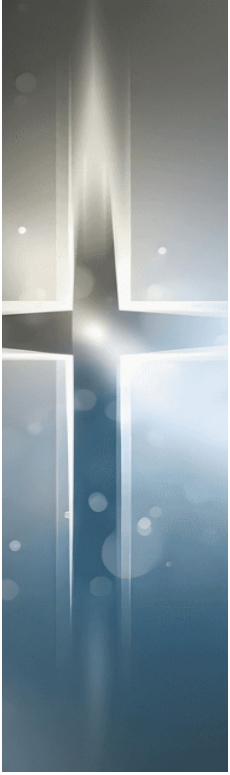
[눅 12: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막 13: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막 13: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막 13: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2) 구속사적으로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온 천하에 공포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성도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장차 임할 완전한 나라를 소망 중에 고대합니다. 이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심판의 엄중함과 성도의 간절한 기도로 그 장대한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4 장

/

성령에 관하여

제 34 장 성령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또한 성도 안에 거하시며 기도할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위로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모든 직무와 예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제1항: 성령의 신성과 삼위일체적 위상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출원하였으나 동일한 실체를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드려야 한다.'

1. 성령의 신적 본질과 삼위일체적 관계

가. 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출원:

(1) 성령<루아흐 하코데쉬>은 단순히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고유한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위'이십니다. 신앙고백서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출원'하신다는 '필리오케'(Filioque) 교리를 따르며, 이는 구원 사역 속에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보내심을 받는 영적 질서를 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 성령은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한 실체'를 공유하십니다. 성령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이시며, 존재의 근원에 있어서 어느 한 위격도 다른 위격보다 먼저이거나 나중일 수 없는 신비로운 일체성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는 말씀은 성령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고후 3: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나.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의 동등성:

(1) 성령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신"(창 1:2) 혹은 "주의 영"(고후 3:17)이라 부름으로써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천지창조의 사역에 함께하셨고, 만물을 보존하시며, 성도의 구원을 인치시는 모든 신적 사역에서 동일한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는 말씀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지혜와 영광을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모든 신적 사역에서 성부, 성자와 동일한 권세를 행사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공유하십니다.

[고전 2: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2. 성령에 대한 마땅한 예배와 경배

가. 믿음과 사랑과 복종의 대상:

(1)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므로, '모든 사람들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즉각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찌어다"(고후 13:13)라고 축복한 것은 성령이 경배와 신뢰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고후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찌어다

(2)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는 명령은 성령께서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그분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에 온전한 복종을 드려야 합니다.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나. 삼위일체적 예배의 일치:

(1)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리는 통합적인 예배입니다. 어느 한 위격을 소홀히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온전한 삼위일체 예배라 할 수 없으며,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일원

으로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 28:19) 받는 것과 같이, 교회의 모든 축복과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성령은 예배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는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제2항: 성령의 신격과 사역의 효력

'그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다.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생각과 순수한 열망과 거룩한 계획의 근원이시다. 그에 의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충동을 받았고 모든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복음의 경륜은 특히 그에게 위임되었다. 그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설득력으로서 동행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 위에 복음의 사신(使信)을 주어 그러한 자비로우신 은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구실이 없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1. 성령의 신성과 보편적 사역:

가. 생명의 주권자와 선의 근원:

(1)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라 '주님'<퀴리오스>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조오포이운>이십니다. 그는 무소재하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시 139:7)라는 고백처럼 어디에나 계시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생각과 순수한 열망의 유일한 근원이 되십니다.

[시 139:7]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2) 인간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일반 은총적인 선함과 성도의 특별 은총적인 거룩함 모두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심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요 6:63)라는 말씀대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 성경의 영감과 무오한 기록:

(1) 성령은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자

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벧후 1:21)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며, '모든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무오하게 기록했습니다.

[벧후 1:21] 예언은 언제 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 성경의 저작권은 궁극적으로 성령께 있습니다. 그는 인간 기자의 개성과 언어를 사용하시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 복음의 경륜과 인간의 책임:

가. 복음 사역의 동행자와 설득자:

(1)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복음의 경륜'은 특별히 성령께 위임되었습니다. 그는 죄인의 마음 밭을 갈아 복음의 길을 준비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4)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설득력으로 동행하십니다.

[고전 2: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2) 성령은 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내적으로 역사하시어 죄인의 의지를 굴복시키

십니다. 그는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14:26)라는 약속처럼 인격적인 설득과 감동을 통해 신자가 자원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 거절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심판:

(1) 성령은 모든 사람의 '이성과 양심' 위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은사를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히 2:3)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구실이 없게 됩니다.

[히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2)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2)는 말씀은 그 거역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고합니다.

[마 1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3항: 성령의 구속적 사역과 성도 안에서의 내주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성령은 구속을 실현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는 사람을 그의 은혜로 중생케 하고, 그들의 죄를 시인케 하고, 참회토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고 위로자와 성화자로서 그들 안에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입양(入養)의 영과 기도를 주신다. 또한 모든 은혜로운 일을 행하여 그것으로써 신자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는다.'

1. 성령의 주권적 선물과 구속의 실현

가.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1)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낌없는 선물이자 구원의 핵심적 자산입니다.

[눅 11:13]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2)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실현시키시는 유일하신 분'<하메얏심 하야히드> 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는 말씀처럼 성령의 적용 사역을 통해 비로소 구원은 죄인 개개인의 영혼 속에 실제적인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 회심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

(1) 성령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3:5) 안 된다는 말씀대로 '그의 은혜로 중생'<리다 하카다사>케 하십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는 사역을 통해 죄를 시인하고 참회하게 하십니다.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2) 인간의 완악한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 2:8)라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죄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주권적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 신자 안에서의 내주와 보존 사역

가. 그리스도와의 결합과 양자의 영:

(1) 성령은 신자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킵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공유하게 되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라는 약속대로 우리 안에 위로자<파라클레토스>로 거하십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 성령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는 말씀대로 입양의 영<루아흐 하이무츠>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롬 8:26)하십니다.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 성화와 최종적 인치심:

(1) 성령은 신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갈 5:22)와 같은 모든 은혜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신자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성령의 성화 사역의 결과이며, 성령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보존하십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 성령의 '인치심'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이 신령한 도장은 성도가 최후 승리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속사적 증표입니다.

[엡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제4항: 성령의 내주와 교회의 연합 및 보존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그는 그의 교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른 직책을 위한 자격을 준다. 또한 그의 회원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총을 부여해 준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존되고 증가되고 성결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1. 성령의 내주를 통한 유기적 연합:

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1) 성령의 내재<인드웰링>는 신자가 얻는 가장 큰 복락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고전 12:13)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시키십니다.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는 말씀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결합의 보증이 되십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치:

(1) 그리스도와 결합된 모든 신자는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성령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엡 4:3)을 지키게 하시는 일치의 띠와 같습니다.

[엡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 따라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고전 12:12)라는 말씀처럼, 성도는 자

[고전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다른 지체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일치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2. 교회의 직분과 은사 및 종말적 성화:

가. 직분자를 부르시고 자격을 주시는 사역:

(1) 성령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교역자들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고 기록하며 직분의 신적 기원을 밝힙니다.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 또한 장로와 집사 등 모든 다른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고전 12:4)라는 말씀대로 합당한 자격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여러 은총을 나누어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고전 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나. 교회의 보존과 최종적 성결:

(1) 교회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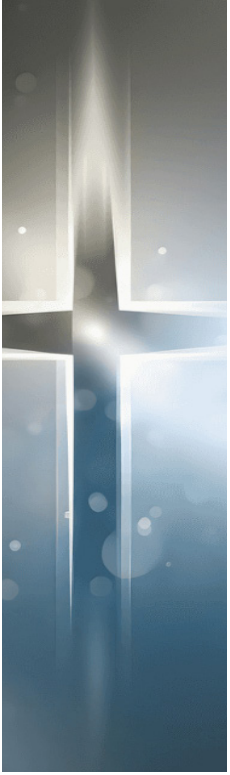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는 말씀대로 성령에 의해 보존되고 증가합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엡 5:26) 세상을 정결케 하십니다.

(2) 구속사적으로 성령의 사역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7)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날을 향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는 성령의 완성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면전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행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35 장

/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제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도입내용

제35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의와 선교에 관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을 제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교회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 선교의 길을 여시며,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제1항: 복음의 기원과 은혜의 보편적 제안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마련하셨다. 그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 사람의 모든 잃어버린 족속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제공되었다.'

1.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언약의 마련

가. 사랑에서 기원한 구속 경륜:

(1) 복음의 절대적 기초는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구속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엡 2:4), 타락한 인류를 위해 스스로 '은혜의 언약'<베리트 헤세드>을 예비하셨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4]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 이 언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 주님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사랑을 확증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롬 5:8).

[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

(1)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독점적이고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셨습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는 선포와 같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천명합니다.

[행 4:12] 다른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2. 복음의 충분성과 보편적 선포

가. 모든 종족을 향한 충분한 효력:

(1) 그리스도의 희생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잃어버린 족속'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적합'<마스피크 베라우이>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2). 주님의 보혈은 그 가치에 있어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무한한 효능을 지닙니다.

[요일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

리"(계 7:9)를 포함하며, 어떤 문화나 인종도 이 복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계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나. 자유로운 제공과 초청:

(1)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제공'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복음은 자격 있는 자에게 파는 상품이 아니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 2:4). 이 보편적 초청은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합니다(막 16:15).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든 영혼을 영생으로 초대합니다.

[딤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막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2항: 복음의 계시와 보편적 초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그의 뜻이 선언되었으며(요 3:16, 딤전 2:4), 구원의 유일의 방법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행 4:12, 고전 1:23-24). 또한 참으로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요 3:36, 요 6:47), 주어진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하시고 명령하신다(사 55:1, 행 17:30).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그의 영에 의하여 그의 은혜로우신 초청을 받도록 사람에게 역설한다(계 22:17, 고후 5:20).'

1.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

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편적 의지의 선언:

(1) '복음' 안에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며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의지가 명확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요 3:16),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전 2:4).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딤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 비록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선택의 신비가 있으나, 선포된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세상을 향

해 열려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잔혹한 폭군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 명백하고 충분한 구원의 방법:

(1) 복음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행 4:12)을 분명히 하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선포합니다(고전 1:23-24).

[행 4:12] 다른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고전 1: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전 1: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 구속사적으로 복음은 구약의 희미한 예표들을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명백한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2. 복음의 약속과 거룩한 권면:

가. 믿는 자를 향한 약속과 순종의 명령:

(1)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참으로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엄중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 3:36),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요 6:47).

(2) 동시에 하나님은 단순히 제안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자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권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사 55:1)고 자비로이 부르시는 동시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행 17:30)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요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 55:1]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행 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역설적 역사:

(1) 하나님은 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은혜로우신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간곡히 '역설'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 22:17)라는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20)고 외쳤던 것과 같은 신령한 설득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초청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을 깨닫고, 자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후 5:20]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3항: 복음 수용의 책임과 거부의 결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저없이 그의 자비로우신 준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의무요, 특권이다. 반면에 참회도 하지 않고 불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악화된 죄책을 초래하게 되며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망하게 된다.'

1. 복음을 향한 즉각적인 응답의 의무와 특권

가. 자비로운 초대에 대한 당연한 순종:

(1)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준비'<하카나 하레하밈>,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땅한 '의

무'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초청은 즉각적인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요일 4:16)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려야 할 최고의 복종입니다.

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

(1)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를 넘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제쿠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는 약속대로, 믿는 자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신분이 변화됩니다.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롬 8:1), 성도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롬 5:1-2).

[고후 6: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일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 불신앙의 고집과 자초한 멸망

가. 가중되는 죄책과 심판:

(1)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회도 하지 않고 불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단순한 무지보다 더 무서운 '악화된 죄책'을 초래하게 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을 스스로 발로 차는 행위이기에 그 형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며(요 3:18),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살후 2:12).

[요 3: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살후 2: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은 자충적 멸망:

(1)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제공하셨으나, 그들이 "

오기를 싫어하였기"(마 23:37)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2)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40). 이처럼 고의적인 거부와 불신은 결국 자기 영혼에 대한 스스로의 정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각 사람의 행위, 특히 복음에 대한 반응을 따라 심판하시며,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지게 됩니다.

[마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요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4항: 복음의 유일성과 세계 선교의 사명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으며(행 4:12), 신적 확립과 보통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롬 10:14, 17)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위탁하기를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다(마 28:19-20, 막 16:15).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기독교의 질서를 지지할 의무와 그들의 기도와 기부와 개개적인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데 공헌을 해

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빌 1:5, 4:15-16, 골 4:3).'

1. 복음의 절대적 유일성과 은혜의 방편:

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복음:

(1)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 이외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행 4:12)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다리를 잇는 유일한 중보임을 의미합니다.

[행 4:12] 다른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2) 따라서 복음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이나 다른 종교적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은 복음 전파의 시급성과 필연성을 부여하는 영적 기초가 됩니다.

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오는 믿음:

(1) 하나님께서는 '신적 확립과 보통 방법'인 '말

씀의 선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고 가르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없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롬 10:14).

(2) 이 원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위탁'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으로써(마 28:19), 교회가 복음의 보관자이자 전파자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막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 신자의 선교적 사명과 헌신:

가. 확립된 질서에 대한 지지와 확장:

(1)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의 질서를 지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는 거룩한 체계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성도는 자기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부여된 공통의 사명입니다.

나. 기도와 기부 및 개인적 노력의 실천:

(1) 선교의 사명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골 4:3), 선교 사역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물질적인 '기부'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여러 번 참여하며 물질로 동역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빌 1:5, 4:15-16).

(2) 나아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개개적인 노력'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모든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이며(롬 1:14), 이 빚을 갚는 길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골 4: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빌 1:5]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 4: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 4: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롬 1: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초판 발행 2026. 1. 1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초강추! CHANCE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